

삶의 양식과 문화

한민족은 오랫동안 고유한 민족 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왔다. 한민족의 민족 문화는 자연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삶의 양식에 기초하고 있다. 산지와 평야의 배치, 기후적 특성은 한민족 문화의 기초가 되었으며, 의식주로 대표되는 한민족 고유의 삶의 양식은 대한민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기반이 된다. 의복 재료와 의복 문화의 발달, 다양한 식재료의 가공 방식과 새로운 식재료의 등장, 자연과 어우

러지며 자연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주거 공간 등은 삶의 양식으로서의 문화를 잘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전통은 단순히 환경에 적응해 온 인간 집단의 삶의 방식으로만 이해될 수는 없다. 의복, 음식, 주거 등의 전통적 문화는 우리 국토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며 주변 문화를 흡수한 한민족의 생활 양식이며,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근대 이후 한민족의 문화는 전통적 요소와 현대적 요소가 공존

하는 문화적 다양성을 이루어냈다. 다양한 문화가 유입되고, 때로는 우리 문화가 외부로 전파되기도 하였으며, 전통적 삶의 양식이 현대적 삶의 조건에 맞게 변하고 있다. 생활 수준의 향상과 문화에 대한 관심은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대한 수요로 이어졌으며, 다양한 문화 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 기반 시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영화, 스포츠,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과 공간도 현대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또한 현대 한국인의 삶은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삶의 양식과 함께 삶을 즐기는 방법과 장소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고 있으며,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역시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다.



한복 입은 가족



한식 밥상



경복궁 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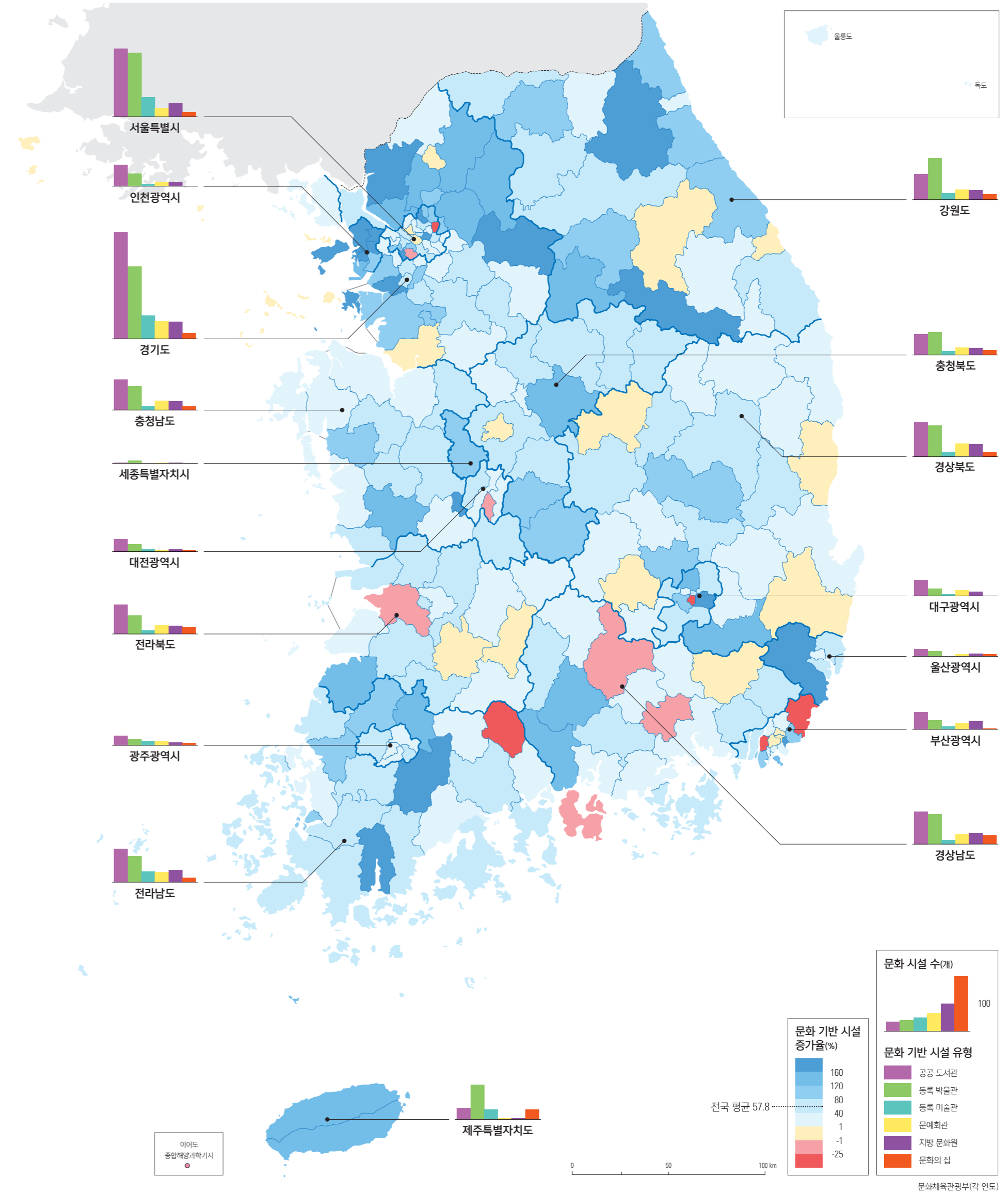
국립중앙박물관 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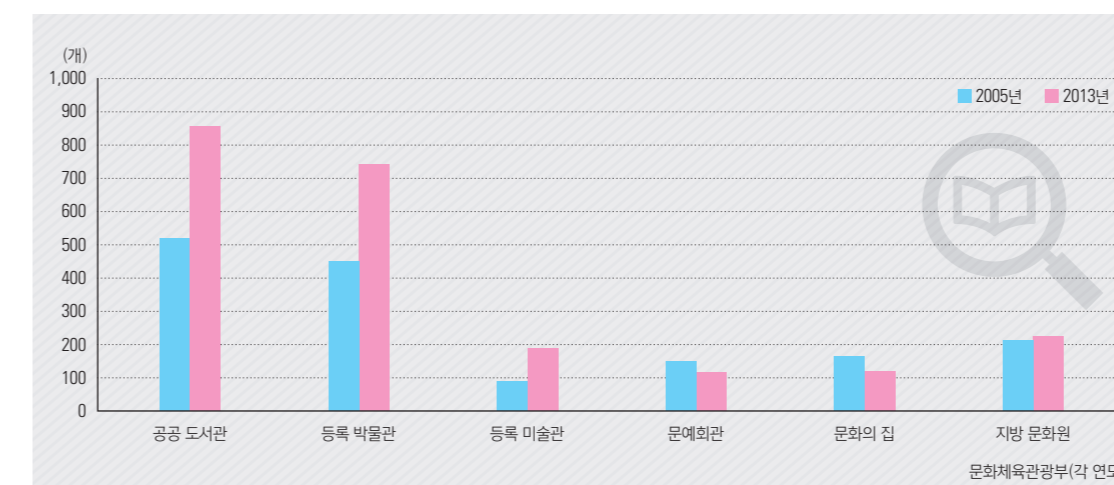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

문화 공간의 변화

문화 기반 시설 변화(2005 - 2013년)



문화 기반 시설 변화



문화 기반 시설은 지역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각 지역에서 운영 중인 시설로, 공공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 문화원, 문화의 집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시설들은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문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전국의 각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지역 사회 문화 활동의 기반이 되어 왔다. 또한 국민의 문화 기본권의 측면에서도 문화 기반 시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의 시설은 지역 주민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꾸준히 증가해 왔다. 문화 기반 시설의 증가와 함께 규모와 시설도 보완되고 확장되어 왔으며,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도서관과 박물관의 경우 소장 자료와 전시물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며, 각종 공연장 및 전시장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참가자가 증가하고 각종 운영 프로그램도 활성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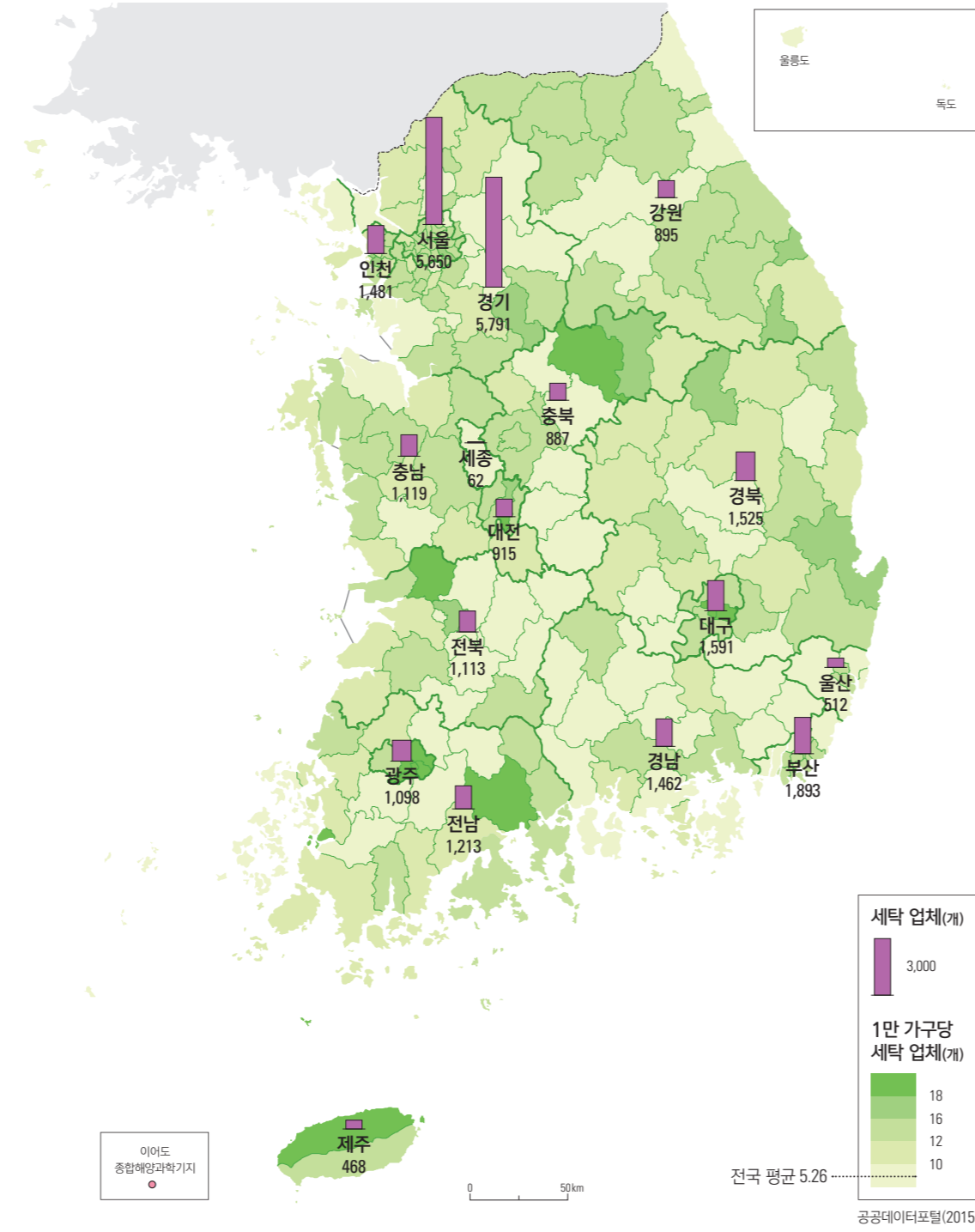
의복과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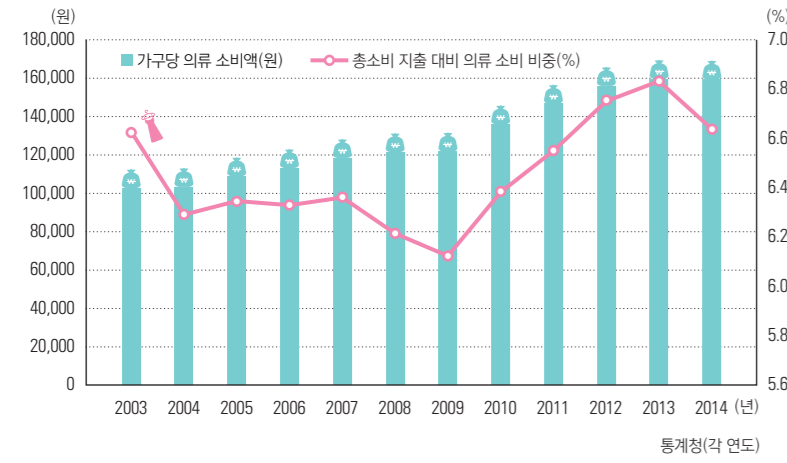
한민족의 의복 문화는 민족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발견되는 선사 시대의 의복 제조 도구는 우리나라 의복의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고대 의복 양식은 고구려 고분 벽화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구려 벽화에서 저고리와 바지의 형태 등 한민족의 전통적 의복 양식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종류의 옷감이 이용되었고, 의복의 형태도 다양해졌다. 비단과 모시에 이어 면화의 도입과 재배로 새로운 옷감이 등장하여 의복 문화는 크게 변화

였다. 또한 우리 민족은 흰 옷을 즐겨 입는다고 하여 백의민족으로 알려졌으나, 특별한 행사나 의례를 위한 다양한 색채의 의복을 즐겨 입었으며, 의복은 때로는 신분과 계급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전통시대 의류는 대부분 가정에서 제작되었으며, 의복의 세탁과 손질은 가사 노동의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의류는 대부분 공장에서 만들어지며, 가계의 소비 지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세탁과 다림질 등도 세탁업소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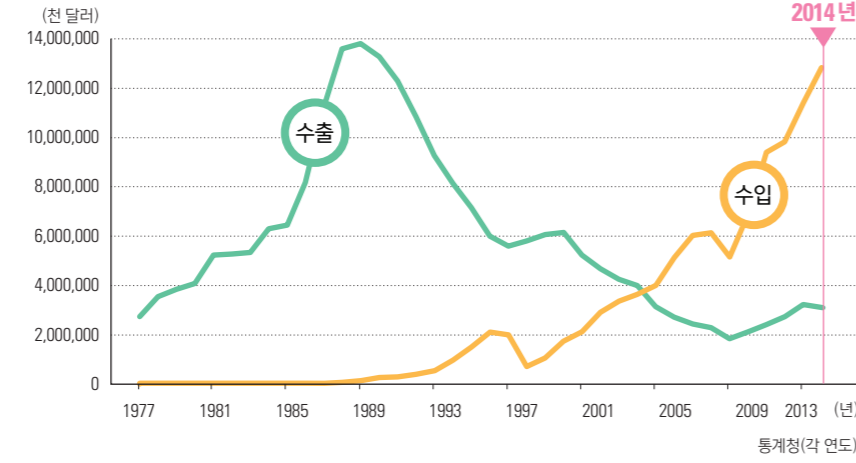
세탁업의 분포(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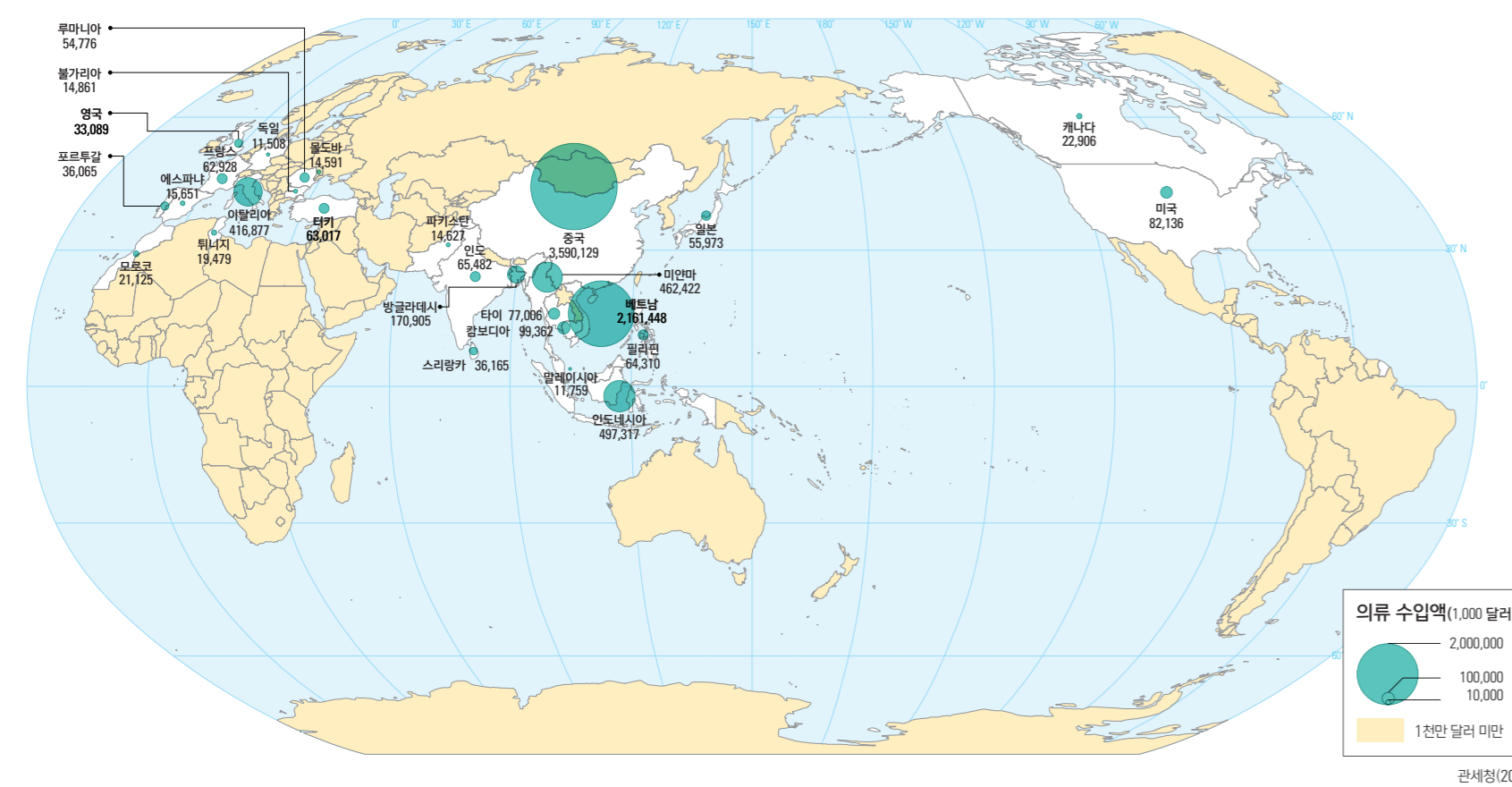
의류 소비 추이



의류의 수입과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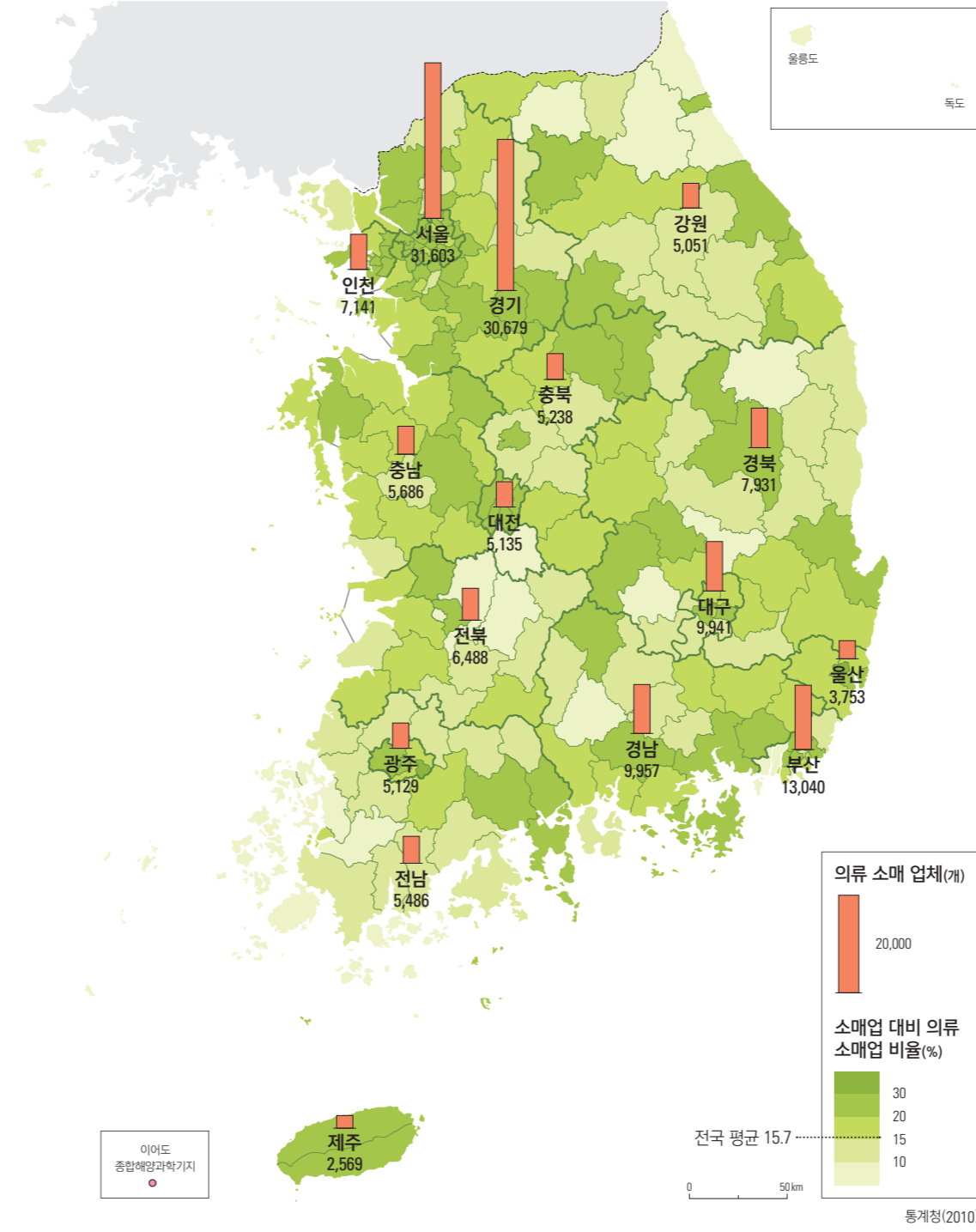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의류의 주요 생산 국가(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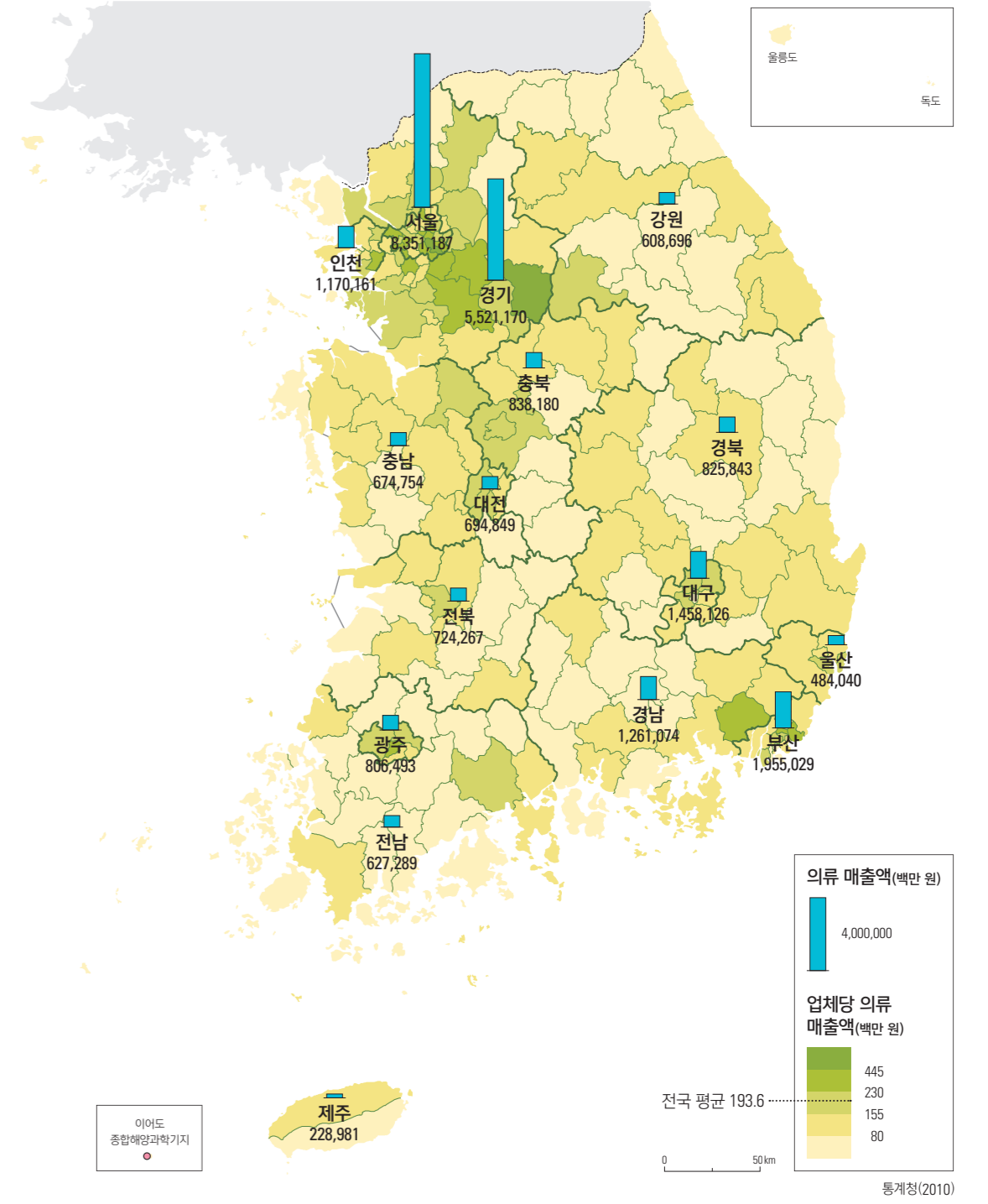
근대 이후 다양한 합성 섬유와 직조 기술의 발달로 의복 문화는 큰 변화를 겪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섬유 산업은 한국 경제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대도시에서 다수의 소규모 의류 제조업체가 등장하였으며, 이러한 소규모 공장들은 도시로 밀려든 많은 노동자의 일자리였다. 또한 화학 산업의 발달로 인해 방직 공업도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다. 화학 산업의 발달과 풍부한 노동력으로 말미암아, 산업화 초기 곳곳에 섬유 관련 공업 단지화 도시들이 등장하였으며, 도시의 곳곳에서 소규모 의류업체가 운영되었고 섬유 산업은 수출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최근 섬유, 의류 및 봉제 산업은 인건비가 낮은 국가로 집중하고 있으며, 세계화로 인해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수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이전하게 되었다. 또한 노동력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기술 및 자본 위주의 산업 구조 재편의 결과로 의류 산업은 쇠퇴하고 매년 많은 양의 의류 제품이 수입되고 있다. 한국에 수입되는 의류의 대다수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생산된 것이며, 명품으로 대표되는 고가의 의류도 유럽 등지에서 수입되고 있다. 한국의 의류 및 봉제 산업은 디자인을 중심으로 하는 고부가가치화라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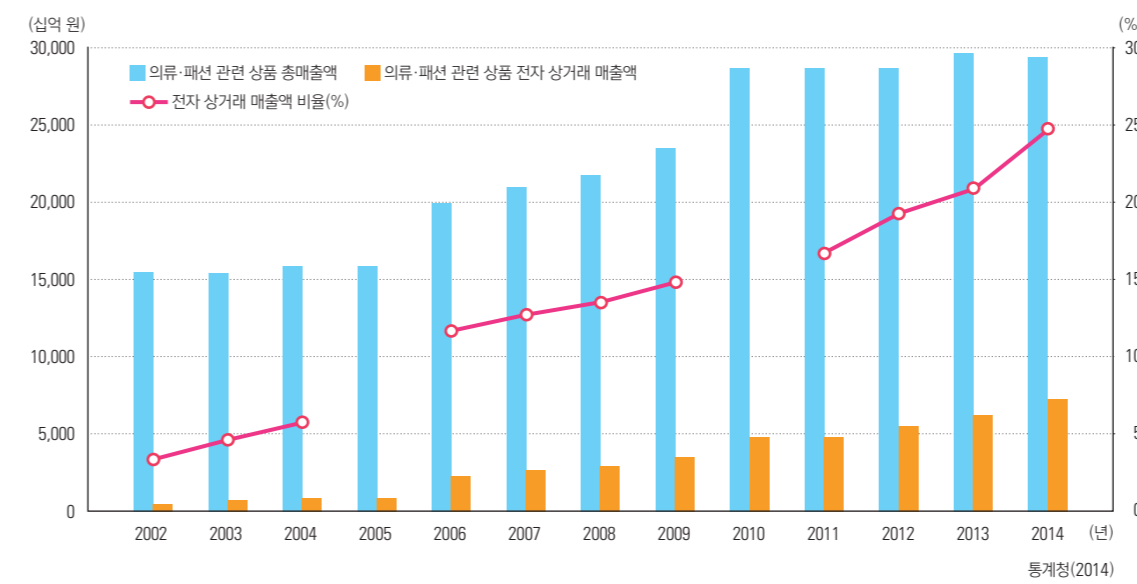
소매업 대비 의류 소매업 비율과 수(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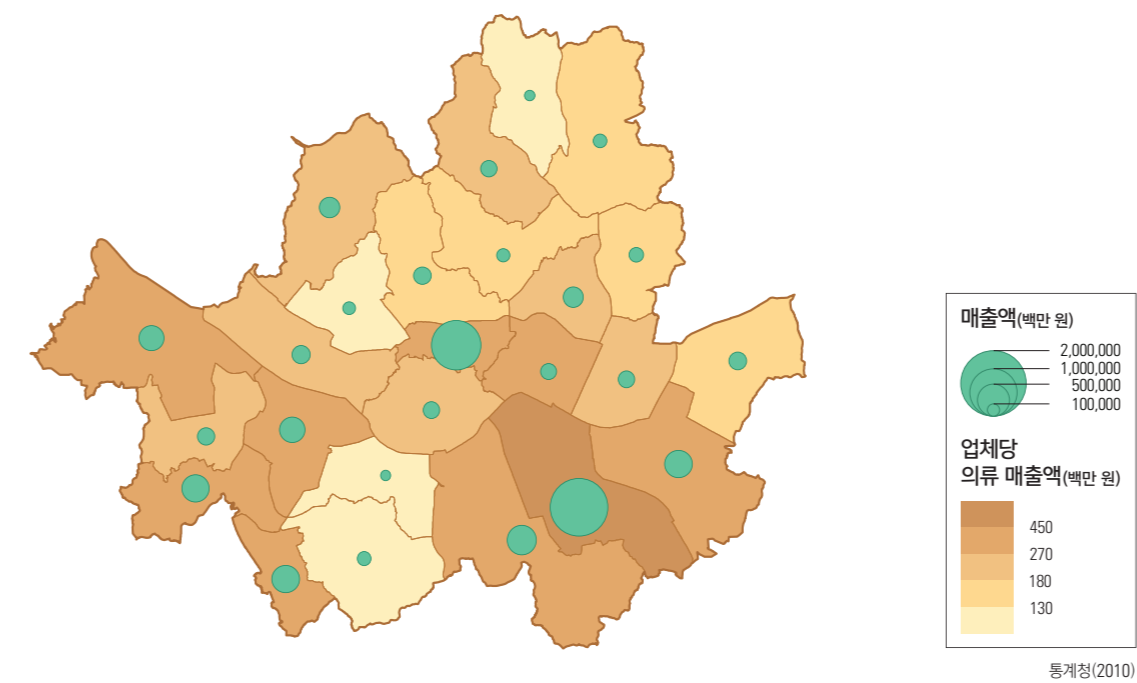
의류 소매업 업체당 매출액(2010년)



의류 전자 상거래 매출과 구성비



서울시 의류 소매업 업체당 매출액(2010년)



의복 문화의 변화는 의류 판매 공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과거 의류 판매는 시장이나 백화점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의류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업체가 호황을 누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의류 구입 장소는 백화점, 전문점, 상설 할인 매장, 대형 마트, 전통 시장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의류 소매업은 백화점, 전문점, 대형 마트 등이 밀집한 대도시에서 다수 분포하고 있다. 대도시의 일부 지역에서는 고가의 의류가 판매되고 새로운 패션이 도입·확산되는 쇼핑 거리도 등장하고 있다. 서울의 의류 판매 공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과거 전통 시장과 소규모 업체의 밀집으로 이루어진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

장 중심에서 강남 지역이 중요한 판매 공간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대도시 교외의 대형 상설 할인 매장이 등장하면서 대도시 인근 지역에서 의류 소매업 업체당 매출액이 매우 높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의류 구입의 가장 큰 변화는 전자 상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각종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의류는 중요한 판매 품목이며, 더불어 신발, 장신구 등이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 소셜커머스 등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 중 25% 정도가 전자 상거래로 거래되고 있으며, 의류 및 패션 상품은 전자 상거래의 성장과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의류 구매 장소



음식과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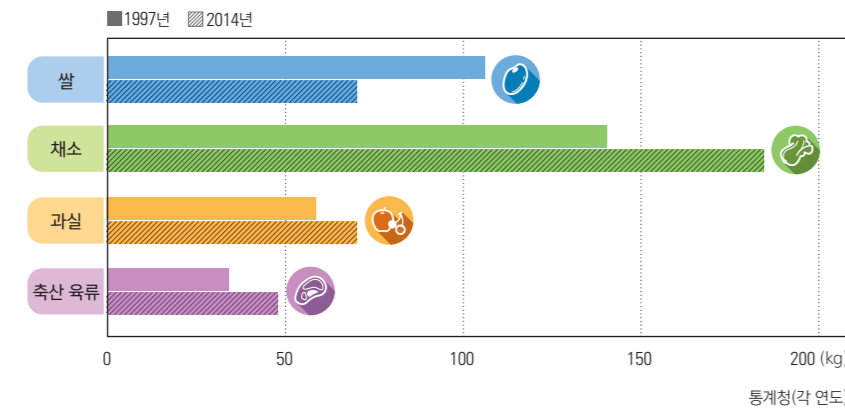


김홍도필 풍속도 화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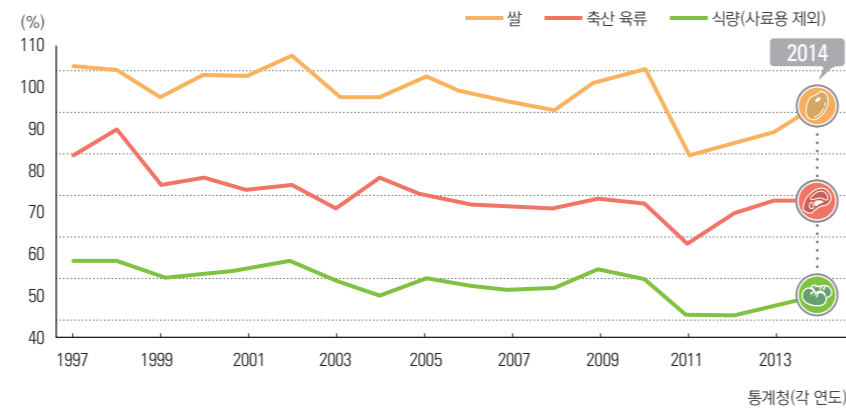
한민족은 고대로부터 다양하고 고유한 음식 문화를 발달시켜 왔다. 탄화된 곡물 등에서 농경 문화의 기원을 찾을 수 있고, 해안가에서 발견되는 조개 무덤 및 낚시 도구 등에서 해산물을 채집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한민족의 음식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곡류는 쌀이었다. 아시아의 많은 국가

처럼 쌀은 탄수화물의 주된 공급원이었기 때문에 벼를 재배하기 위해 개간과 용수 공급에 힘써왔다. 고대로부터 건설되어 온 곳곳의 저수지는 이러한 벼농사의 오랜 전통을 보여준다. 그러나 최근 식생활 변화로 쌀의 소비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빵과 면의 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나 다량의 밀을 수입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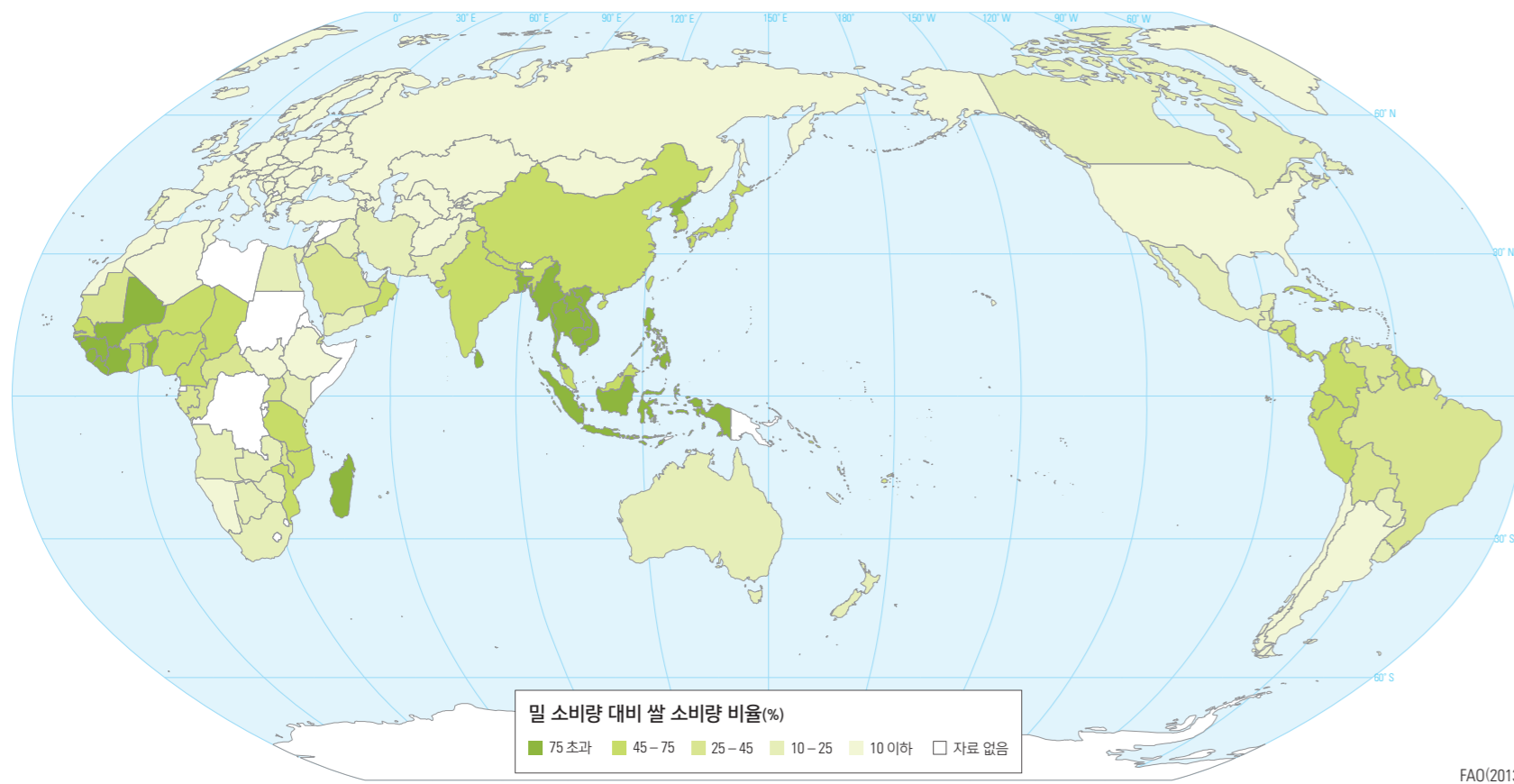
1인당 연간 농축산물 소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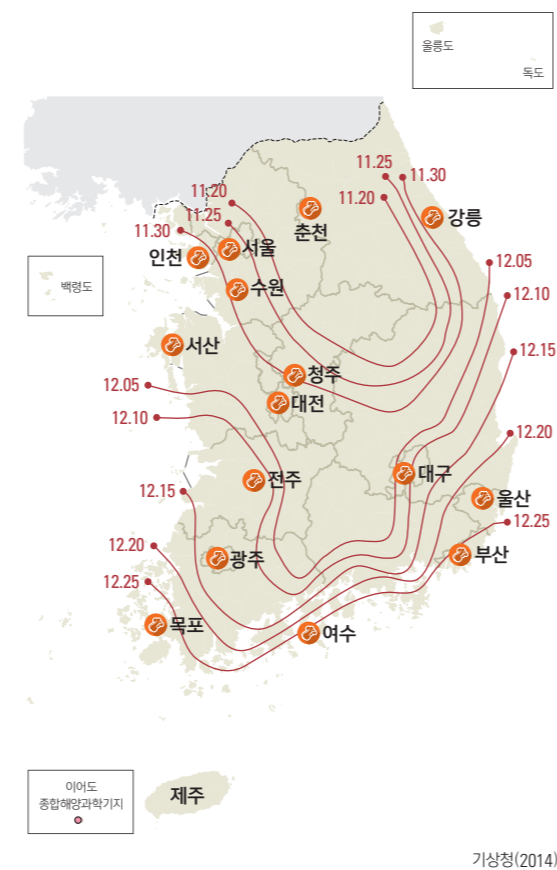
식량 자급률 변화



국가별 쌀과 밀의 연간 소비량(2010-2013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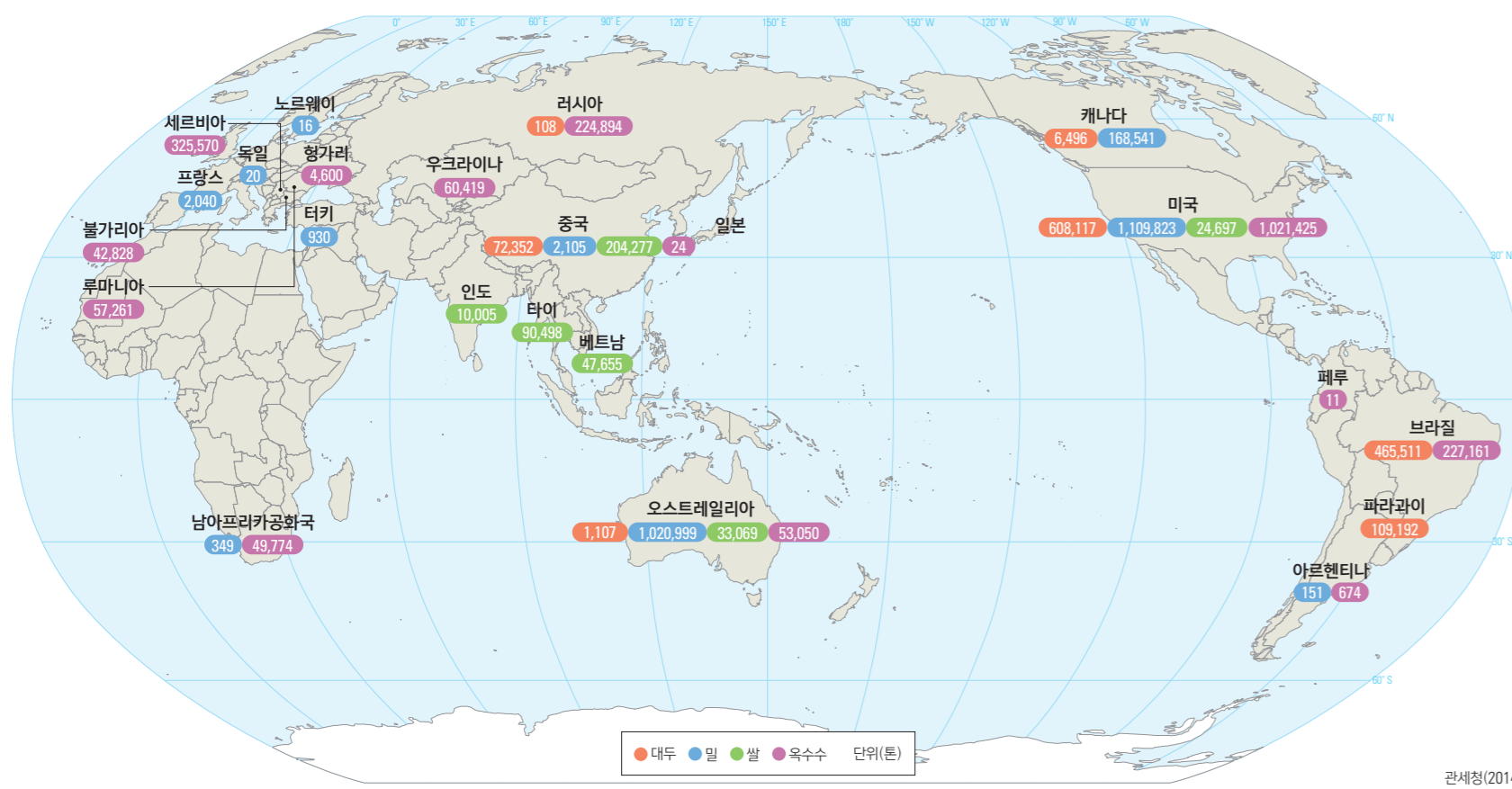
김장 적정 시기 예상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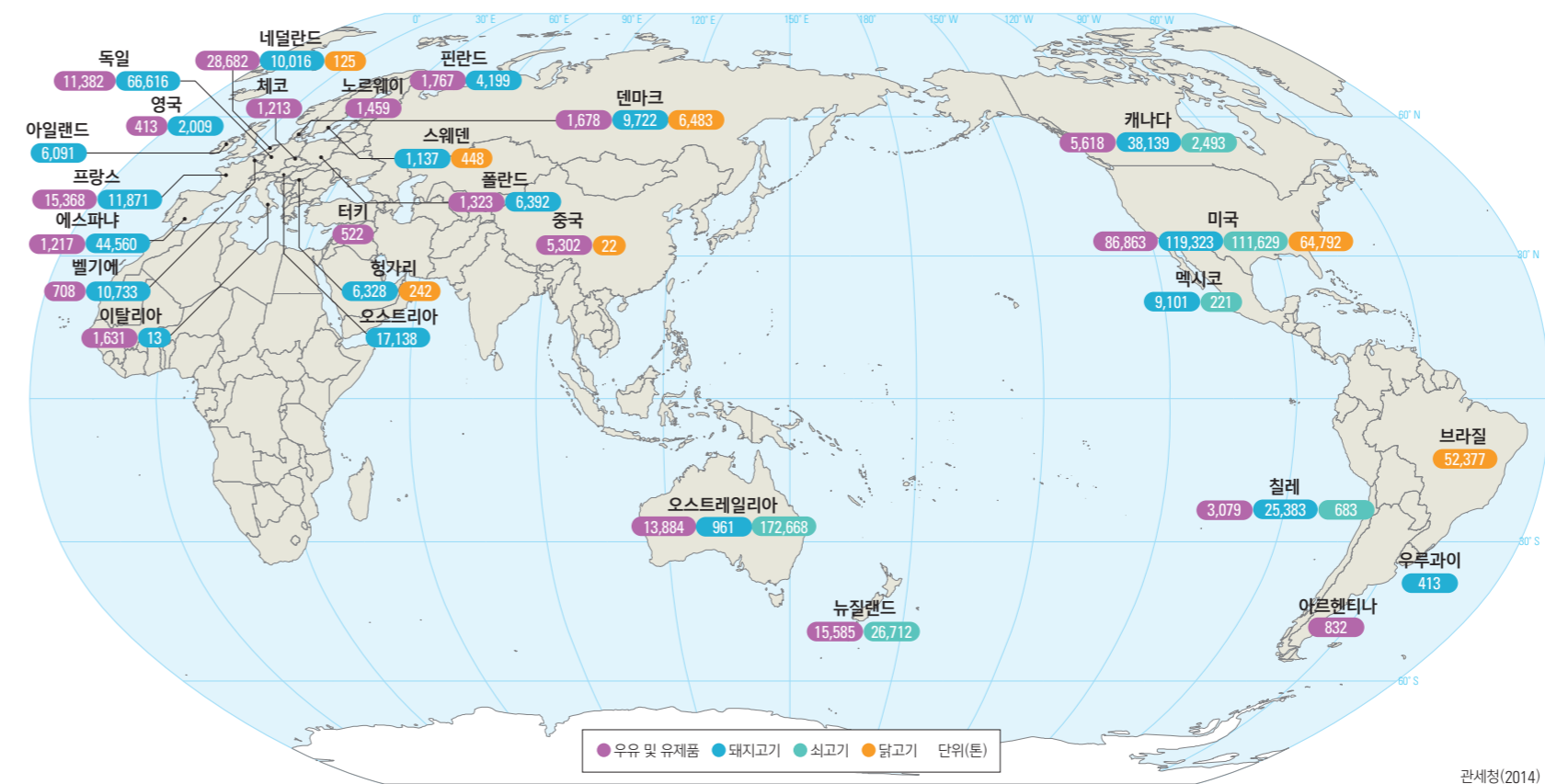
한민족의 음식 문화의 특징 중 하나는 발효 식품의 발달이다. 김치는 우리나라 발효 음식의 대표적인 예이다.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야채를 발효시켜 저장함으로써 겨울에도 충분한 채소류를 섭취할 수 있었다. 또한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한 다양한 장류 또한 발효 식품의 일종으로, 고추장, 된장, 간장 등을 가정마다 발효시켜 소비하는 전통이 있었다. 최근에는 도시화와 외식의 증가로 인해 도시 지역에서는 장류를 시장에서 구매하여 소비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장류를 직접 만드는 가정이 많으며, 도시에 있는 자녀에게 보내기 위해 각종 장류와 김장을 담그는 문화는 한국인의 음식 문화의 중요한 모습으로 남아 있다.

대한민국의 다양한 식문화는 오랜 역사와 뚜렷한 사계절, 지역의 고유한 음식의 전통이 결합된 결과이다. 한국은 지역마다 다양한 음식 문화가 발달했는데, 지역별로 혹은 가정별로 매우 독특한 식재료와 조리 방법이 존재하고 있는 현상도 대한민국 음식 문화의 중요한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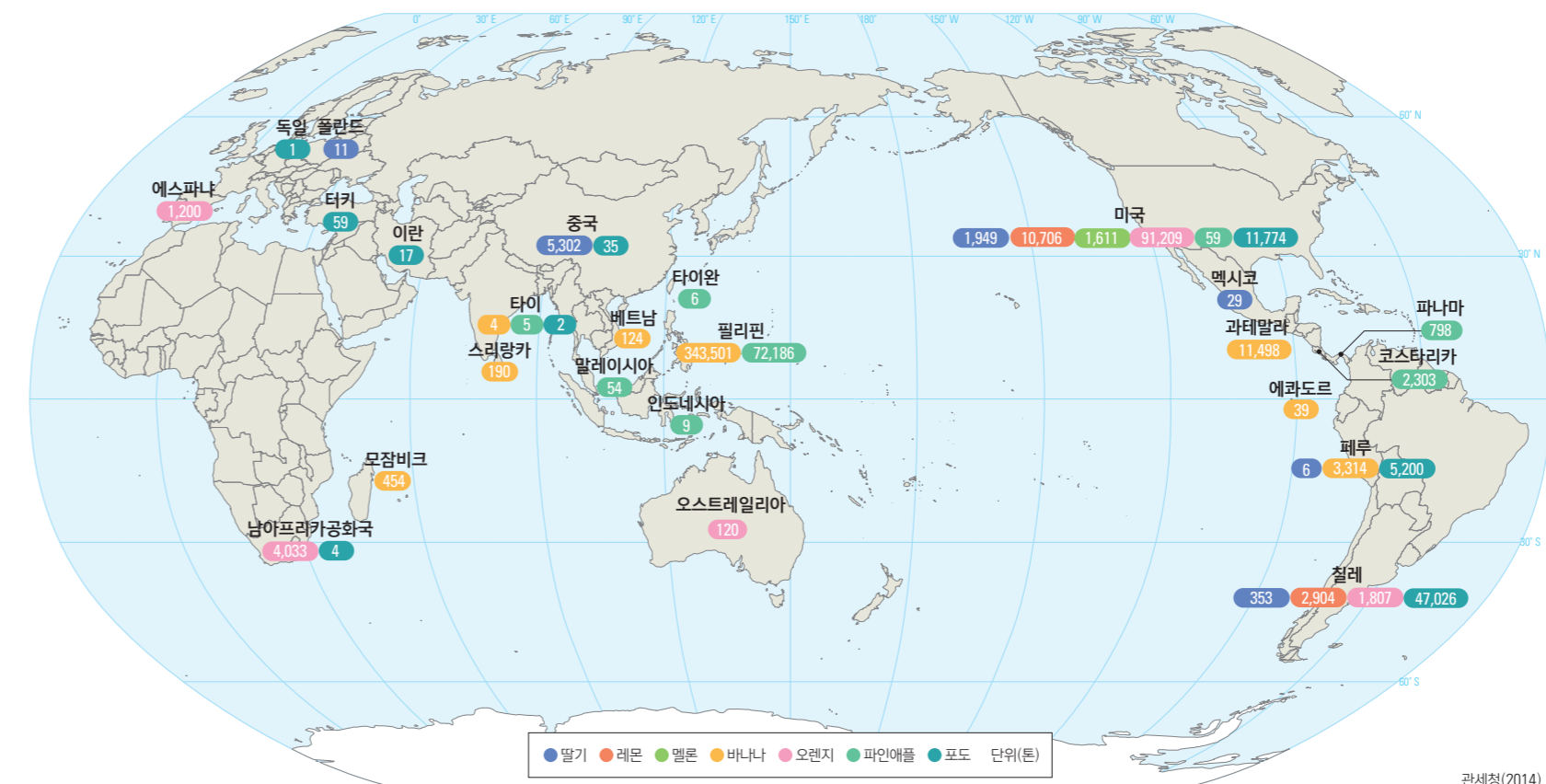
주요 수입 곡류의 원산지(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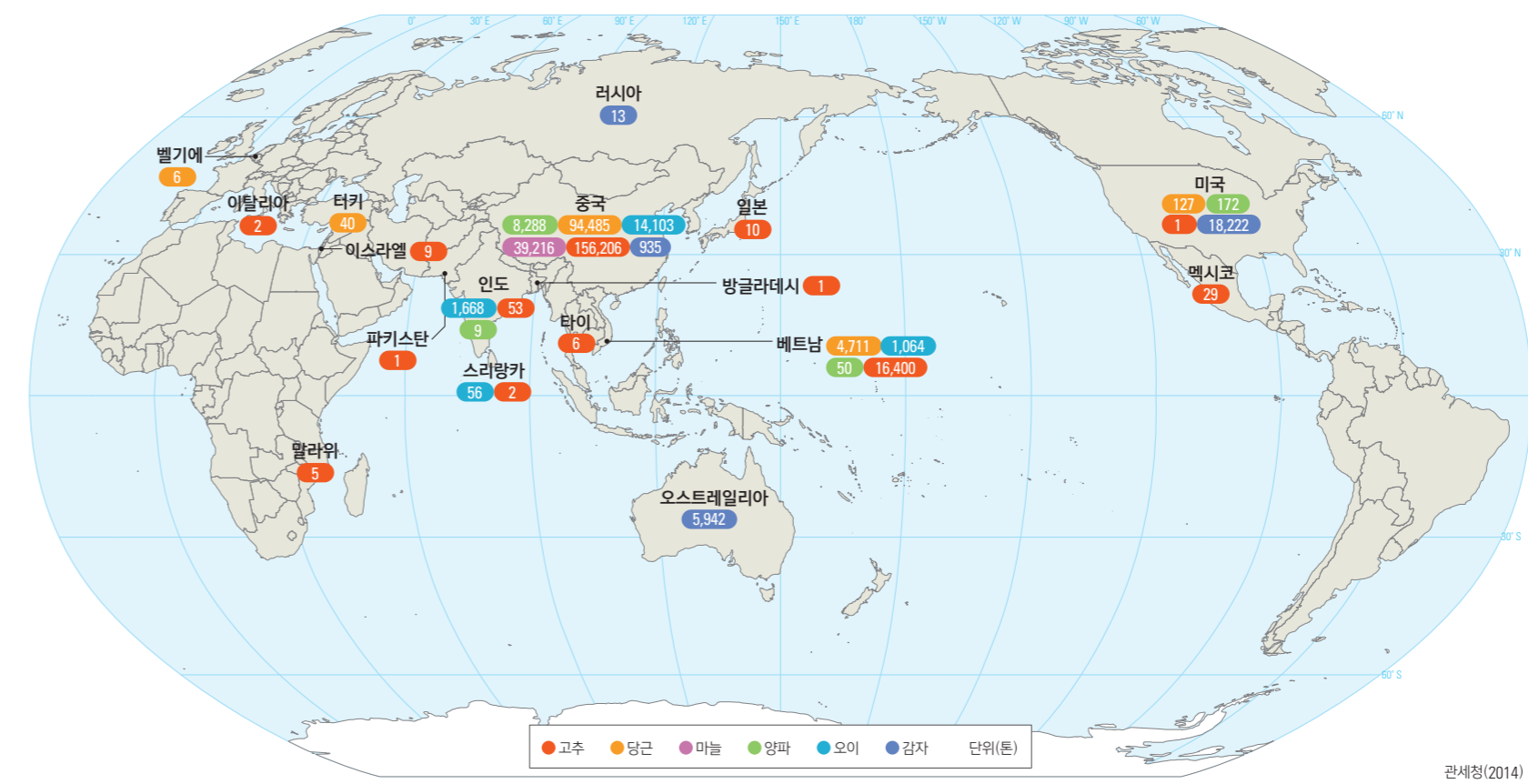
주요 수입 육류 및 유제품의 원산지(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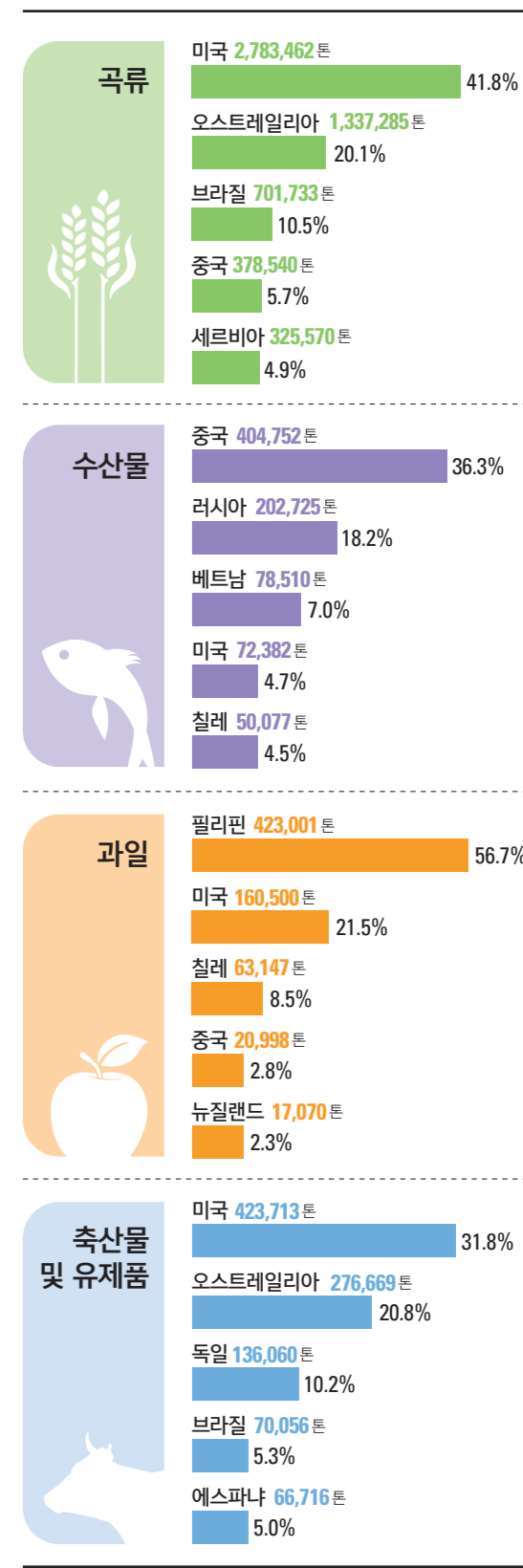
주요 수입 과일의 원산지(2014년)



주요 수입 채소의 원산지(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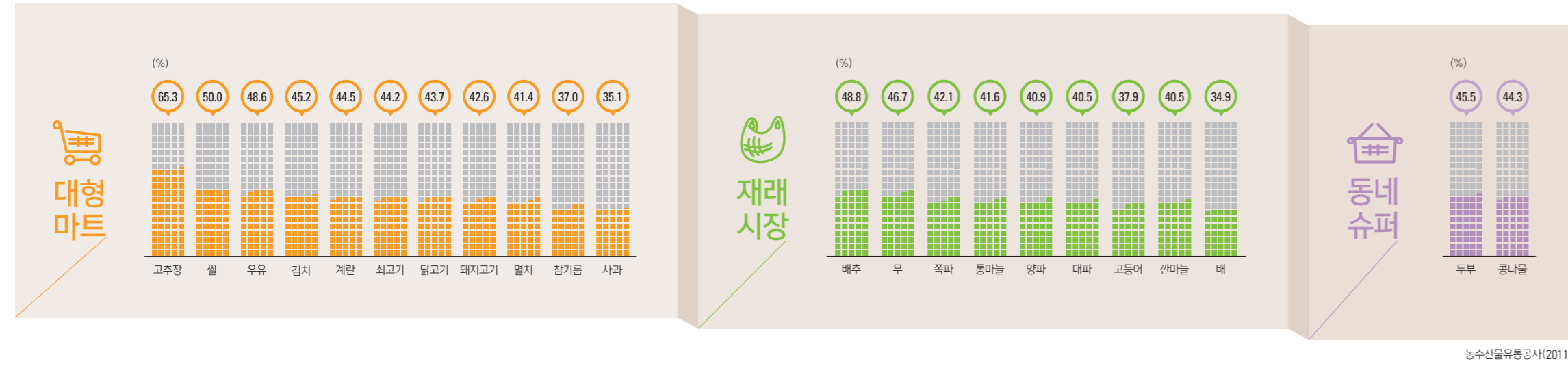


주요 수입 농산물 원산지(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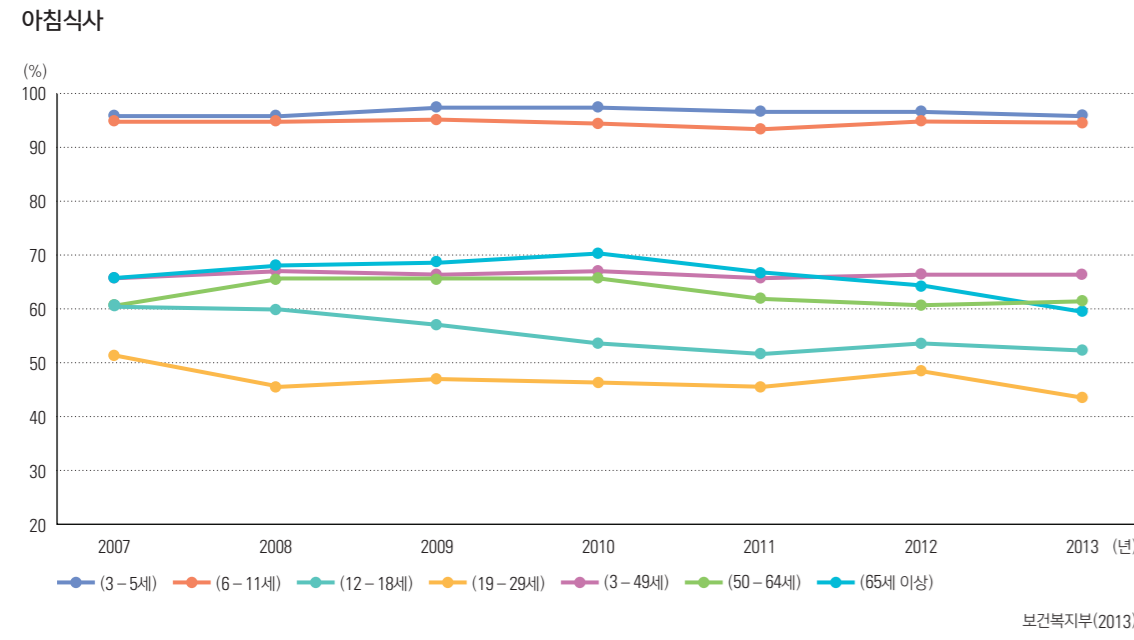


한국인의 식품 소비 패턴은 농축수산물의 수입 개방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대한민국의 식량 자급률은 쌀을 제외하고는 매우 낮은 편이며, 매년 많은 양의 농축산물이 수입되고 있다. 이러한 수입의 증가는 식재료 가격을 낮추어 과일, 수산물, 축산물 및 유제품 소비가 늘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최근 여러 나라와 체결한 무역 협정 등으로 해외 농산물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외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살펴보면, 곡류는 밀, 옥수수, 콩의 수입이 많으며 미국,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등으로부터 매년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다. 식생활 문화의 변화로 인해 지금되고 있는 쌀 역시 의무 수입 물량이 여러 나라로부터 수입되어 가공용 등으로 판매되고 있다. 과일은 동남아시아에서 바나나와 파인애플 등 열대 과일이 많이 수입되고, 자유 무역 협정을 맺은 남반구의 칠레로부터 겨울철 과일의 수입이 매우 많다. 육류 소비의 증가로 인해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등으로부터 쇠고기 등 육류의 수입이 많으며, 유럽 국가로부터 우유 및 유제품의 수입도 늘어나고 있다. 수산물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많지만, 일부는 태평양과 대서양 등 원양 어업을 통해 수입되기도 한다. 채소류 수입은 신신도를 유지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 등에 집중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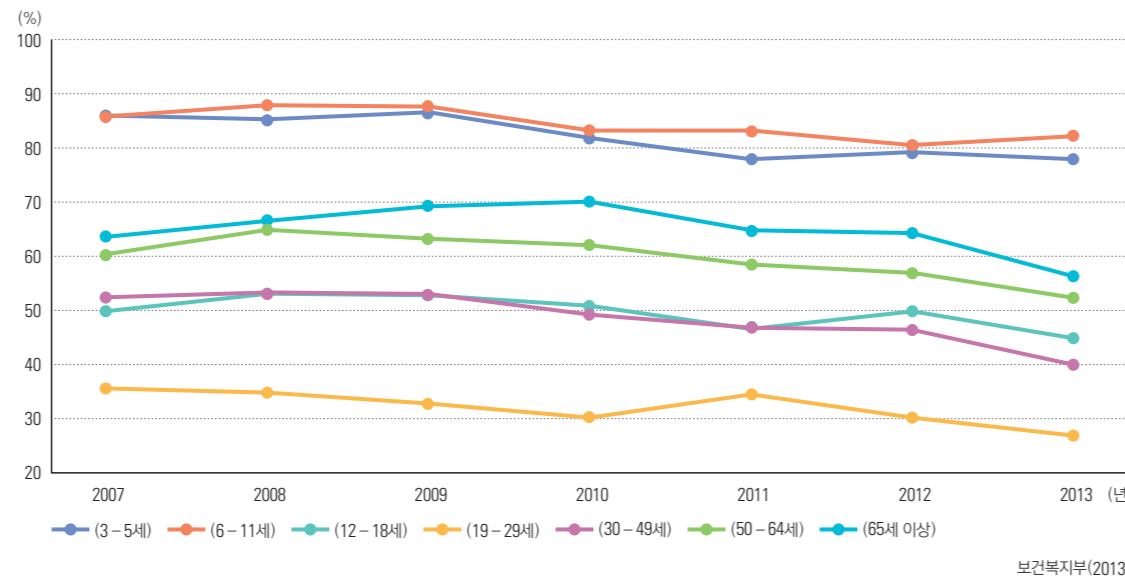
주요 농축산물 구매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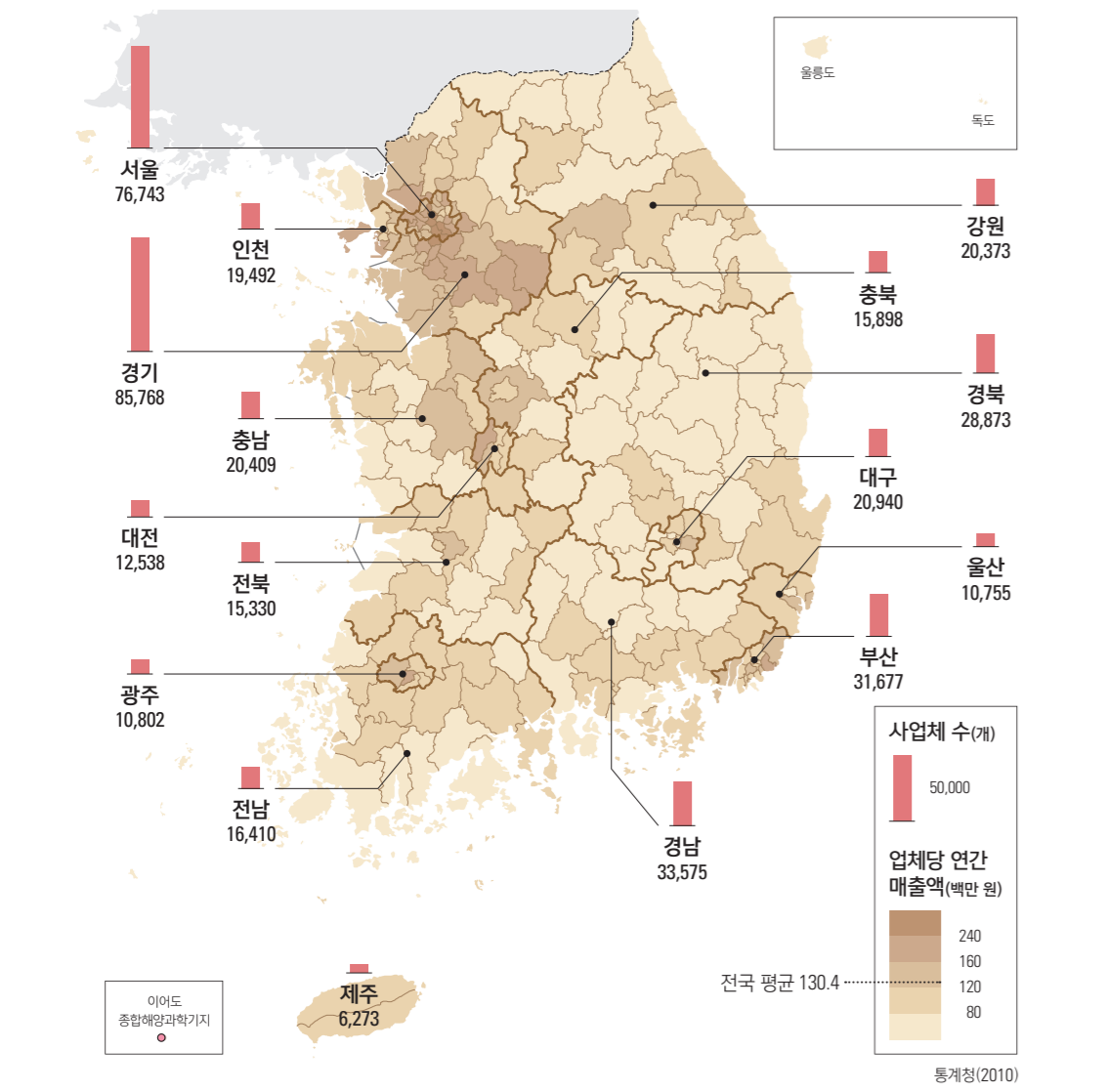
가족과의 식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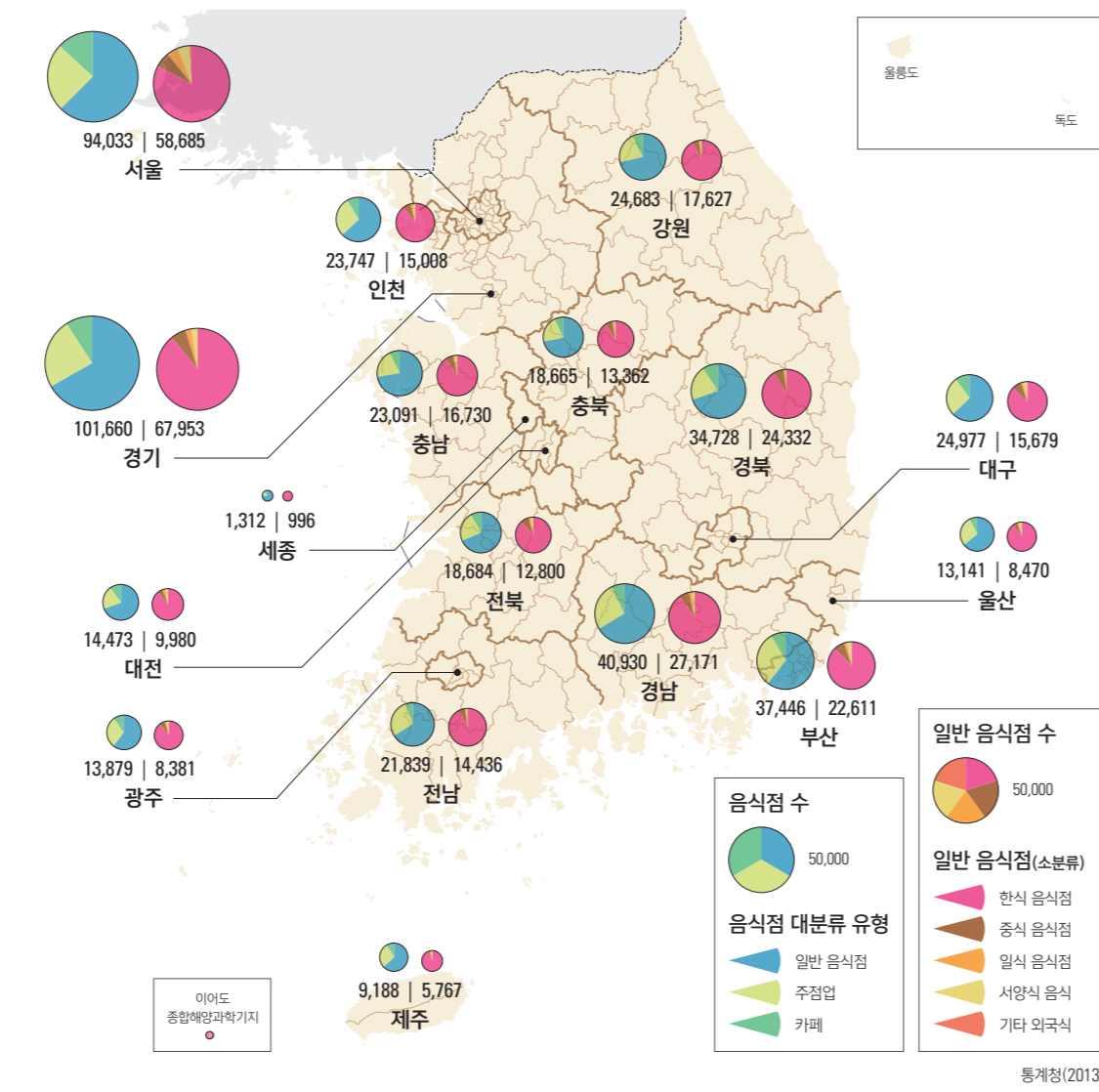
저녁식사



음식점의 수와 업체당 연간 매출액(2010년)



일반 음식점의 종류와 분포(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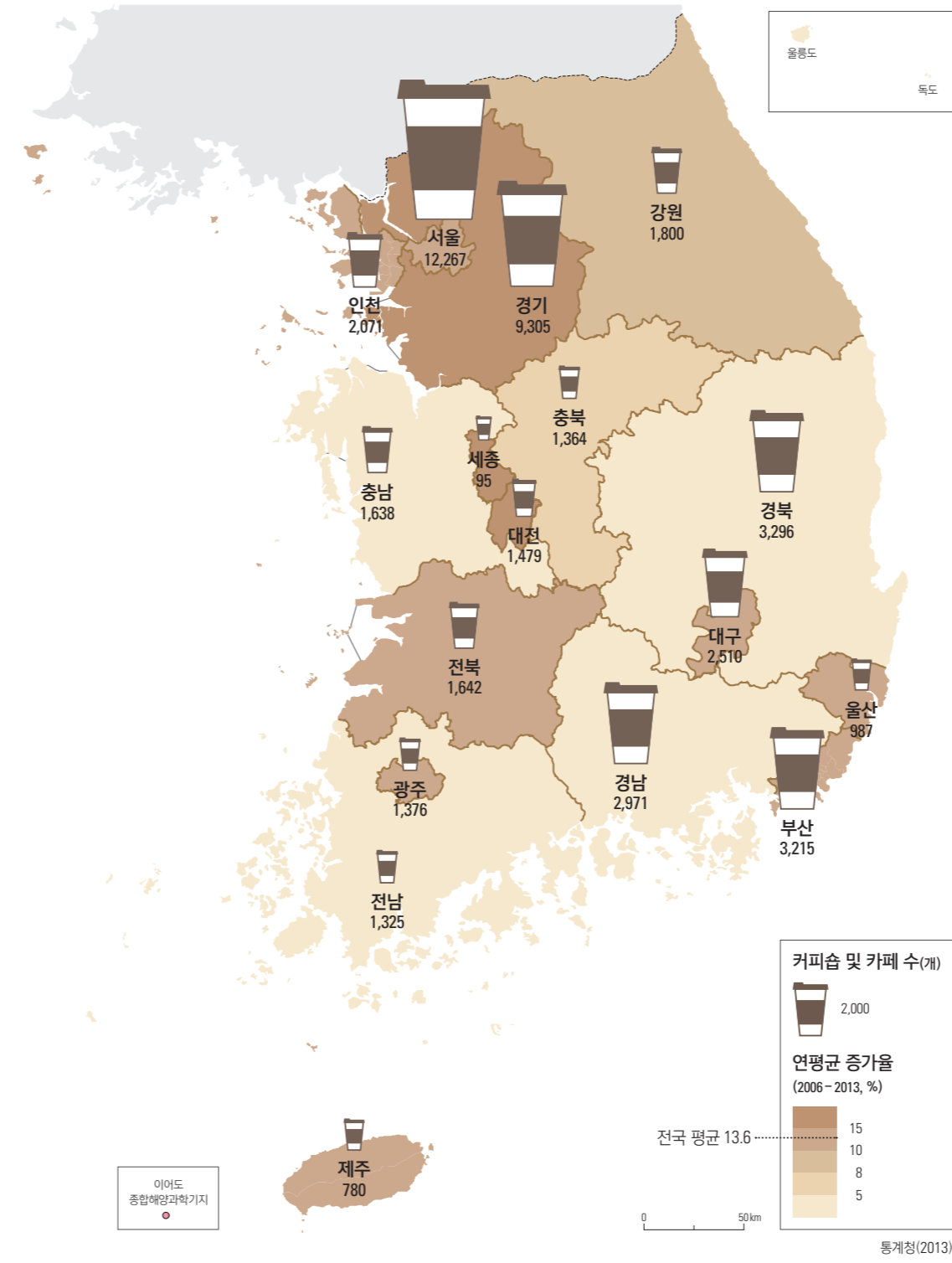
한국인의 음식 소비를 직접 조리하는 경우와 외식으로 나누어 보면, 외식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가족과의 아침식사 비율이 낮아지고, 젊은 세대일수록 아침을 소홀히 하거나 가족과 함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저녁의 경우도 학생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은 가족과 식사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20대의 경우는 가족과 저녁식사를 하는 비율이 30%를 밑돌고 있다. 식품을 구매하는 장소 역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과거 신선 식품은 전통 시장이나 동네의 가게에서 구입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점차 도시 곳곳에 분포하는 대형 마트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육류, 유제품, 가공식품의 경우는 대형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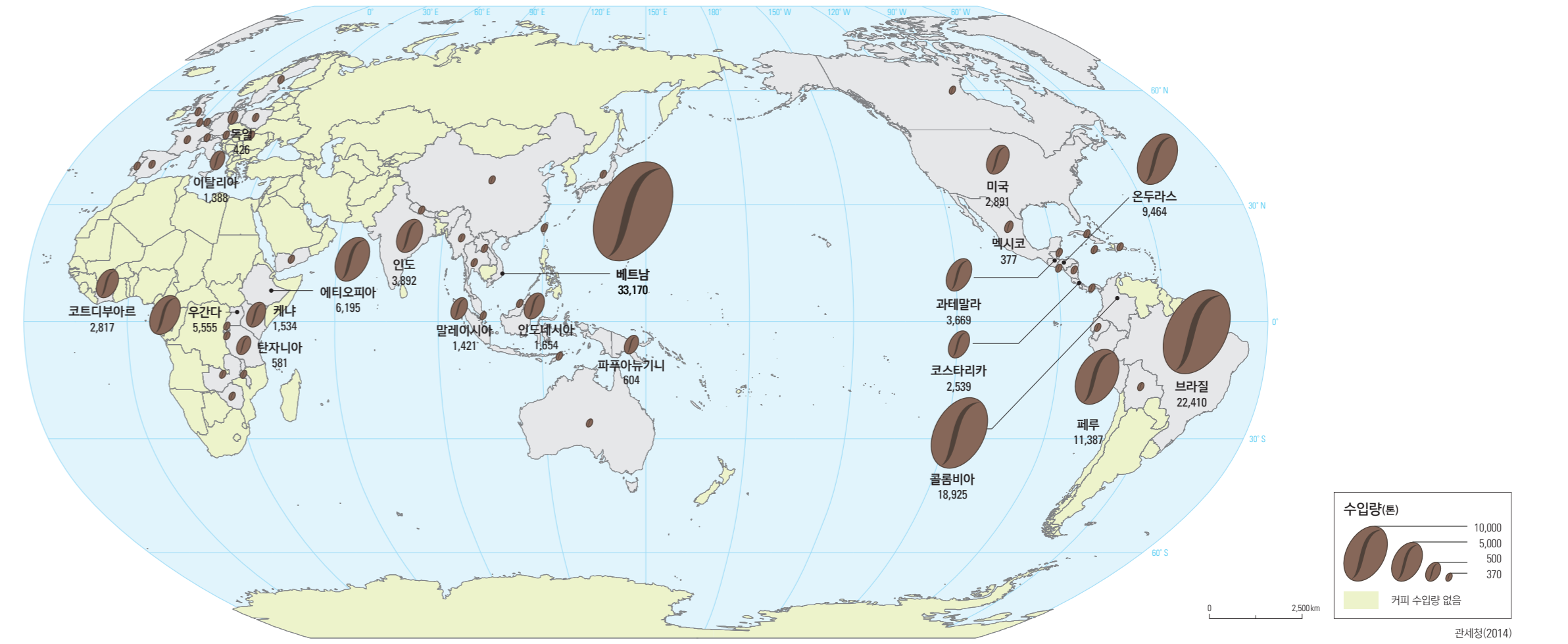
트가 주요 구입처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김장재료나 청과류 등의 구매는 여전히 재래시장에서 구입하는 비율이 높다. 특징적인 것은 향신료 중 고추 및 고춧가루는 지인 및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산지에서 직접 구매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한국은 다양하고 많은 음식점을 거리에서 발견

할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한식, 중식, 일식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요리를 판매하는 식당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으며, 최근 다문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식을 도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커피숍 및 카페의 증가와 분포(2013년)



수입 커피의 주요 원산지(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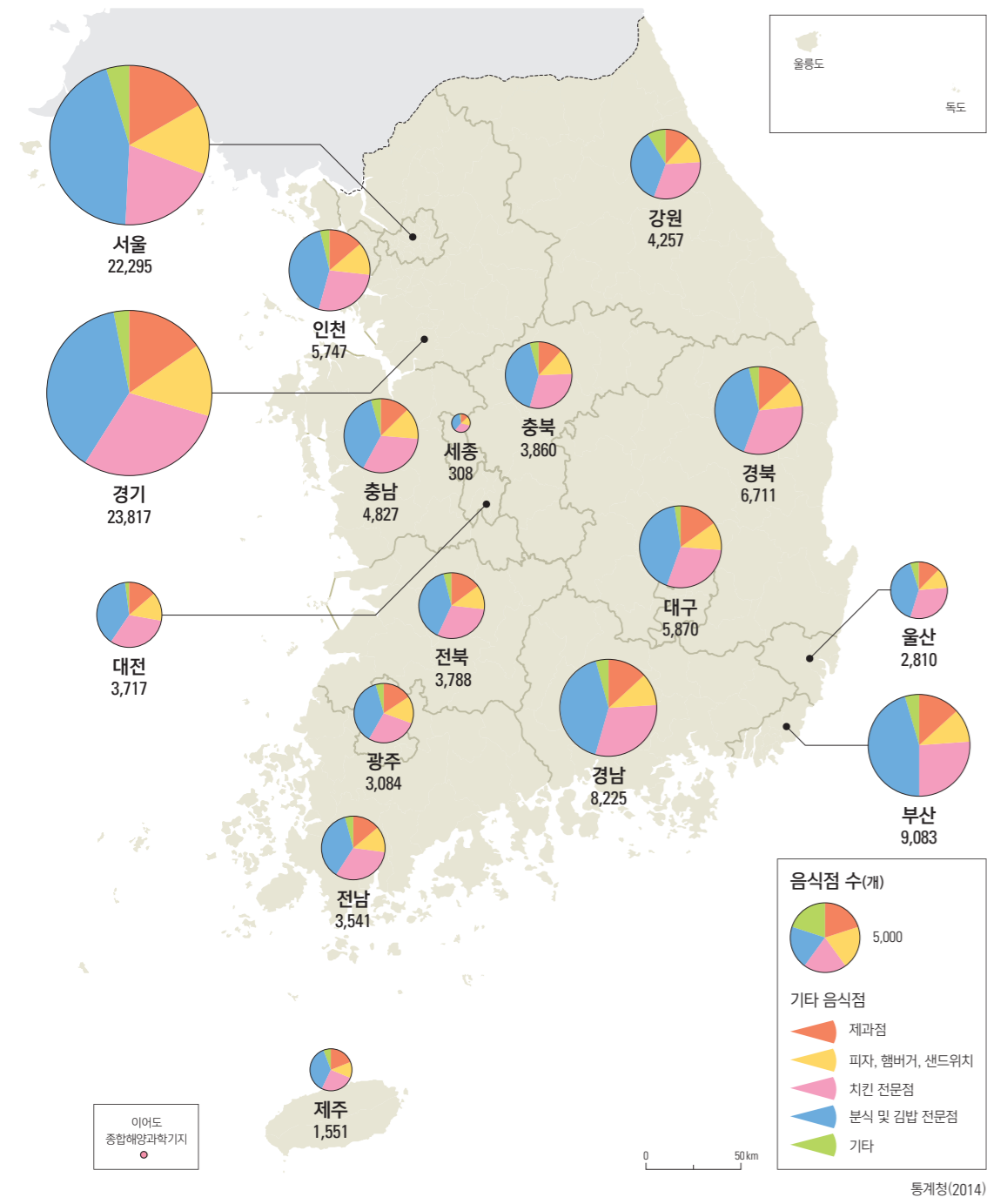
대도시의 중심 업무 지구에서 점심시간에 커피를 손에 들고 지나가는 직장인들의 모습은 도시 업무 지구의 일상을 대표하는 모습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의 커피와 차와 관련한 문화 역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 중 최근 가장 대표적인 현상은 인스턴트 커피를 즐기는 문화에서 커피숍에서 커피

를 마시는 문화로의 확산을 들 수 있다. 최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커피숍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커피숍의 개수는 우리나라 도시의 경관을 이루는 대표적인 모습이 되었다. 외식업체의 증가 속도에 비해 커피숍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또한 커피숍은 대도시의 중심지뿐만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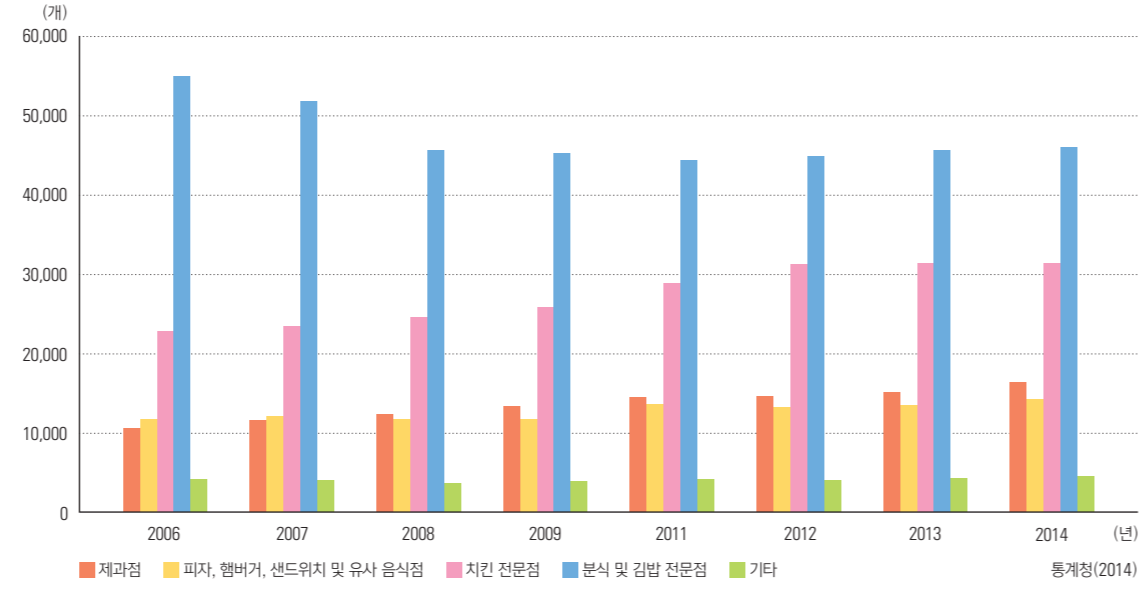
주거 지역, 교외 지역 등에서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커피의 수입량과 수입액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부 아메리카, 베트남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에서 많은 커피 원두가 수입되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커피 열풍의 이면에는 다수의 커피숍이 폐업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커피숍의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동시에 폐업하는 커피숍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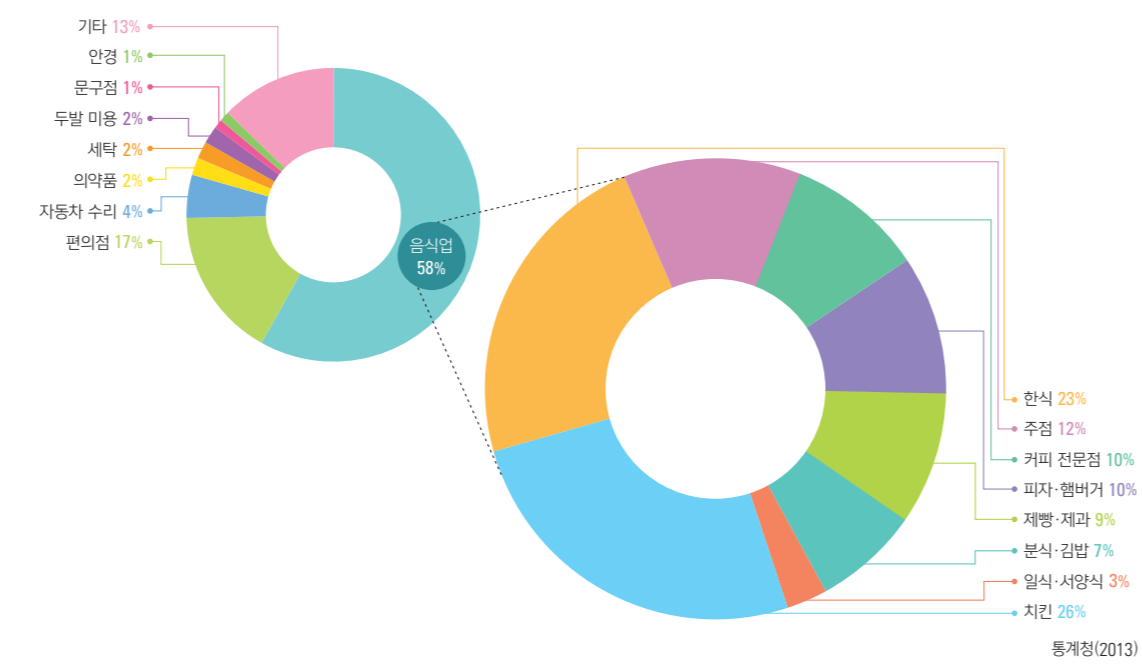
기타 음식점의 분포(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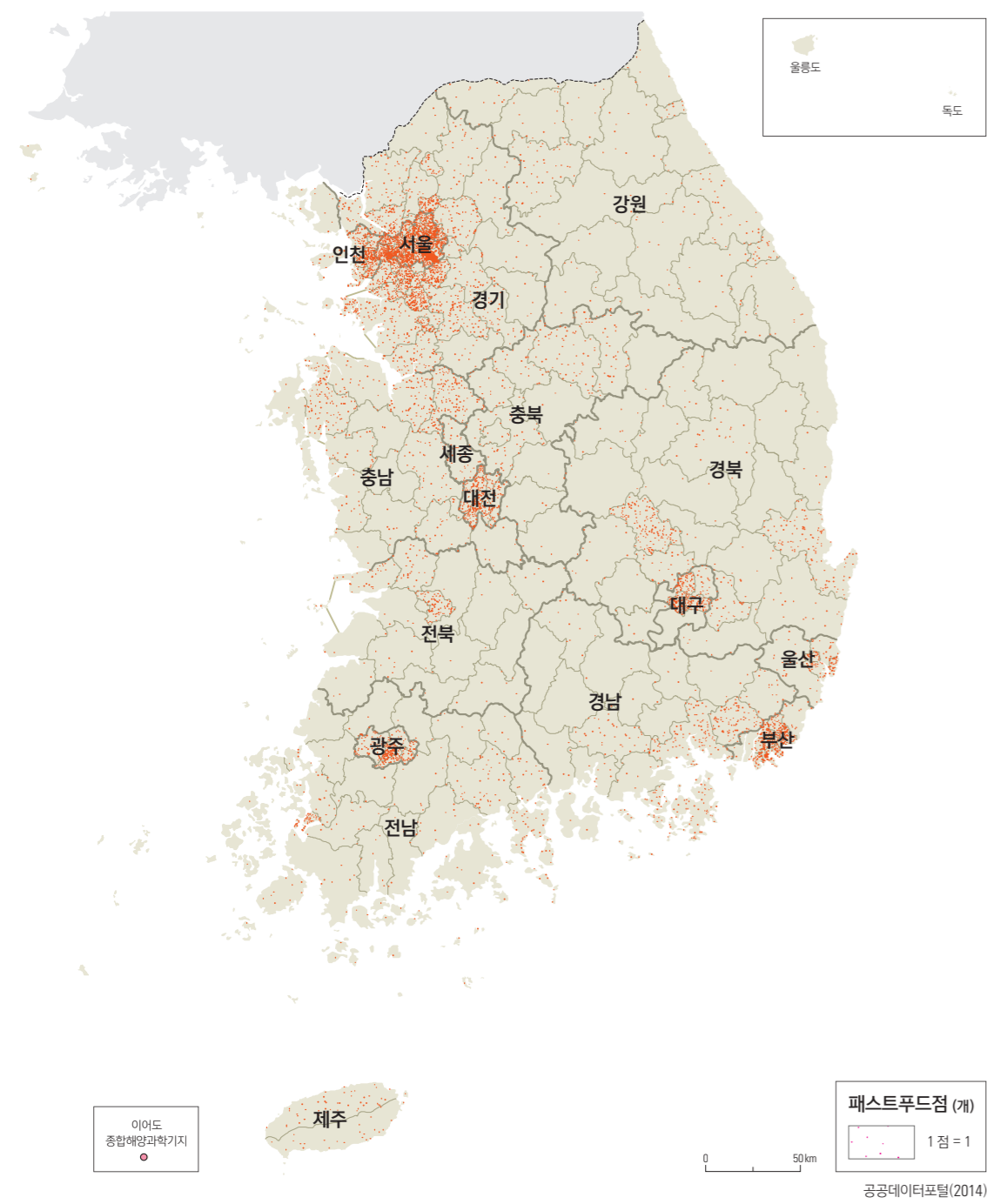
기타 음식점의 종류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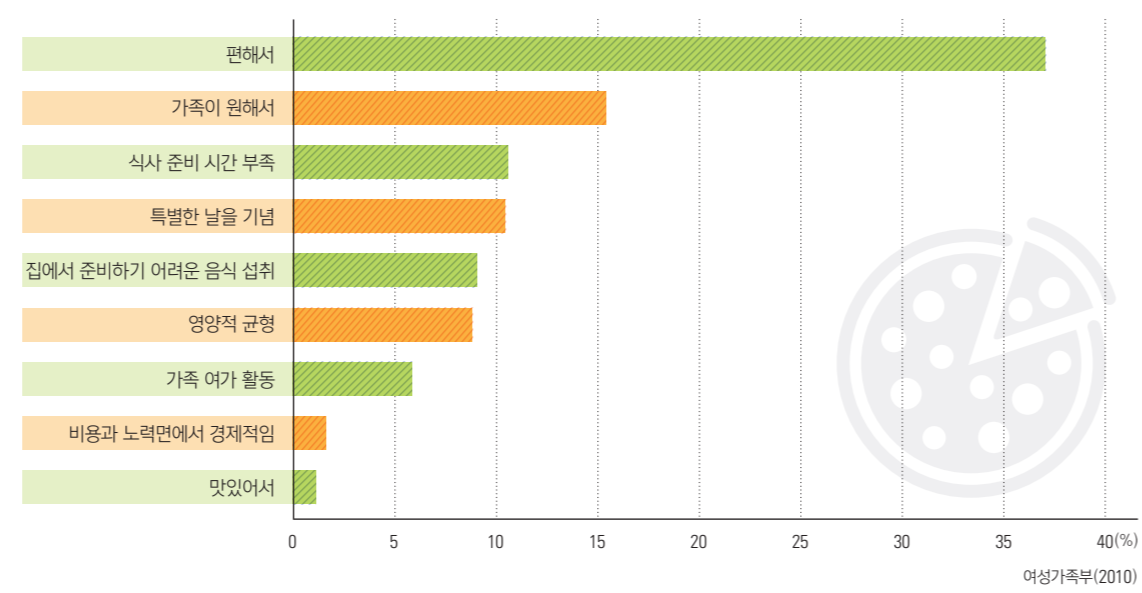
프랜차이즈 종류와 구성



전국 패스트푸드점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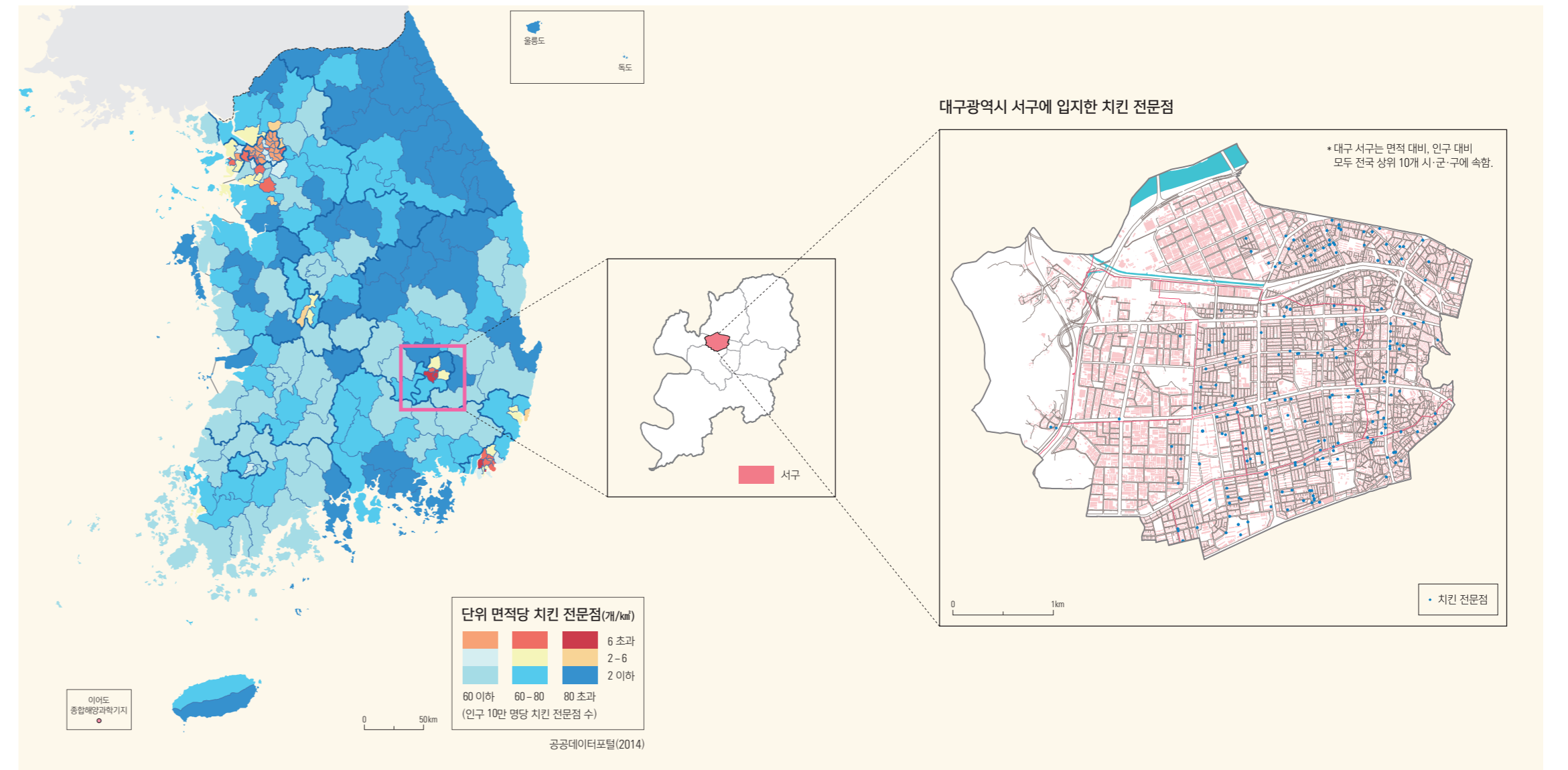
외식의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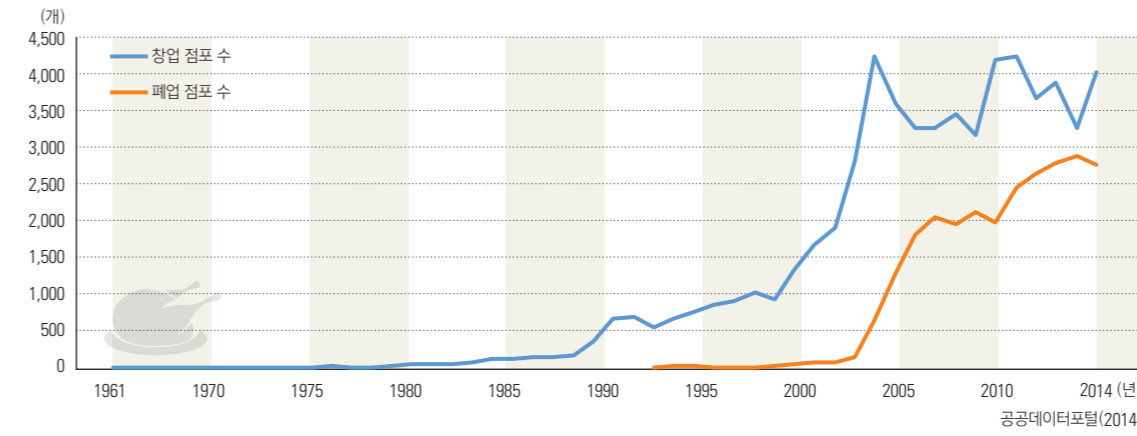
외식 문화의 증가에 따라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으로 대표되는 일반 음식점 이외에도 다양한 음식점이 늘어나고 있다. 도소매업 통계에 따르면 기타 음식점으로 분류되는 음식점은 제과점, 피자·햄버거·샌드위치류 판매점,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판매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기타 음식점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 중에서도 분식 및 김밥 전문점의 숫자는 줄어들거나 정체 상태에 반해 다른 종류의 음식점 수는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음식점 상당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인 경우가 많다.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증가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매우 뚜렷하다. 대기업의 브랜드 기획력과 마케팅 전략이 강화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프랜차이즈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중 음식점은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50% 이상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치킨, 커피, 패스트푸드, 제과·제빵 등의 프랜차이즈 음식점은 현대 한국 도시 경관의 특징이 되었다. 다양한 음식점의 증가와 외식 문화 확산의 이유를 살펴보면 편리함을 추구하거나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의 생활 양식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식의 이유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편해서'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으며, '가족들이 원해서', '식사 준비 시간의 부족',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등의 비중도 높았다. 또한 집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특별한 음식을 섭취하기 위해서나 가족의 여가 활동으로 외식을 선택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킨 전문점의 분포(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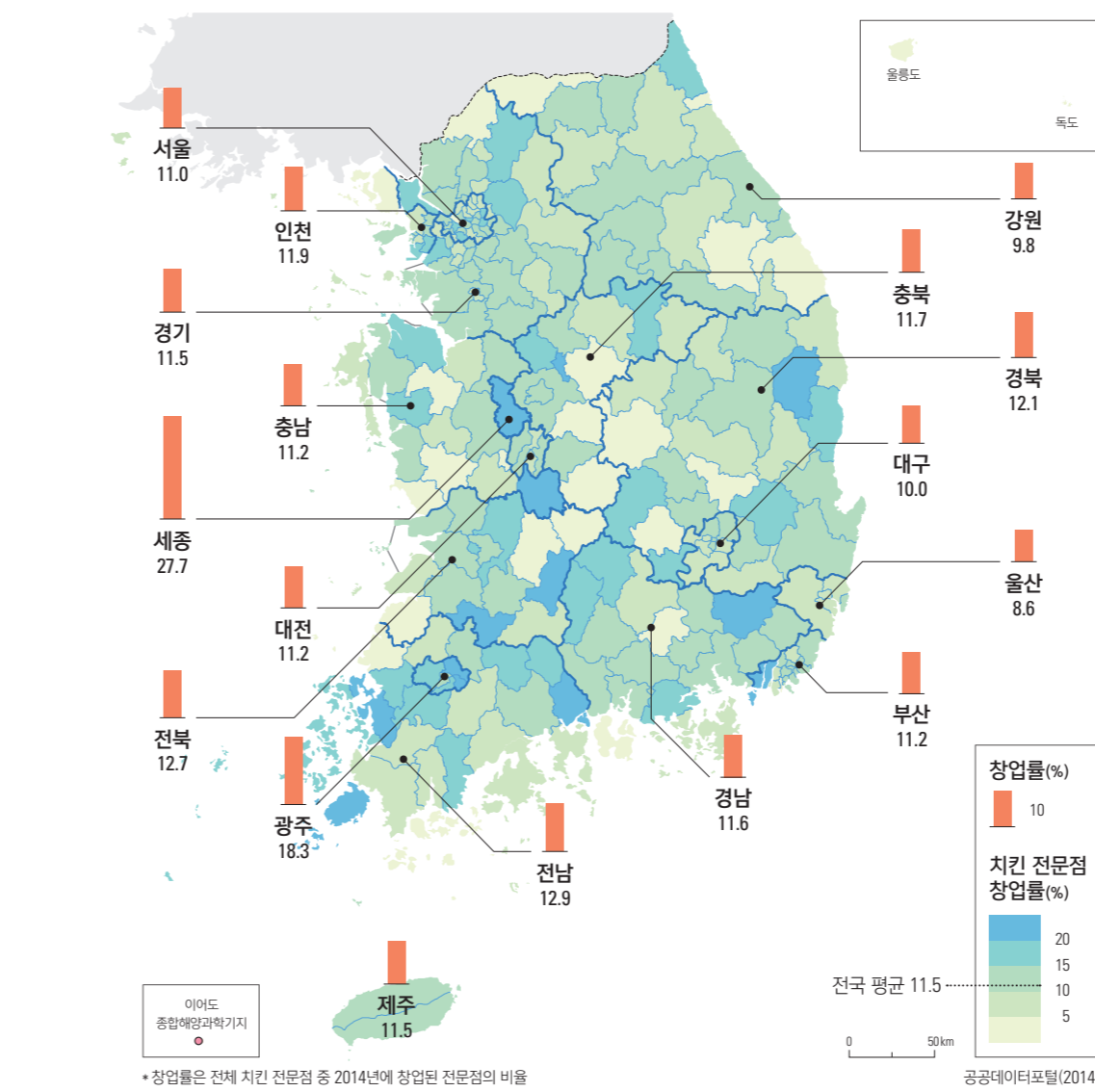
치킨 전문점 창업과 폐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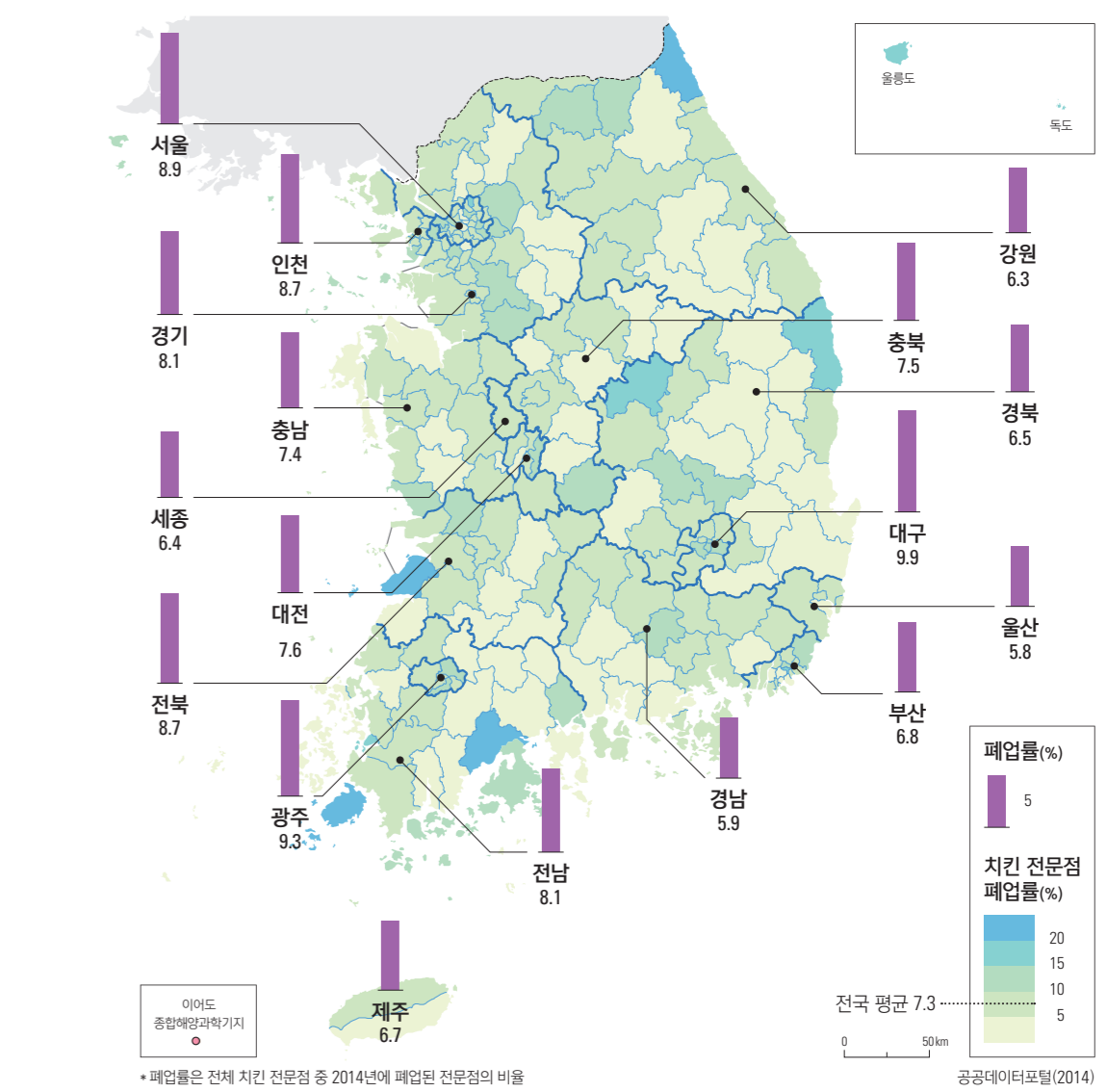
다양한 음식점의 종류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은 바로 치킨 전문점이다. 특히 치킨은 배달음식으로 적합하며, 맥주와 함께 치킨을 즐기는 이른바 '치맥' 문화의 확산이 치킨 전문점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공 개방 빅데이터를 이용해 치킨 전문점의 분포를 추산해 보면 2014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30,000개 이상의 치킨 전문점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 한

해에만 전국적으로 4천 개에 달하는 치킨 전문점이 영업을 시작하였고, 이에 따른 경쟁의 격화로 다수의 치킨 전문점이 폐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한국 경제가 기업의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저성장 경계로 접어들면서 자영업의 창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치킨집은 비교적 손쉽고 표준화된 조리 방식으로 인해 다수의 창업자들이 선택하는 업종이 되고 있다.

치킨 전문점 창업률(2014년)



치킨 전문점 폐업률(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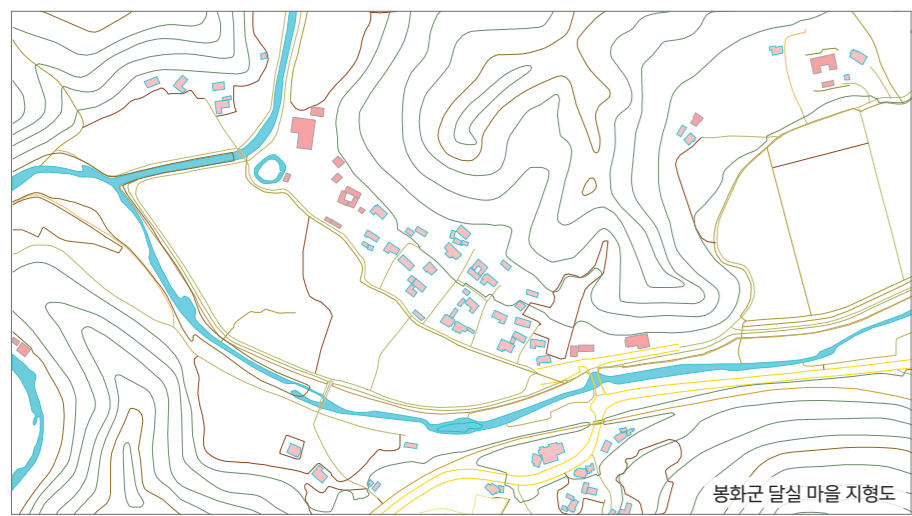


주거와 문화

전통적인 마을의 입지: 경북 봉화군 달실 마을



봉화군 달실 마을 항공 사진



봉화군 달실 마을 지형도

대도시에 남아 있는 한옥 지구



서울 북촌 한옥 마을



천주 한옥 마을

한국인의 전통적인 주거 양식은 마을의 위치와 분포, 가옥의 구조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마을의 위치는 뒤로는 산이 위치하고 앞으로는 넓은 들과 하천이 있는 배산임수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산지가 많은 지형적 특성상 많은 마을들이 구릉과 낮은 산지에 분포하고 있다. 또한 농업 위주의 경제 활동으로 인해 마을과 논밭이 하나의 생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마을 뒤편의 산지는 텃밭과 다양한 용도의 목재를 제공해 주는 곳이었으며, 겨울철 매서운 북서풍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였다. 마을 앞쪽의 개울이나 하천은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때문에 주거지를 고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러한 대한민국 전통 마을은 전국의 곳곳에 여전히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전통적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마을은 중요 민속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대한민국 전통 마을은 친족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많았고, 마을 내부에서는 유교적 전통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기본 원리가 되었다. 이러한 한국의 마을을 대표하는 고유의 건축물은 한옥이며, 오래전에 지어진 한옥과 함께 근대 이후에 지어진 한옥도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보존되고 있다. 대도시의 곳곳에서도 한옥 마을을 찾아볼 수 있다.

중요 민속 문화재로 지정된 전통 마을

아산 의암 마을 (Asan Ui-am Village)

고성 왕곡 마을 (Goseong Wang-guk Vill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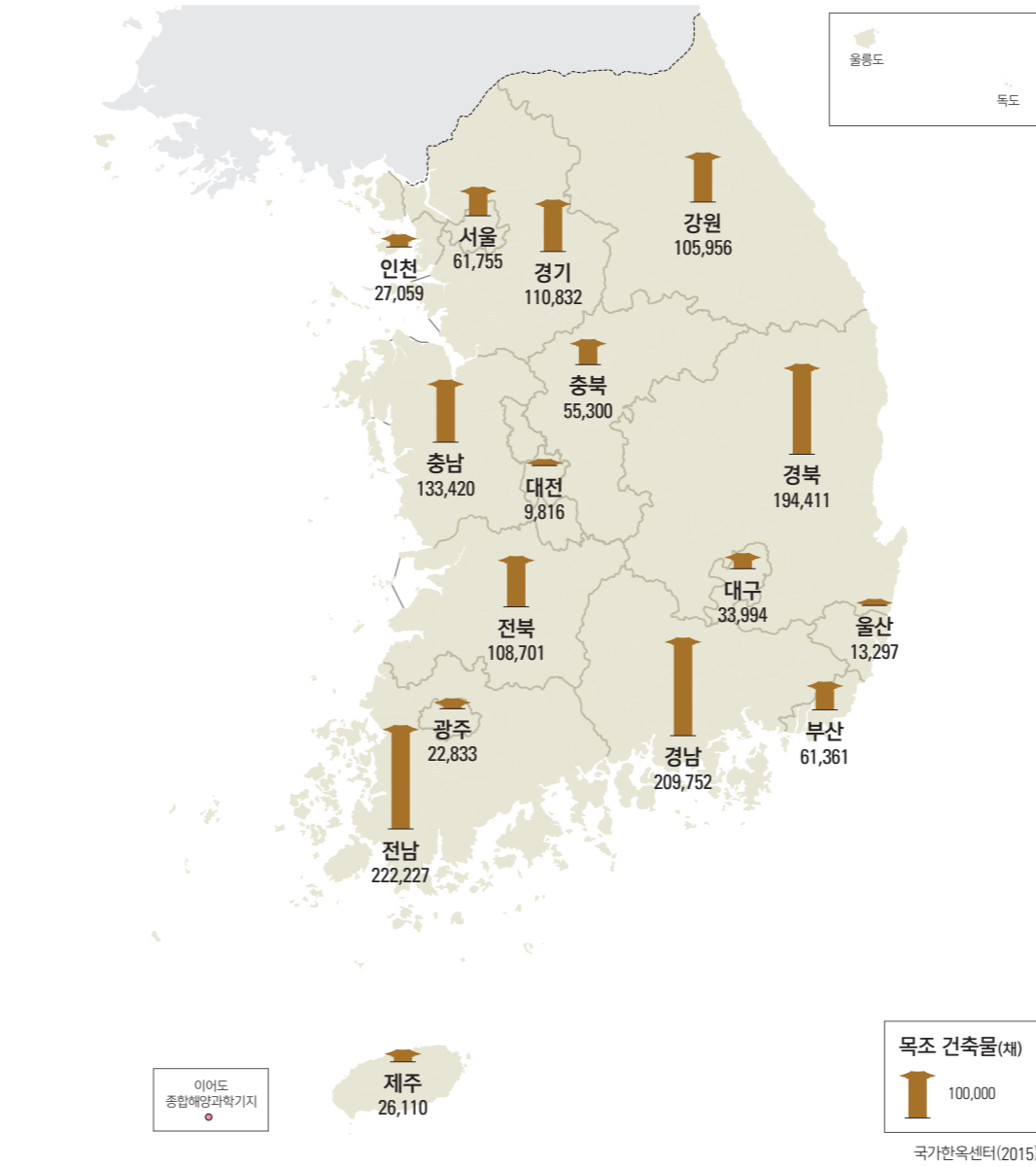
순천 낙안읍성 마을 (Suncheon Naksan-eupseong Village)

안동 하회 마을 (Andong Hahoe Village)

제주 성읍 마을 (Jeju Seongsip Village)

경주 양동 마을 (Gyeongju Yang-dong Village)

목조 건축물의 수(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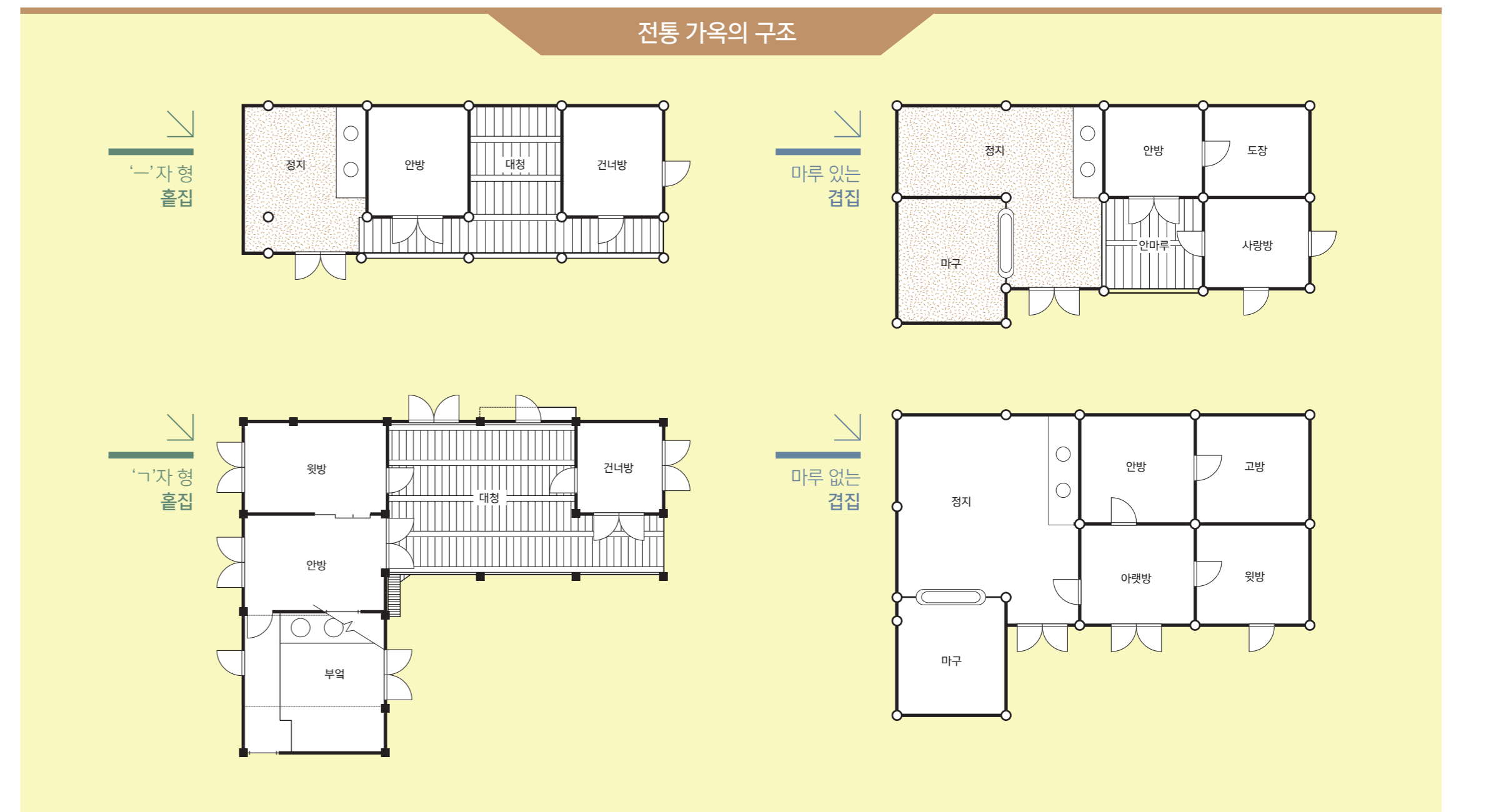


한옥은 우리나라 고유의 기술과 양식으로 지은 건축을 의미한다. 한옥은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지어졌으며, 한국 고유의 미적 감각 등을 반영한 문화유산이다. 또한 한옥을 통해 고유의 난방 기술과 통풍 방식 등을 살펴볼 수 있다. 한옥은 대부분 나무를 사용한 목조

건축이며, 농촌 지역을 비롯해 전국에 걸쳐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한옥의 건축 양식을 응용한 현대적 건축도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유교적 신분 사회에서 집은 때로는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었으며, 양반 계층의 대표적인 가옥인 기와집과 서민층의 주택

인 초가집이 전통적인 마을을 구성하고 있었다. 신 분과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다양한 가옥이 분포하고 있지만, 이들 가옥 모두는 기후와 인간의 상호 작용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겨울이 길고 추운 북부 지방에서는 외부의 출입을 최소화하는 가옥 구조가 발달하였고, 덥고 습한 남부 지방은 공기의 순환을 최

대화하는 대청마루 등이 발달해 있다. 또한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한 온돌과 같은 난방 구조도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의 특징 중 하나이다.



현대 도시의 주거 양식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농가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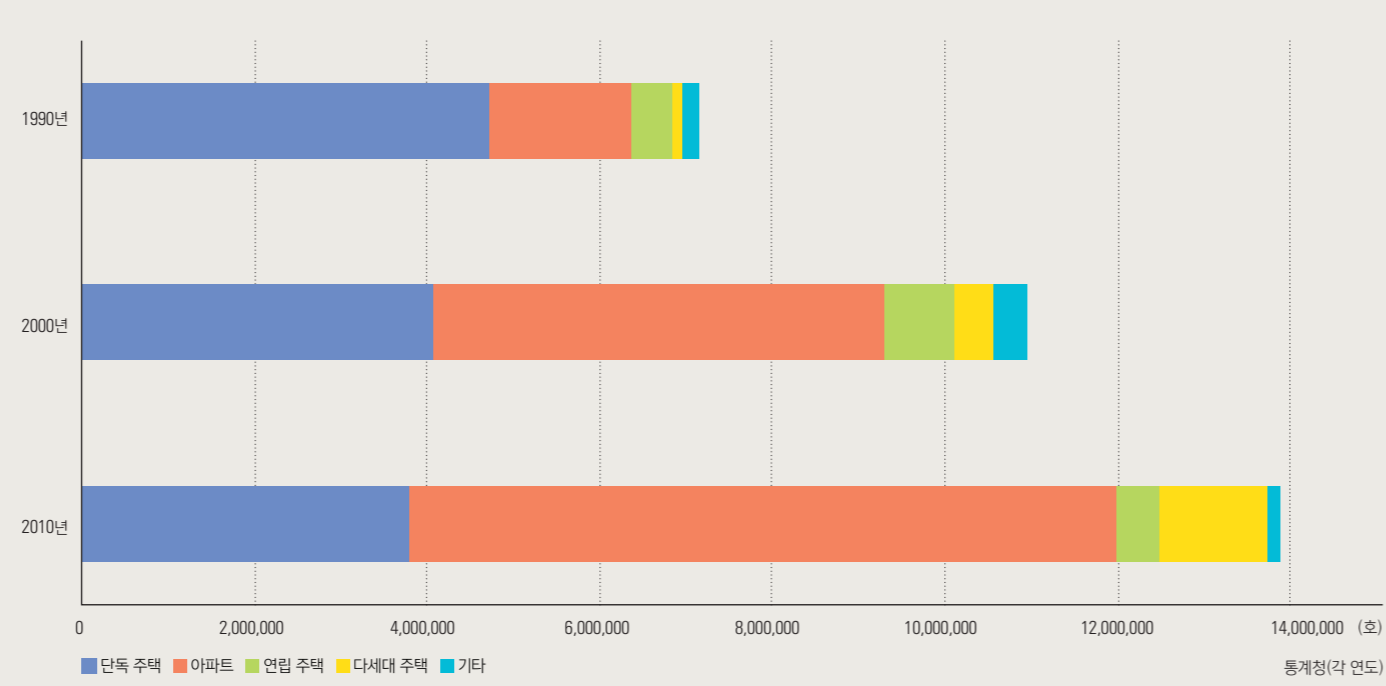
전원 주택

다세대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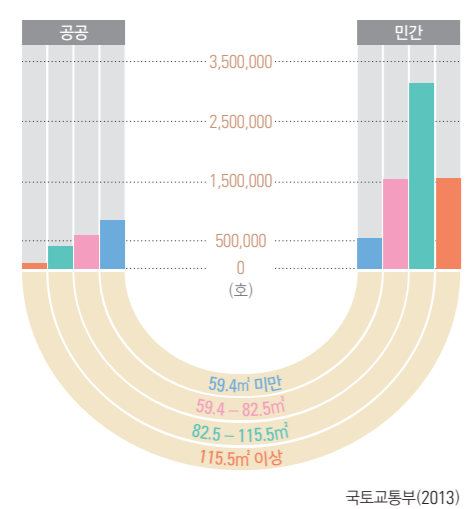
연립 주택

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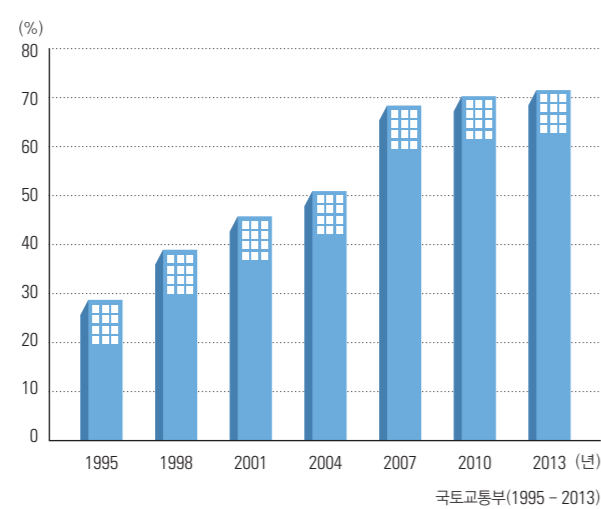
주택의 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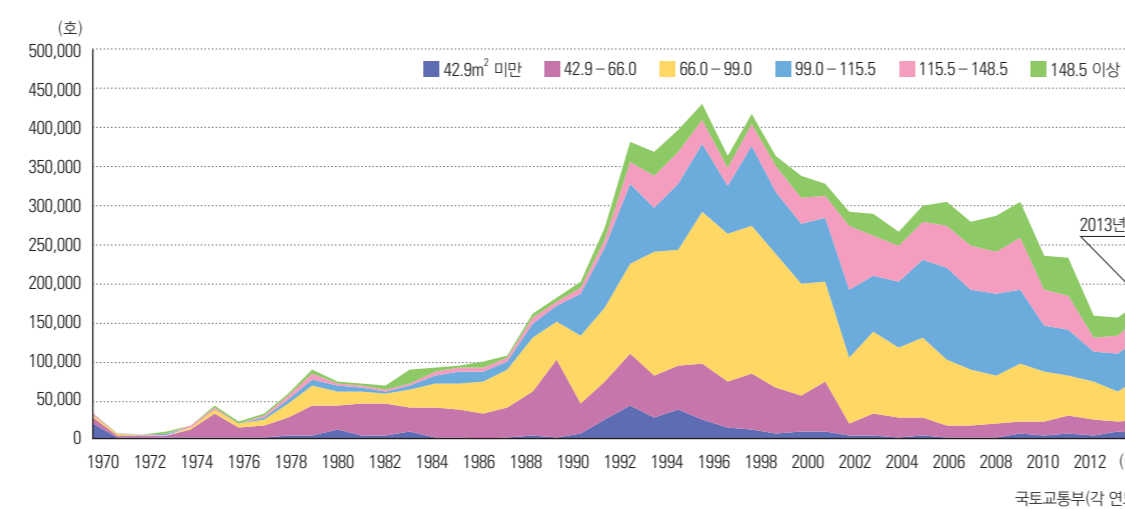
건설 주체별 아파트 면적



15층 이상 고층 아파트 비율 추이



아파트 규모별 건축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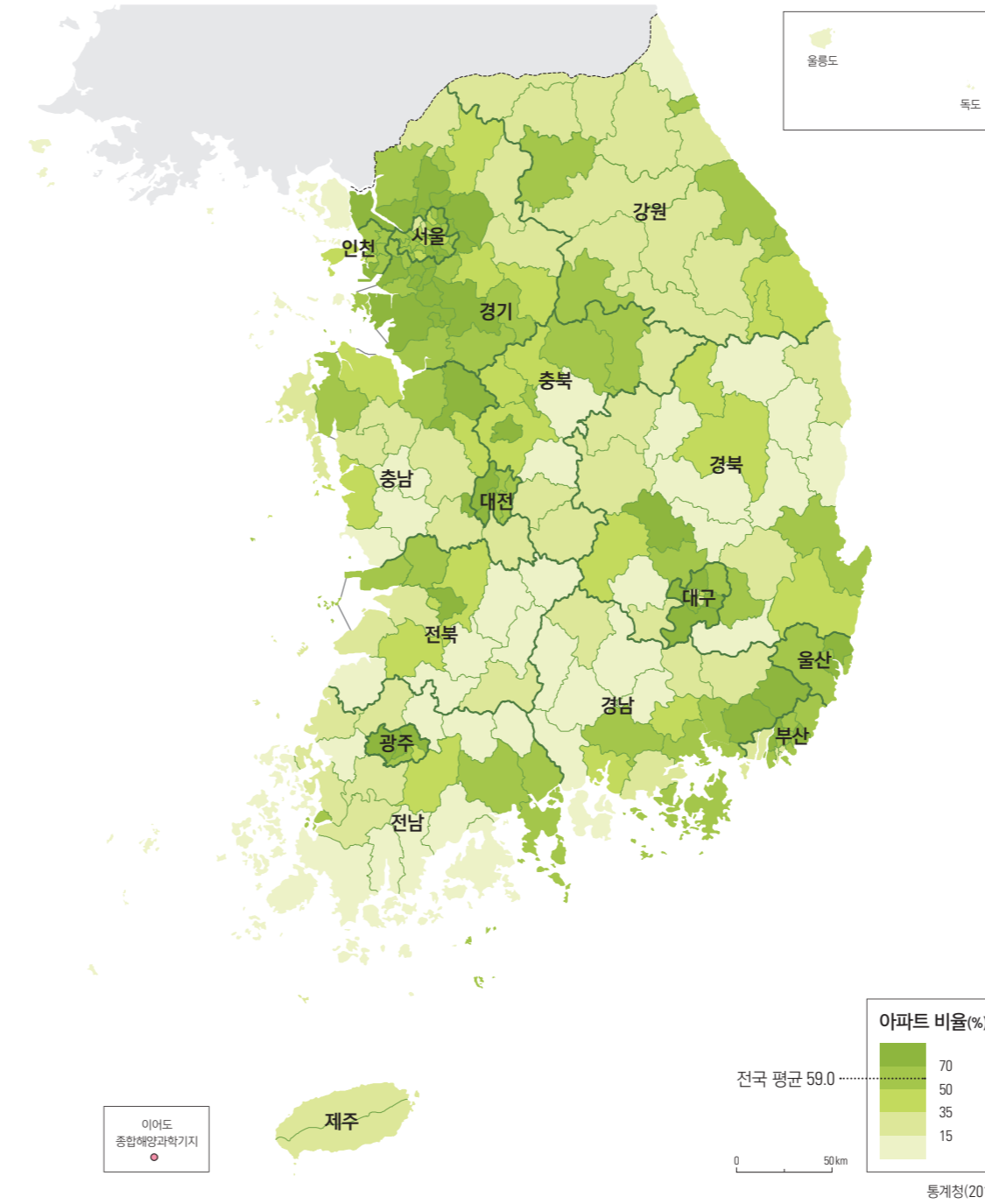
현대 한국인의 주거 양식 중 가장 특징적인 점은 아파트로 대표되는 공동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주택은 공식적으로 단독 주택,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단독 주택은 일반 단독 주택과 여러 가구가 단독 주택 내에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기획된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일반 단독 주택은 일상생활에서 농가 주택, 전원 주택 등 세부적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은 집합 건물로서 여러 세대의 가구주가 큰 건물의 일부를 나누어 소유하게 된다.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의 경우 한정된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아파트가 건설되기 시작하였고, 고층 아파트의 집중으로 인한 편의 시설, 교육 시설, 상업 시설 등이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분포하면서 아파트는 생활하기 편리한 도시의 주거 양식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또한 신도시 등 새로 조성되는 택지 지구의 상당수는 고층의 아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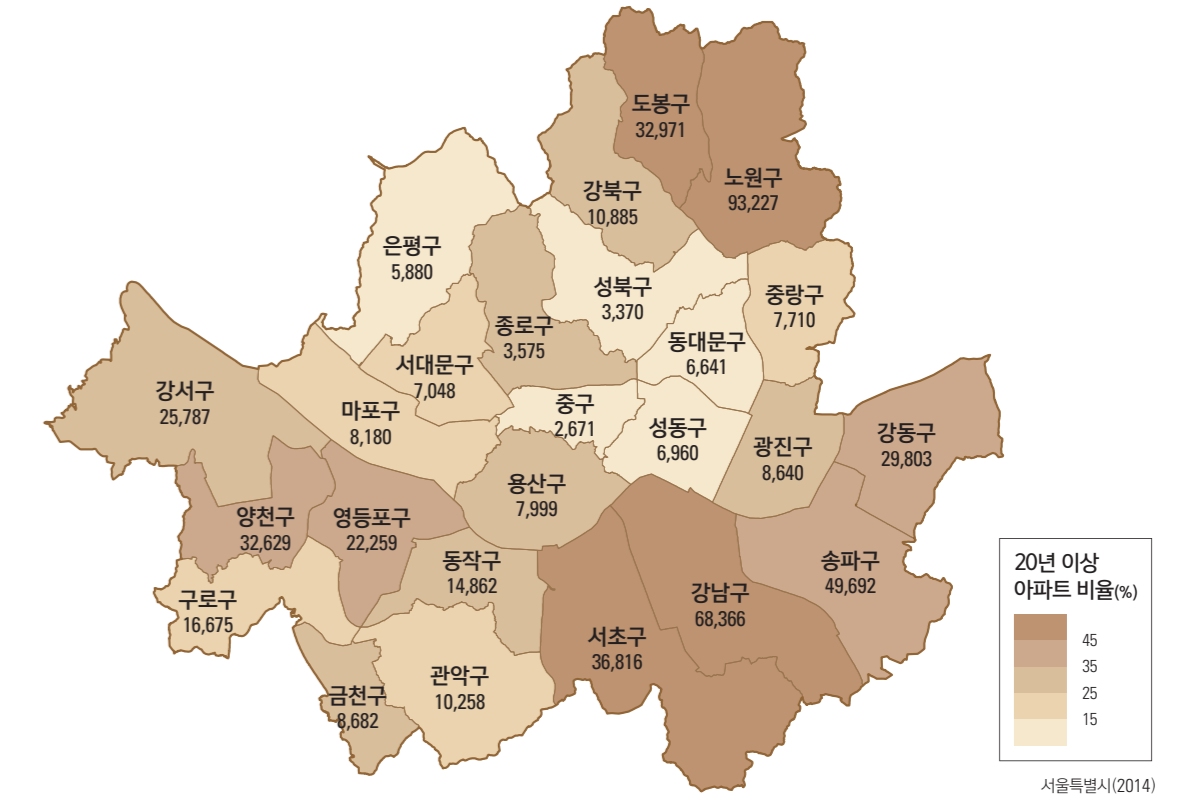
트 대부분의 주거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주택 중 아파트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2010년 센서스에 따르면 전국 주택 중 약 60%가 아파트이다. 또한 연립 주택과 다세대 주택 등을 포함하면 현대 한국인의 상당수가 공동 주택에서 살아가고 있다. 최근에는 도시 근교 혹은 농촌 중심지에도 다수의 공동 주택이 건설되고 있다. 또한 대도시 일부 지역에서는 저층은 상업 시설로 고층은 주거 시설로 이용되는 초고층의 주상 복합 건물이

늘어나고 있다. 단독 주택의 경우 농촌 지역이나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도시 지역에 다수가 분포하고 있다. 최근에는 복잡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전원 생활을 누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전원 주택 지구의 상당수는 이미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되거나 도시 재생 등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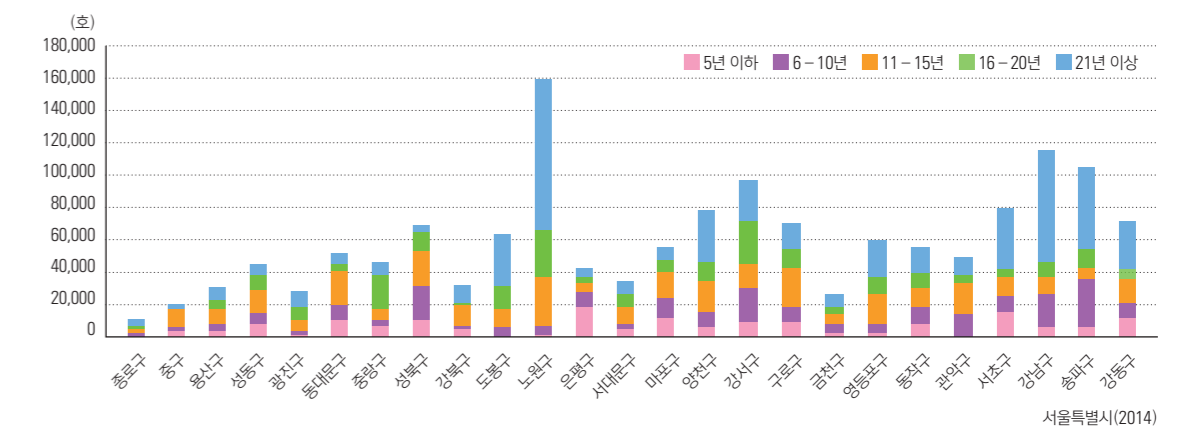
주택 중 아파트 비율(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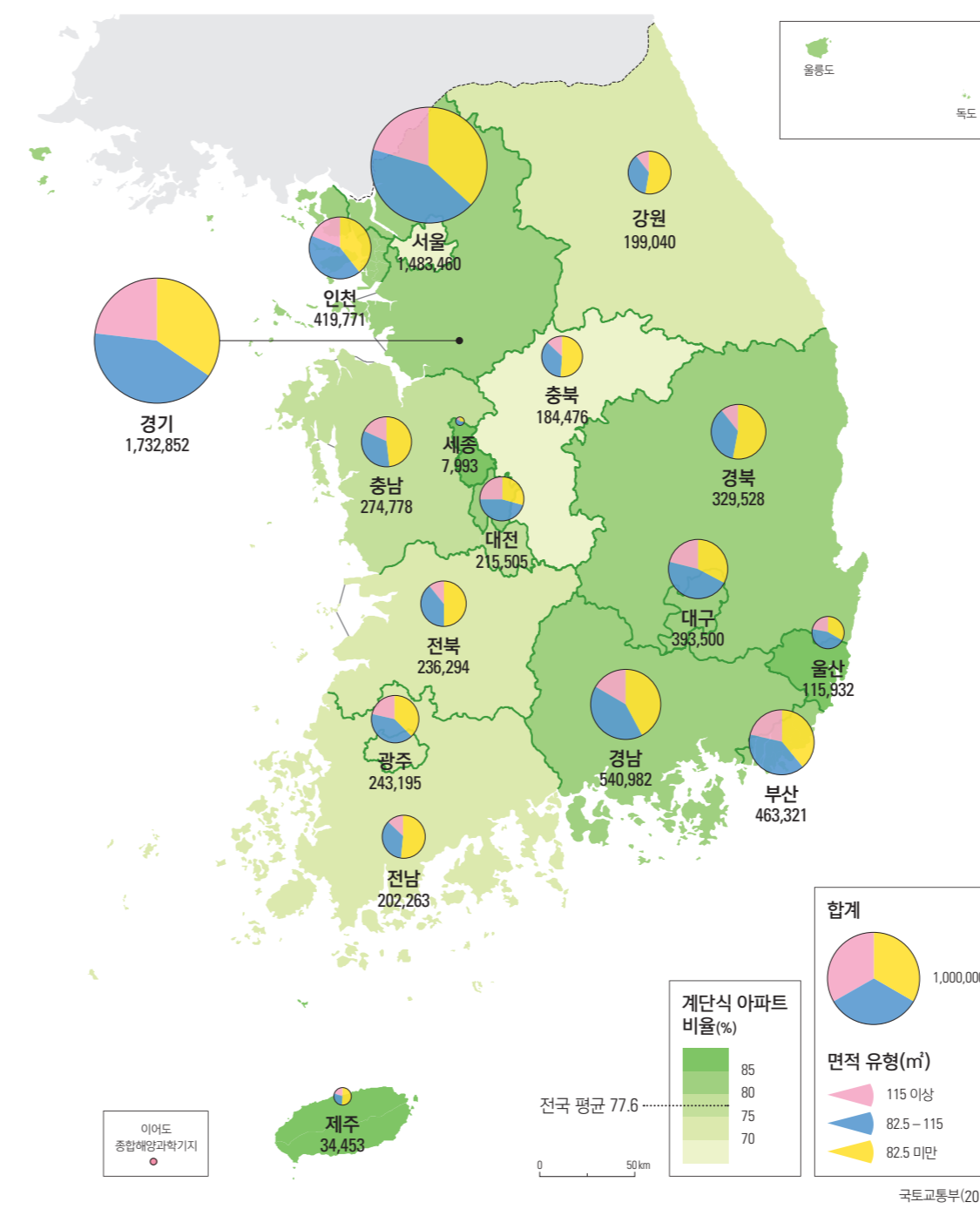
서울시 20년 이상 아파트 비율과 세대 수(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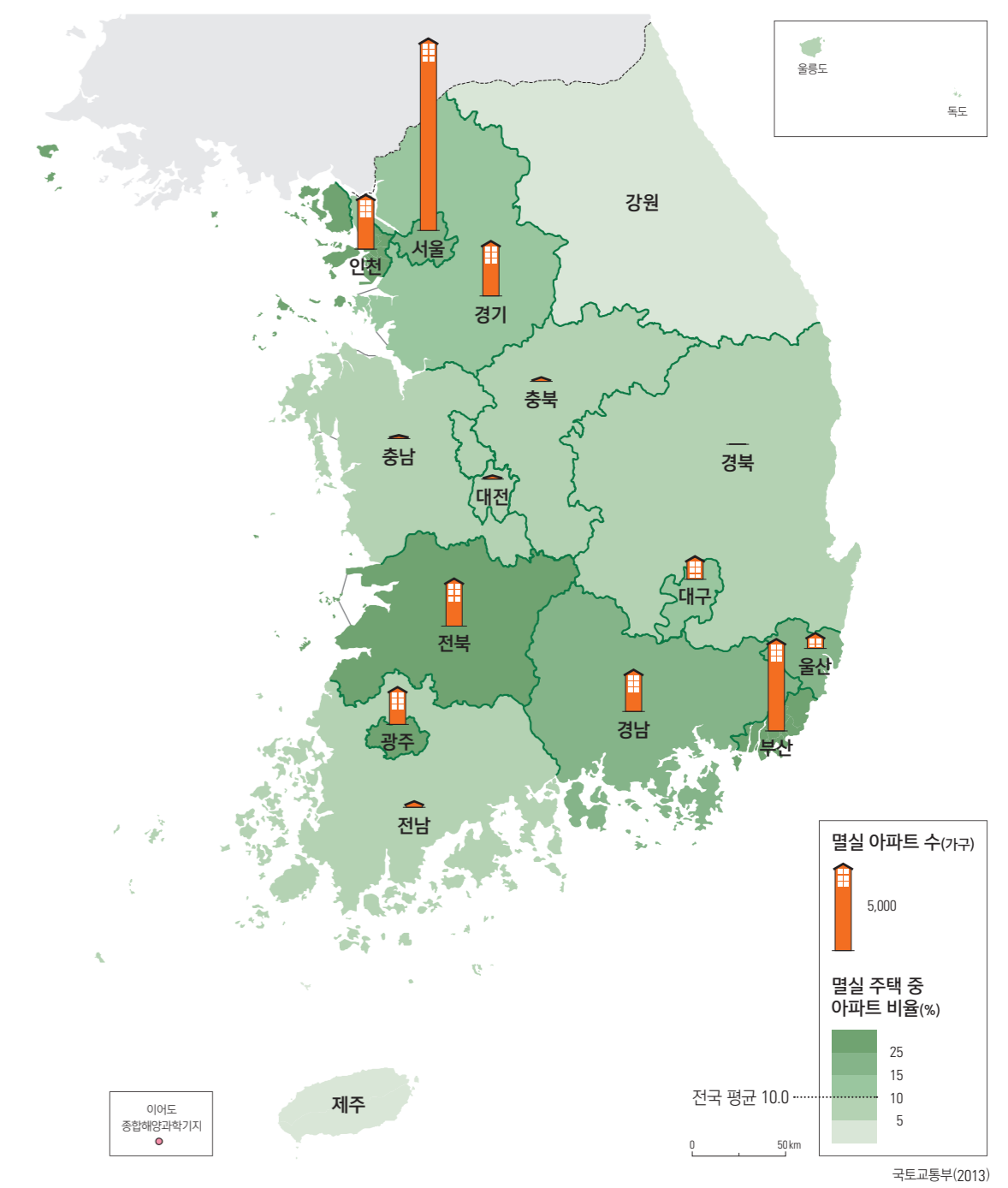
서울시 아파트 사용 연수



구조와 면적별 아파트의 분포(2014년)



주택 밀집 현황(2014년)





2000년대 건축 아파트: 경기도 고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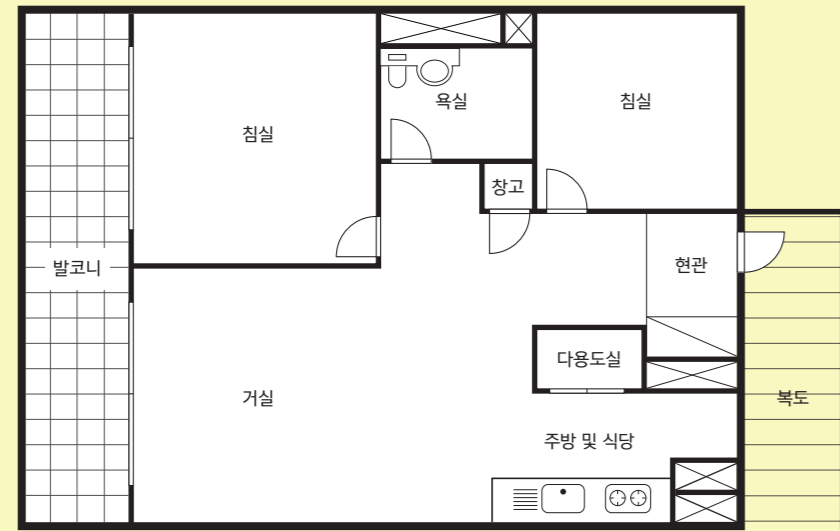
1970년대와 2000년대 건축 아파트 ①: 서울시 영등포구



1970년대와 2000년대 건축 아파트 ②: 서울시 영등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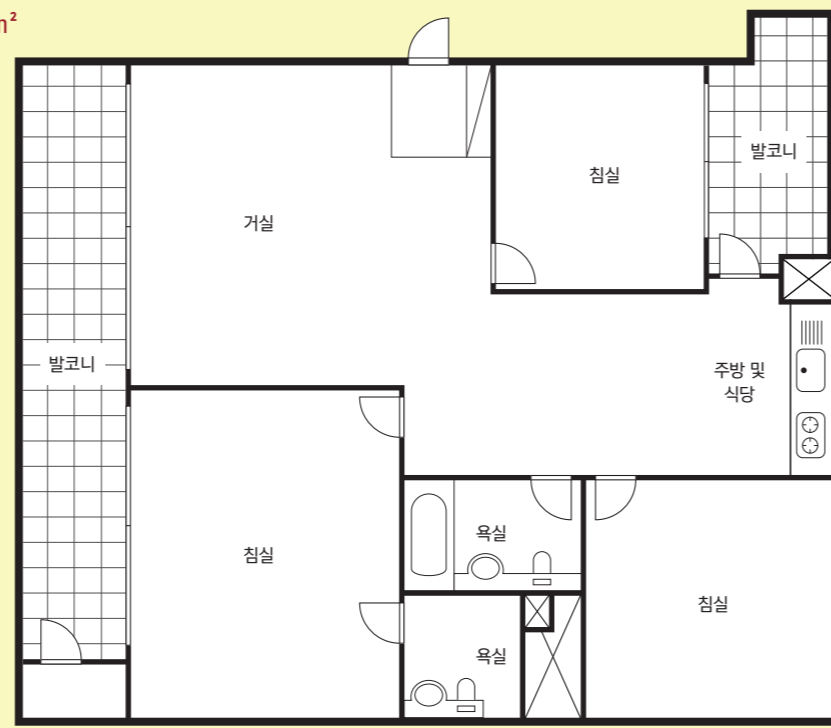
아파트 구조의 사례

전용 면적 65m² 구조의 예



1990년대 준공

전용 면적 85m² 구조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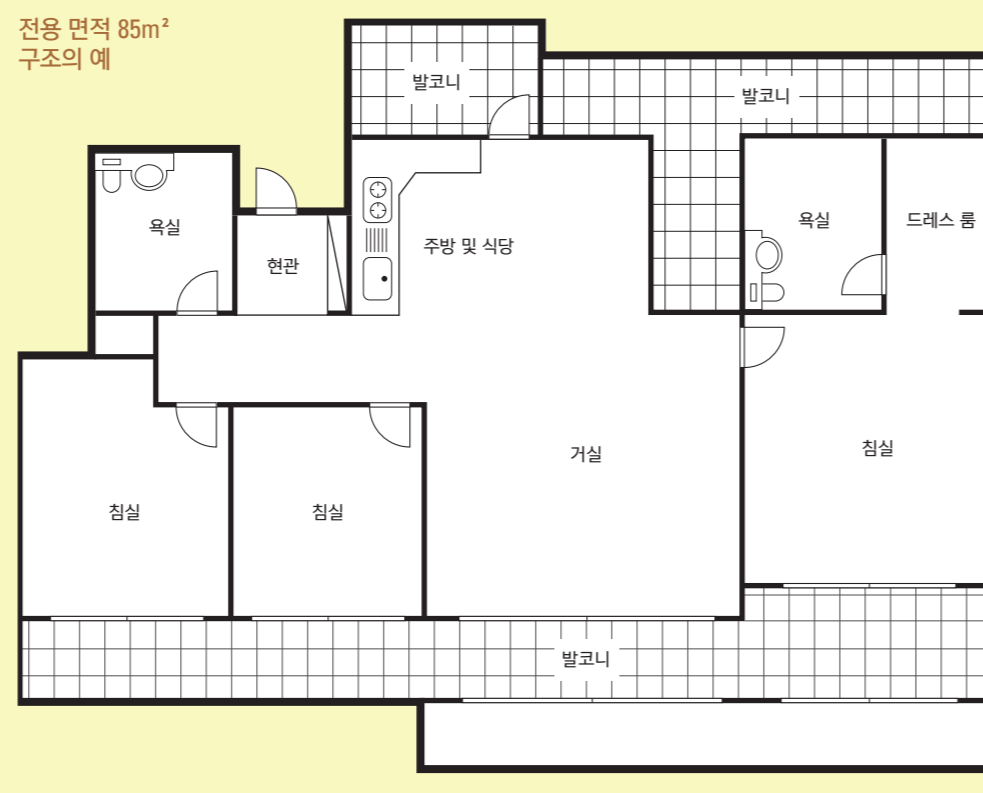


2000년대 준공

전용 면적 65m² 구조의 예



전용 면적 85m² 구조의 예



우리나라 도시 주거 양식의 대표적 유형은 아파트 거주라고 할 수 있다. 다수의 아파트가 1970년대 이후 건설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건설의 속도는 가속화되었다. 1990년 20% 초반이었던 총주택 중 아파트 비율은 2010년 60%에 근접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아파트의 면적을 살펴보면 다수의 아파트가 전용 면적 기준 약 65m²와 85m² 정도의 넓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의 주택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1970년대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에 정부의 재원을 사용하게 되면서, 「주택 건설 촉진법」이 규정하는 국민 주택의 기준을 85m² 이내로 정하게 되었고, 이 넓이는 세계 주택과 금융권 대출의 기준이 되는 이른바 '국민 주택 규모'의 상한선이 되었다. 85m² 규모 아파트는 3개의 방과 2개의 욕실을 갖추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모와 자녀가 거주하는 대표적인 아파트의 구조가 되었다. 또한 65m² 규모의 아파트는 과거 방 2개와 욕실 1개 구성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85m² 규모

와 마찬가지로 3개의 방과 2개의 욕실을 갖춘 형태로 변하였다. 전용 면적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거의 변함이 없지만 발코니의 확장도 같이 전용 면적 이외의 면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방과 거실이 커지면서 아파트 공간 활용은 점차 다양화되었다. 또한 주차의 편의, 엘리베이터 설치 및 공동 주택이 가지는 공동 관리와 보안 등의 장점으로 한국의 아파트는 여전히 가장 인기 있는 도시적 삶의 양식이다. 그러나

다수의 아파트가 건축된 지 20년이 지나면서 노후와 안전 문제가 발생하였고, 자가용의 소유가 늘어나면서 건축 연한이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주차 공간 부족 등도 해결해야 할 사안이 되었다. 그러나 공동 주택의 특성상 개별 주택의 개보수를 통한 정비만으로는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어 기존의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 사업이나 구조를 변경하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주택 유형별 밀집 지역 상위 5개동

| 주택 유형 | 상정동 | 세곡동 | 내곡동 | 가회동 | 종로5·6가동 |
|-----------|-------|-------|-------|-------|---------|
| 단독 주택 비율 | 65.7 | 45.3 | 40.0 | 39.7 | 37.5 |
| 다가구 주택 비율 | 용담동 | 세곡동 | 망우동 | 신사동 | 화양동 |
| | 59.7 | 51.3 | 48.9 | 48.4 | 47.3 |
| 아파트 비율 | 하계2동 | 상계8동 | 상계10동 | 신정6동 | 가정3동 |
|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다세대 주택 비율 | 삼전동 | 화곡본동 | 석촌동 | 화곡8동 | 장충동 |
| | 84.5 | 78.5 | 76.5 | 75.0 | 69.9 |

통계청(2010)

현대 한국의 주택 유형은 크게 단독 주택과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으로 나누고 있다. 이 중 단독 주택은 한 가구만 거주하는 단독 주택과 여러 가구가 함께 사는 다가구 주택으로 세분한다. 농촌 지역은 단독 주택이 다수를 차지하며, 도시 지역은 단독 주택과 다가구 주택이 점차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주택의 유형은 근린의 발달과 생활 환경의 차이를 만들어내며, 이로 인해 도시 지역은 서로 다른 근린 지역이 형성되고 있다. 서울시의 각 동을 상세한 주택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일부 지역은 한 주택에 한 가구만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의 구도심이나 외곽 지역에 해당하는 곳으로,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고 학교 등 교육 시설 및 상업 시설의 숫자

가 적다. 다가구 주택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주거지로 개발된 역사가 오래된 곳이며, 공업 시설이나 상업 시설 등 사업체와 주거지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최근 이러한 다가구 주택은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으로 변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에는 한 동 전체가 아파트로만 구성된 지역도 많다. 이러한 아파트 밀집 지역은 학생기의 자녀를 둔 가정이 많으며, 세대당 인구도 비교적 많은 편이다. 학생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학교 및 교육 관련 시설이 많고 소규모의 근린 시설은 아파트 부속 상가에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아파트 밀집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 중상 대형 상업 시설을 몇 개의 아파트 단지가 공유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소규모의 근린 시설은 각 아파트 단지 내에 위

동별 인구 구성 및 근린 시설 분포(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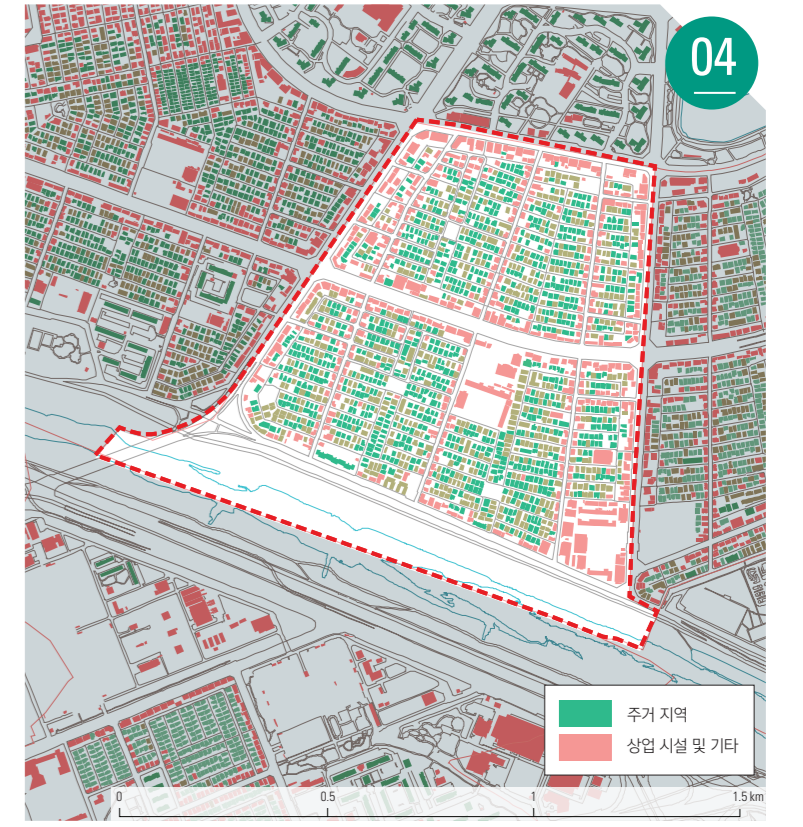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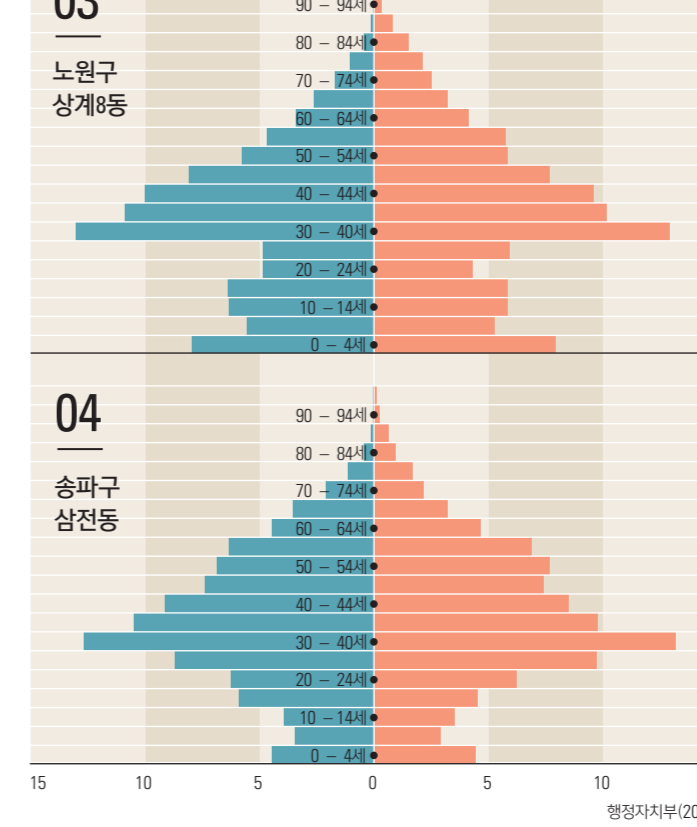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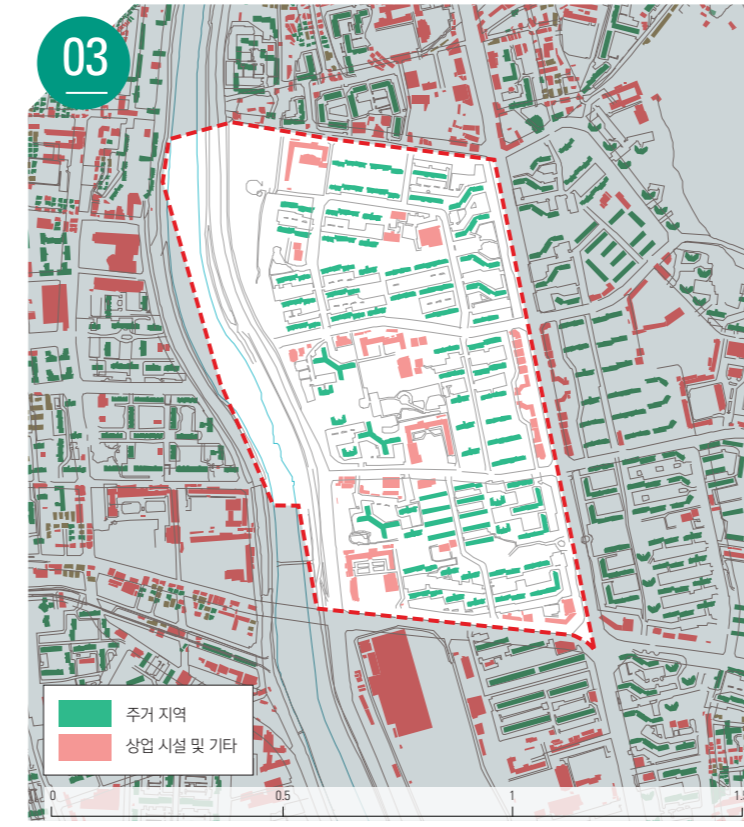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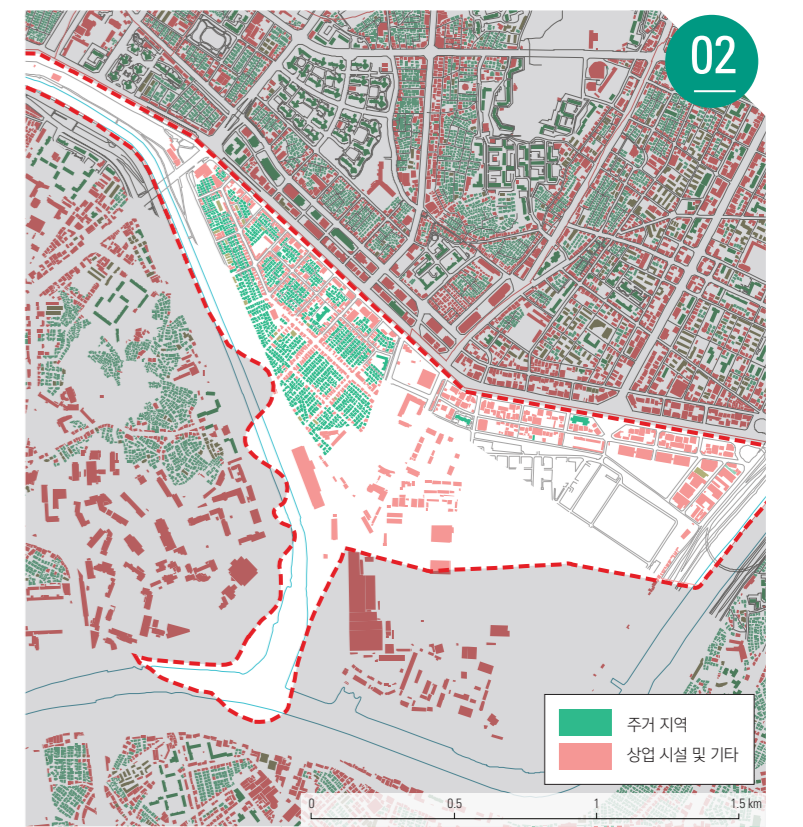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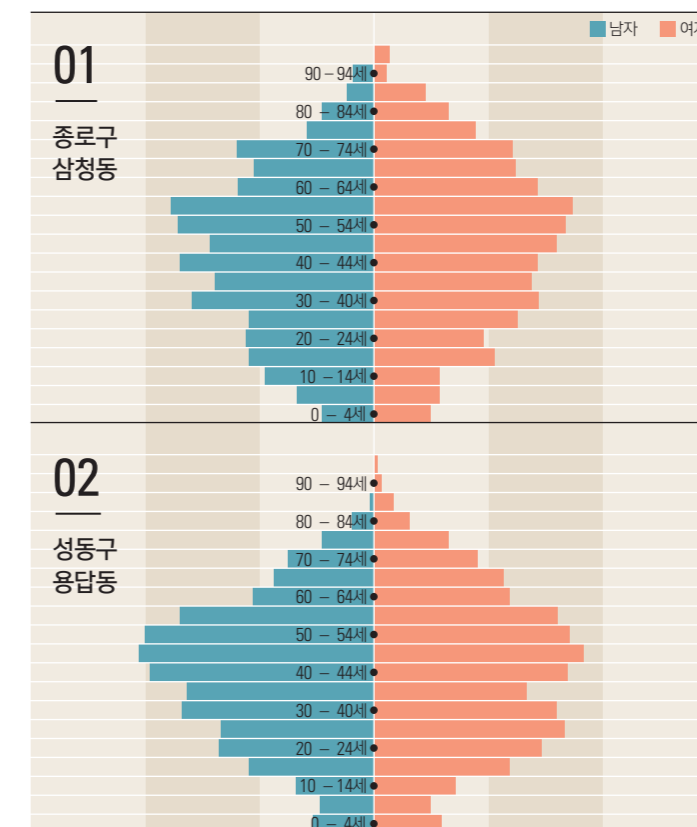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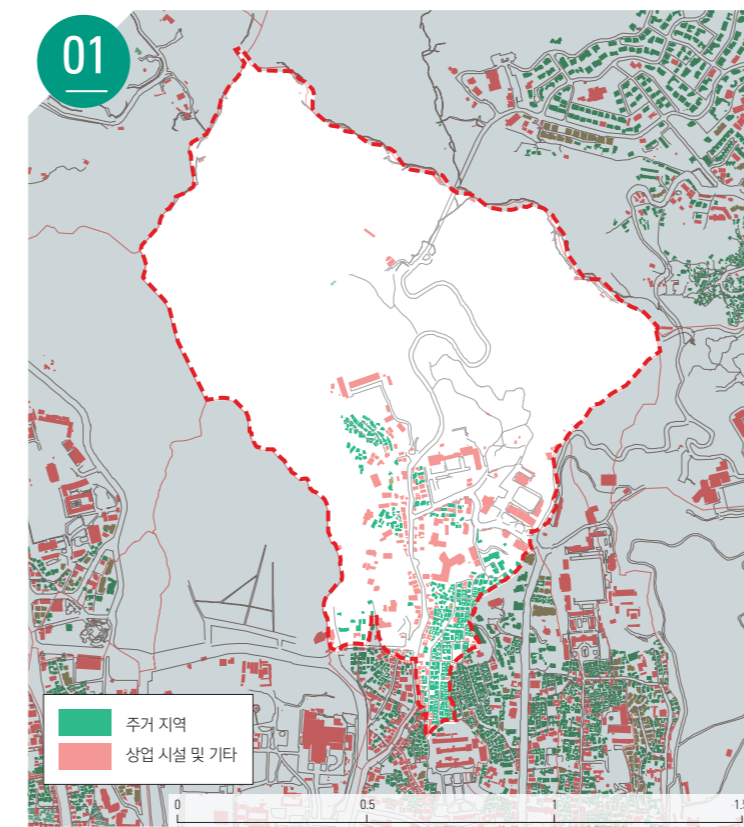
| 구분 | 종로구 삼정동 | 성동구 용담동 | 노원구 상계8동 | 송파구 삼전동 |
|---------------------------|---------|---------|----------|---------|
| 면적(km ²) | 1.49 | 2.32 | 0.67 | 0.95 |
| 세대 | 1,537 | 7,745 | 9,399 | 15,922 |
| 인구(남) | 1,644 | 9,154 | 12,785 | 16,813 |
| 인구(여) | 1,723 | 8,235 | 13,861 | 18,400 |
| 세대당 인구 | 2.09 | 2.12 | 2.83 | 2.19 |
| 65세 이상 인구 비율(%) | 19.0 | 12.3 | 8.0 | 7.7 |
| 인구 밀도(인/km ²) | 2,260 | 7,495 | 39,770 | 37,066 |
| 출생 | 18 | 86 | 501 | 356 |
| 사망 | 19 | 80 | 68 | 122 |
| 외국인(명) | 149 | 951 | 39 | 371 |
| 도서관 | 206 | 728 | 101 | 498 |
| 은행 | 5 | 3 | 4 | 6 |
| 의료기관 | 8 | 30 | 31 | 45 |
| 약국 | 1 | 11 | 5 | 17 |
| 커피숍 | 6 | 5 | 2 | 11 |
| 음식점 | 232 | 252 | 42 | 303 |
| 재과정 | 5 | 6 | 6 | 11 |
| 이미용 | 1 | 46 | 28 | 103 |
| 보육 시설 | 1 | 9 | 51 | 20 |
| 학교 | - | 1 | 4 | 3 |

서울시 자치구별 통계연보(2014)

치한다. 따라서 아파트 밀집 지역은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의 구분이 비교적 뚜렷하다. 마지막으로 다세대 주택은 최근 빌라 형태로 늘어나고 있다. 다세대 주택의 밀집 지구는 미혼, 자녀가 없는 부부,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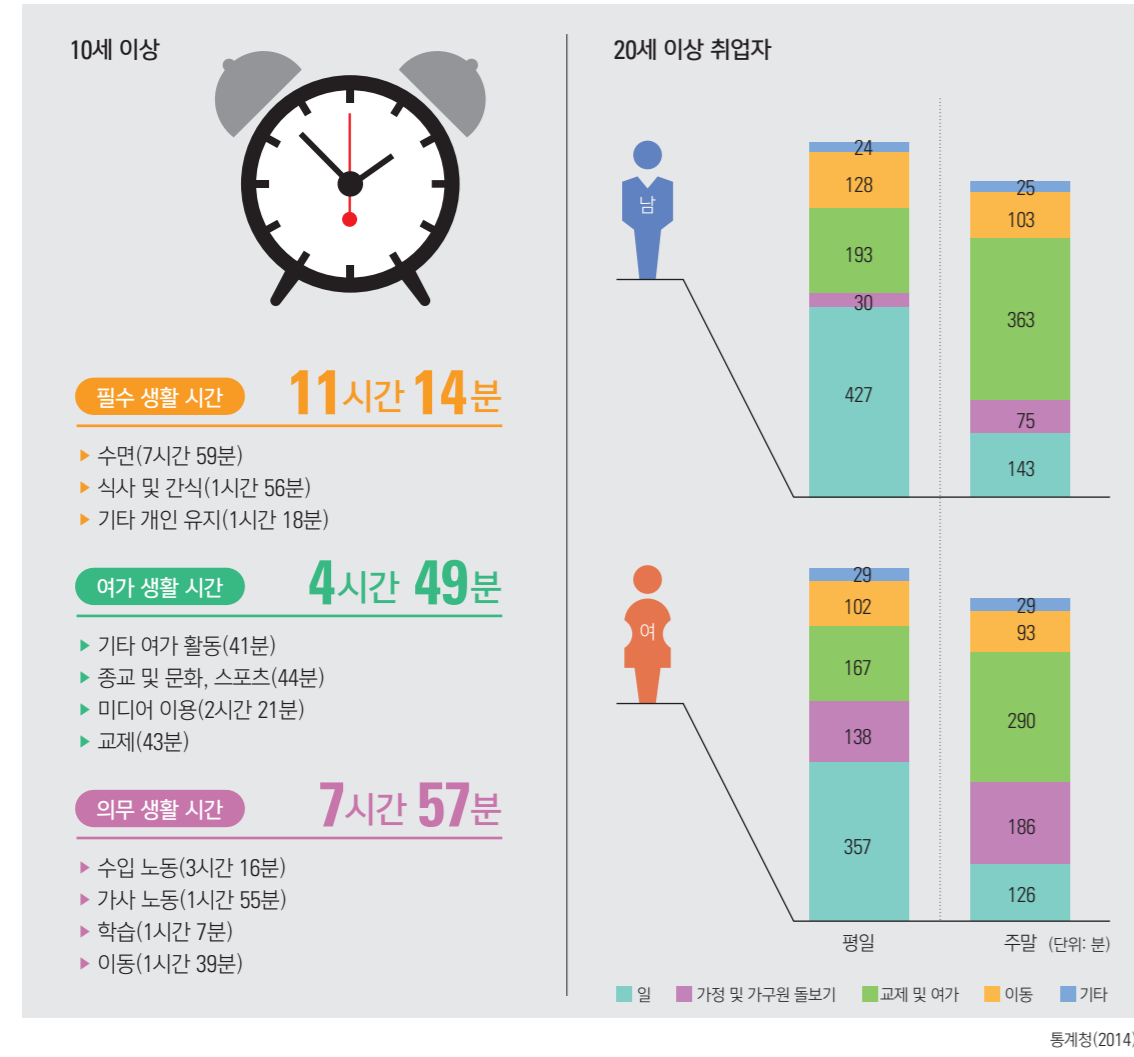
녀가 취학 연령 미만인 가구가 많다. 일부 다세대 주택 밀집 지구는 도심 근처에 분포하기도 하며, 이러한 지역은 미혼의 직장인이 선호하는 경우가 많고, 지역 내 다양한 근린 시설이 분포한다.

인구 피라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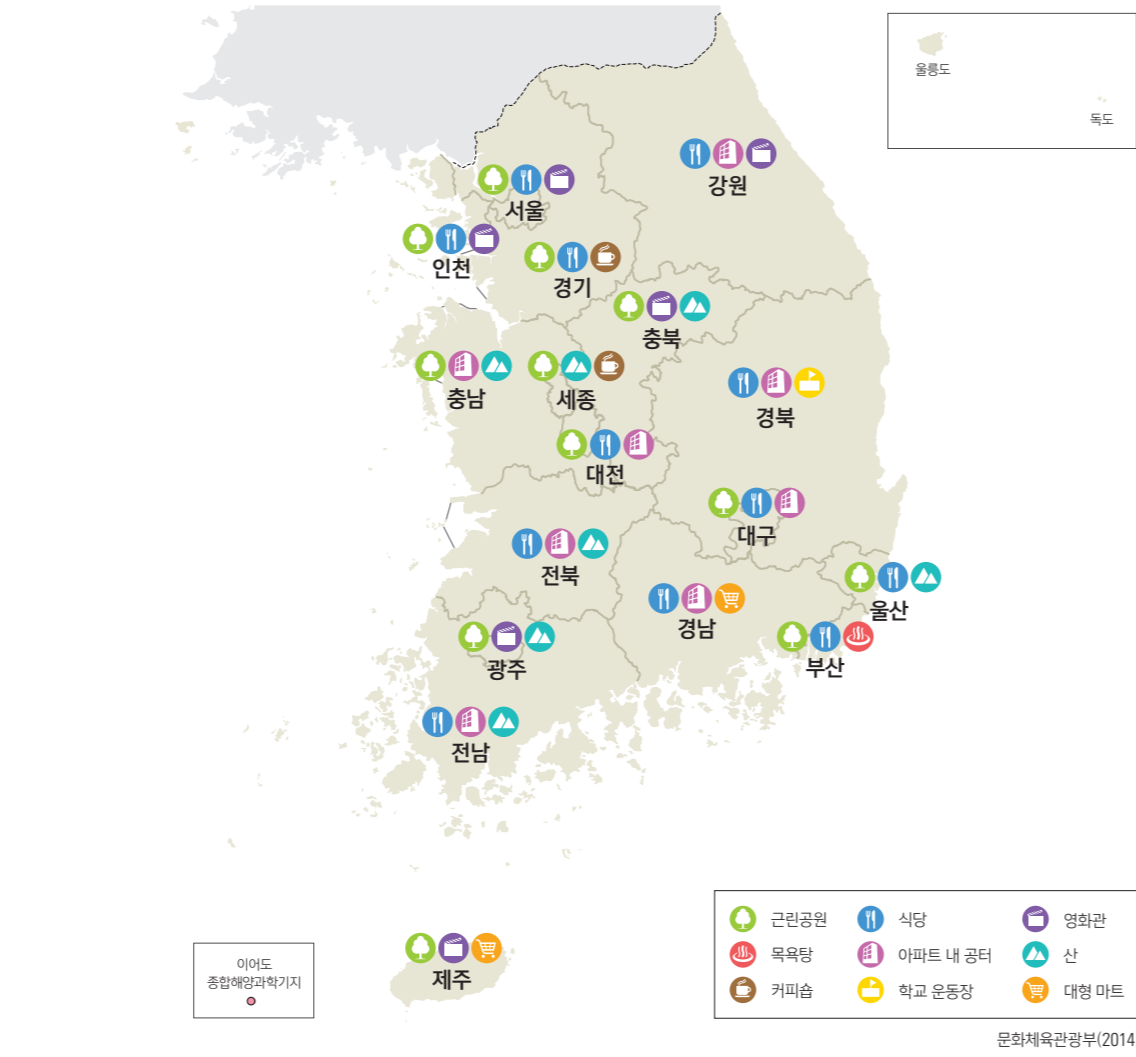


한국인의 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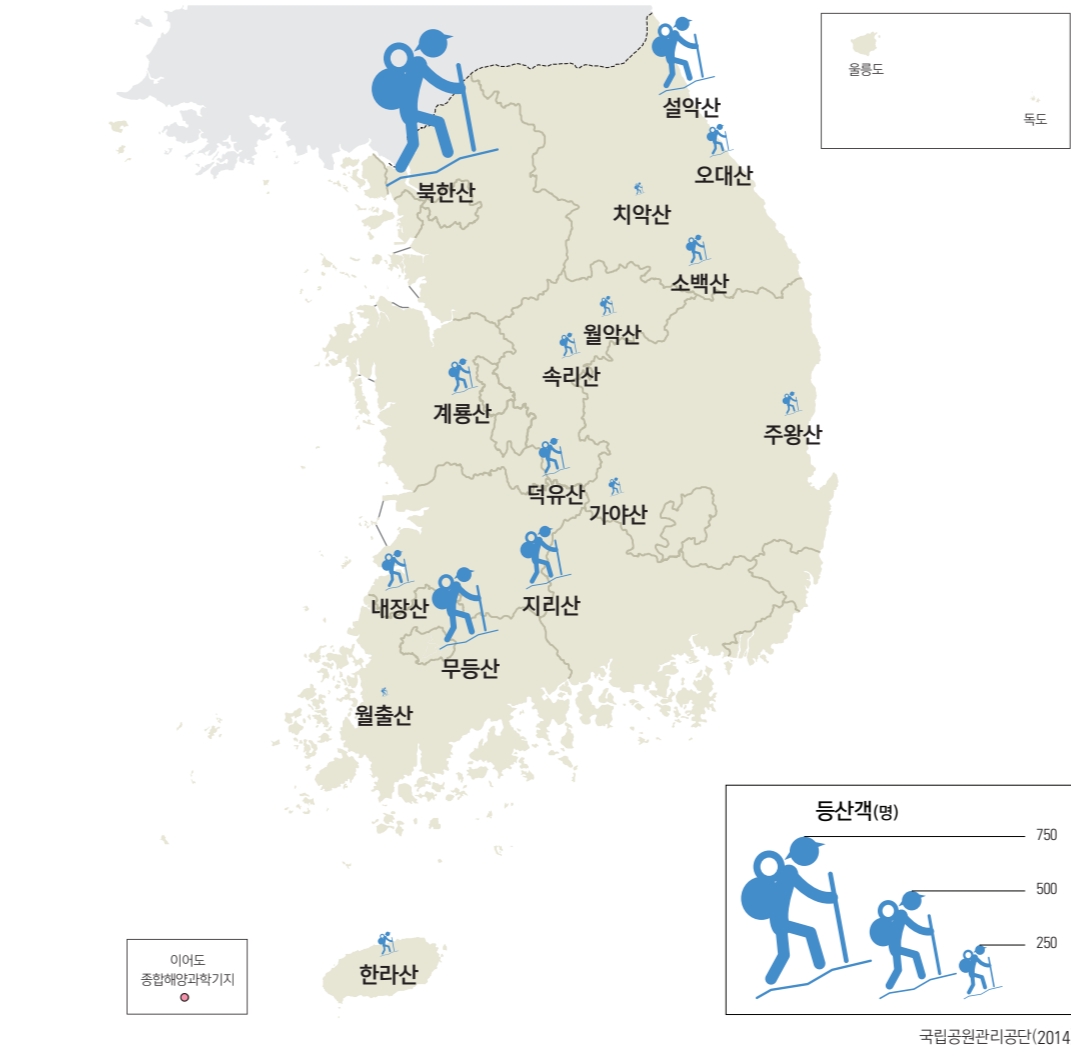
전 국민의 시간 활용(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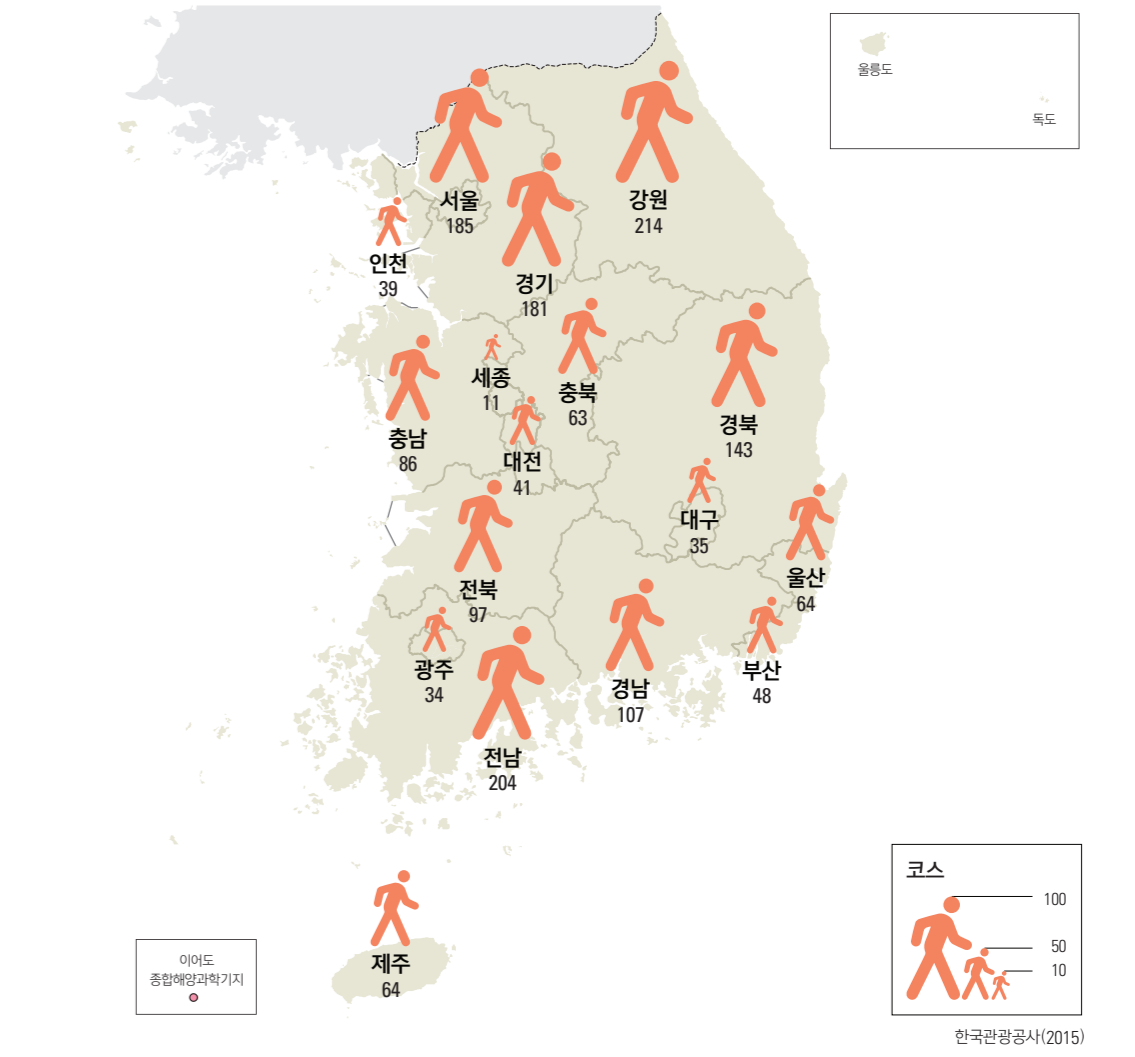
여가 활동 공간 상위 3곳(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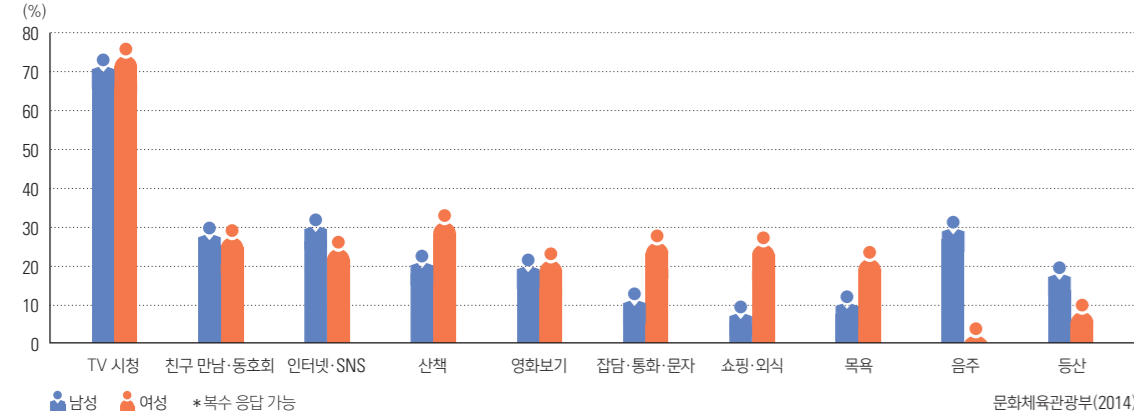
국립 공원 등산객(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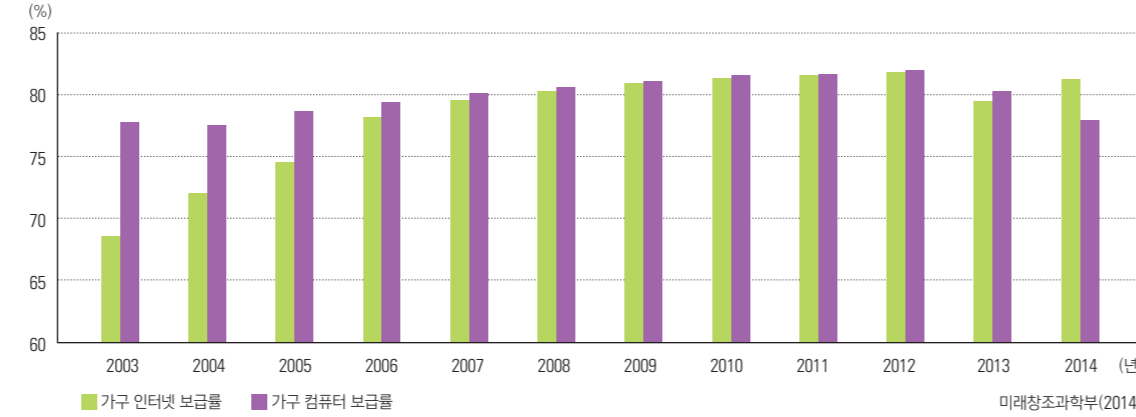
걷기 여행길 수(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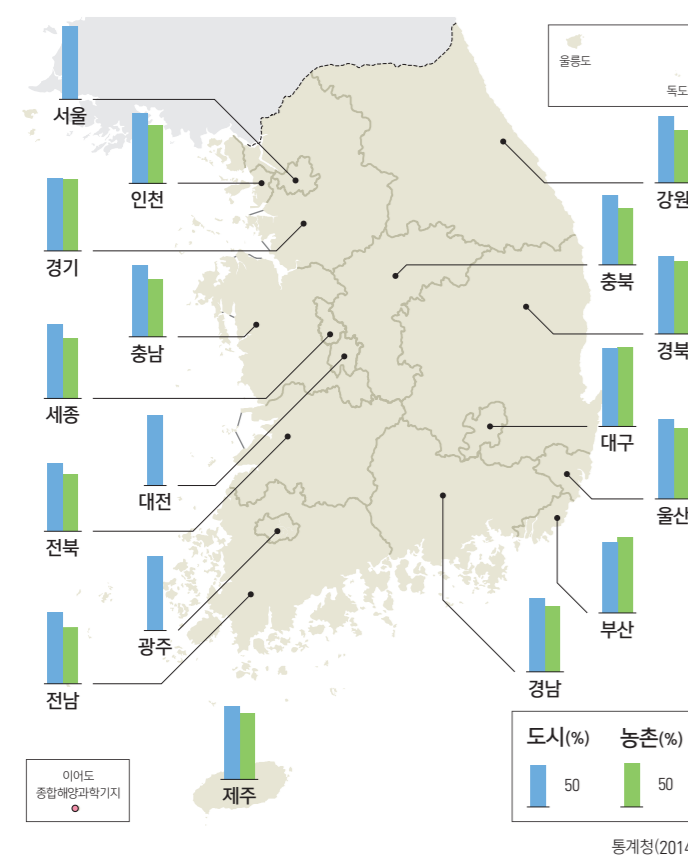
성별 여가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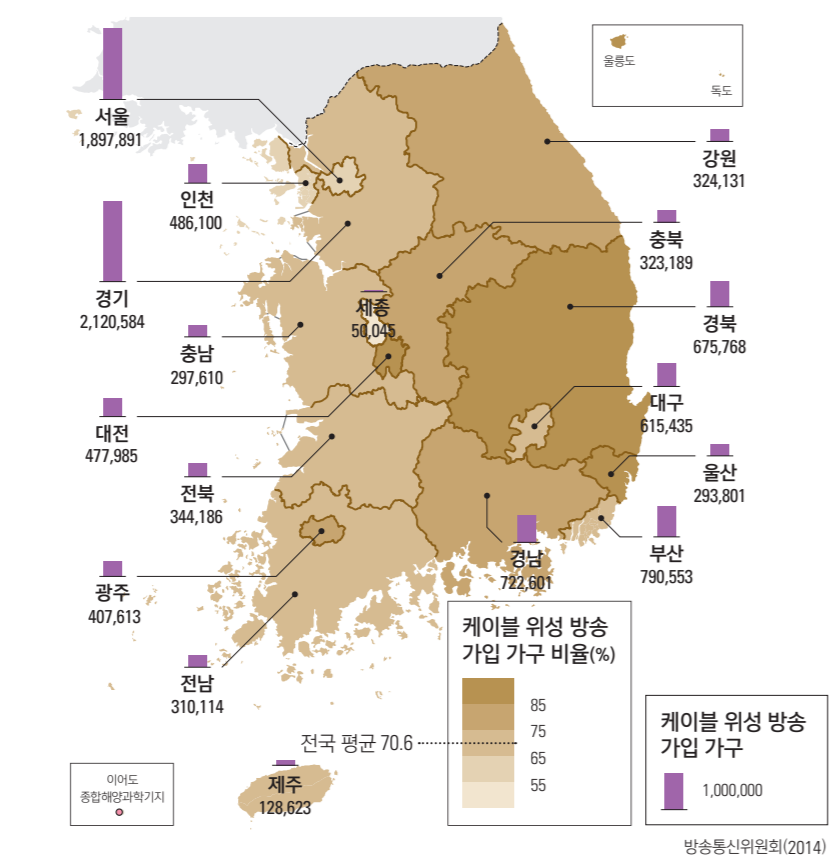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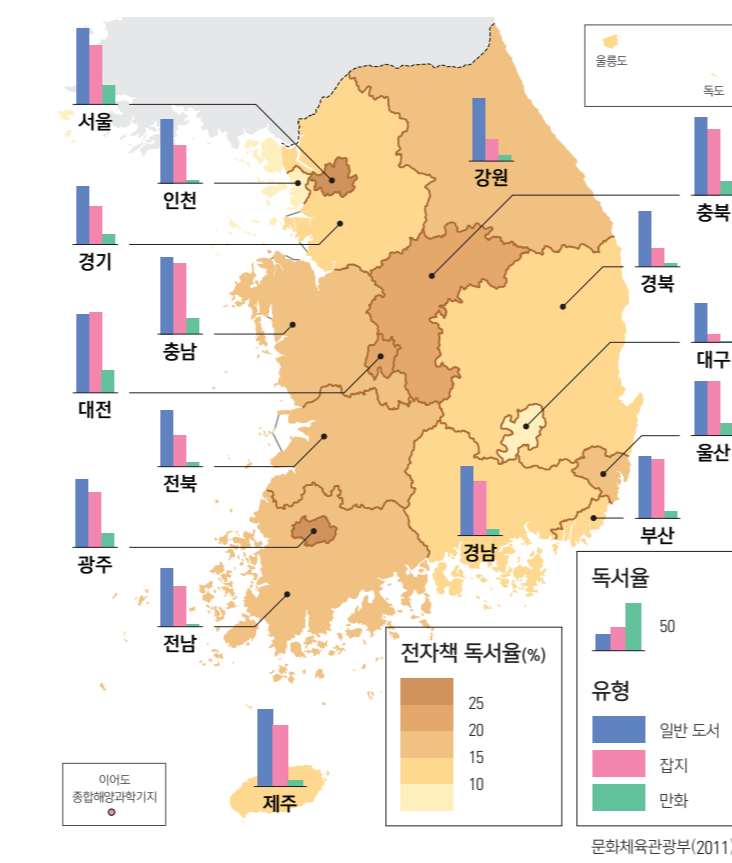
인터넷 사용률



케이블 및 위성 방송 가입 가구 수와 비율



독서율과 전자책(e-book) 이용



10세 이상 한국인은 수면, 식사 등 필수 생활 시간, 노동, 학습, 이동 등 의무 생활 시간을 제외하고 일일 평균 약 4시간 50분 정도의 여가시간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의 활용 방식을 살펴 보면 평일에는 주로 TV 시청, 인터넷 등 미디어를 이용하는 정적인 여가 활동이 우세하고, 주말에는 여행과 운동 등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가 활동의 다양화는 주5일제 근무의 도입과 정착으로 더욱 가속화되었다. 한국인이 여가를 즐기는 공간은 근린공원, 음식점과 카페 등이 있으며, 주말에 등산을 즐기는 사람이 많다. 또한 이러한 여가 공간의 지역적 차이도 발견되는데 노년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근린공원이나 주거 지역 내 공터 등이 주된 여가 공간

으로 이용된다. 연령별 여가 활동은 대체적으로 젊은 세대일수록 인터넷 등 양방향 미디어의 활용이 많고, 노년층의 경우 TV 시청과 산책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중장년층에게 음주를 통한 사교 활동과 등산 등이 선호되는 여가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여가 활용의 비율

이 TV 시청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가구의 컴퓨터 및 인터넷 보급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모바일 기기를 통한 인터넷 활용도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또한 케이블 및 위성 방송의 보급도 늘어나면서 시청할 수 있는 TV 채널의 수도 늘어나며,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의 활용을 통해 TV와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시청하는 비율도 늘고 있다.

서울 둘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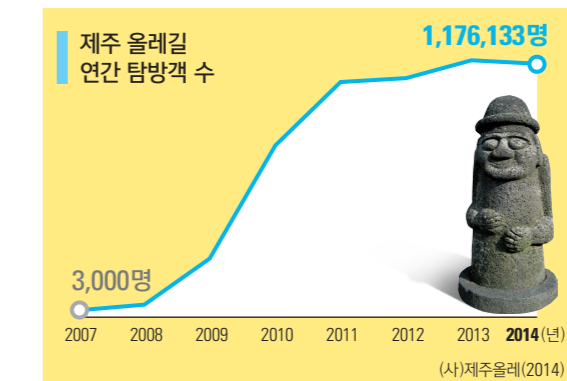


제주 올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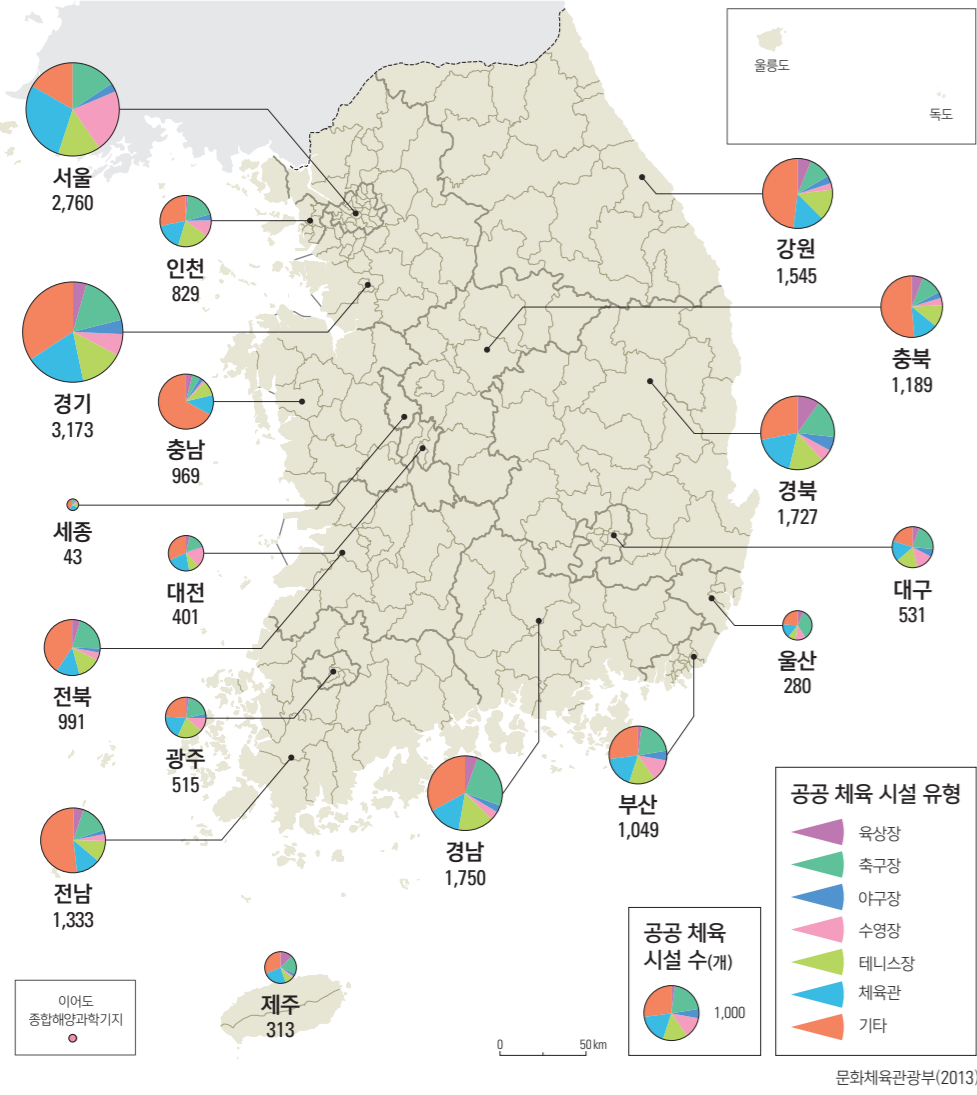
2014년 7월 워싱턴포스트지는 대한민국에서 등산은 마치 국가 정체성이 된 것과 같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의 등산 열풍을 보도하였다. 기사에 따르면 주5일제 근무로 인해 등산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이러한 증가 이면에는 전국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산이 널리 분포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산이 많지 않거나 등산하기에 너무 높거나 험하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필요로 하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대한민국은 도시 지역을 조금만 벗어나면 많은 산이 있다는 점이 등산 열풍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일 것이다. 이로 인해 북한산은 미국의 그랜드캐니언 보다 방문자가 많으며, 2014년 7백만 명이 넘는 방문객 수를 보이고 있다.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을 자랑하는 북한산은 대한민국의 등산 열풍과 함께 한국적 삶의 공간이 갖고 있는 특이한 도시와 자연의 조화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도시 주변의 환경이 잘 보전된 지역을 걸으며 풍광을 즐길 수 있는 누리길도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를 공유하고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러한 등산 열풍과 함께 걷기 열풍도 현대 대한민국의 여가 문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키워드이다. 과거의 관광 패턴은 유명한 관광지로 빠르게 이동하고 그 지역의 문화재, 관광 시설, 위락 시설 등을 즐기는 형태가 많았다. 그러나 천천히 걷기, 사색하기, 지역을 느끼고 이해하기 등의 새로운 사회 문화적 조류는 관광의 형태도 크게 바꾸어놓았다. 이 중 제주도 올레길은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문화적 다양성과 고유성을 느낄 수 있는 길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이러한 걷기 열풍에 따라 전국에 다양한 길이 만들어지고 이용되고 있으며, 지역의 특색과 역사를 반영한 길이 늘어나고 있다. 길의 주제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문화, 생태, 해안 절경, 숲, 야생화 등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도시 주변의 환경이 잘 보전된 지역을 걸으며 풍광을 즐길 수 있는 누리길도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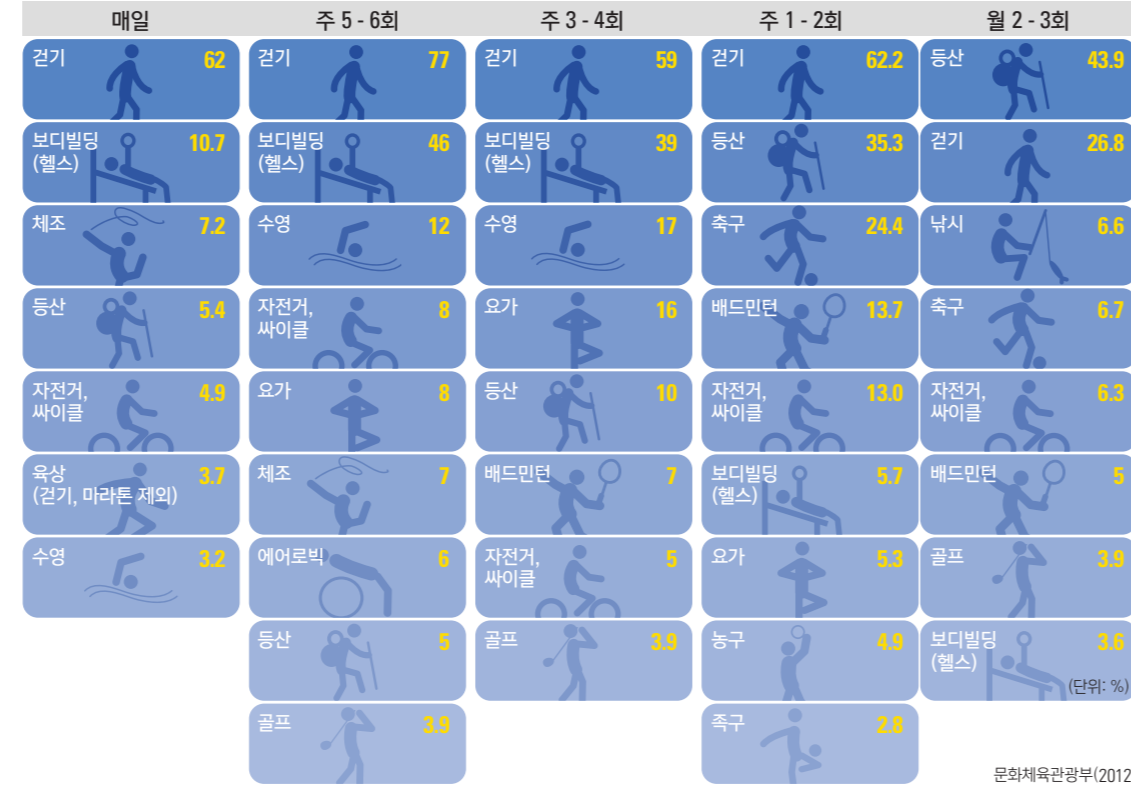


스포츠 활동

공공 체육 시설(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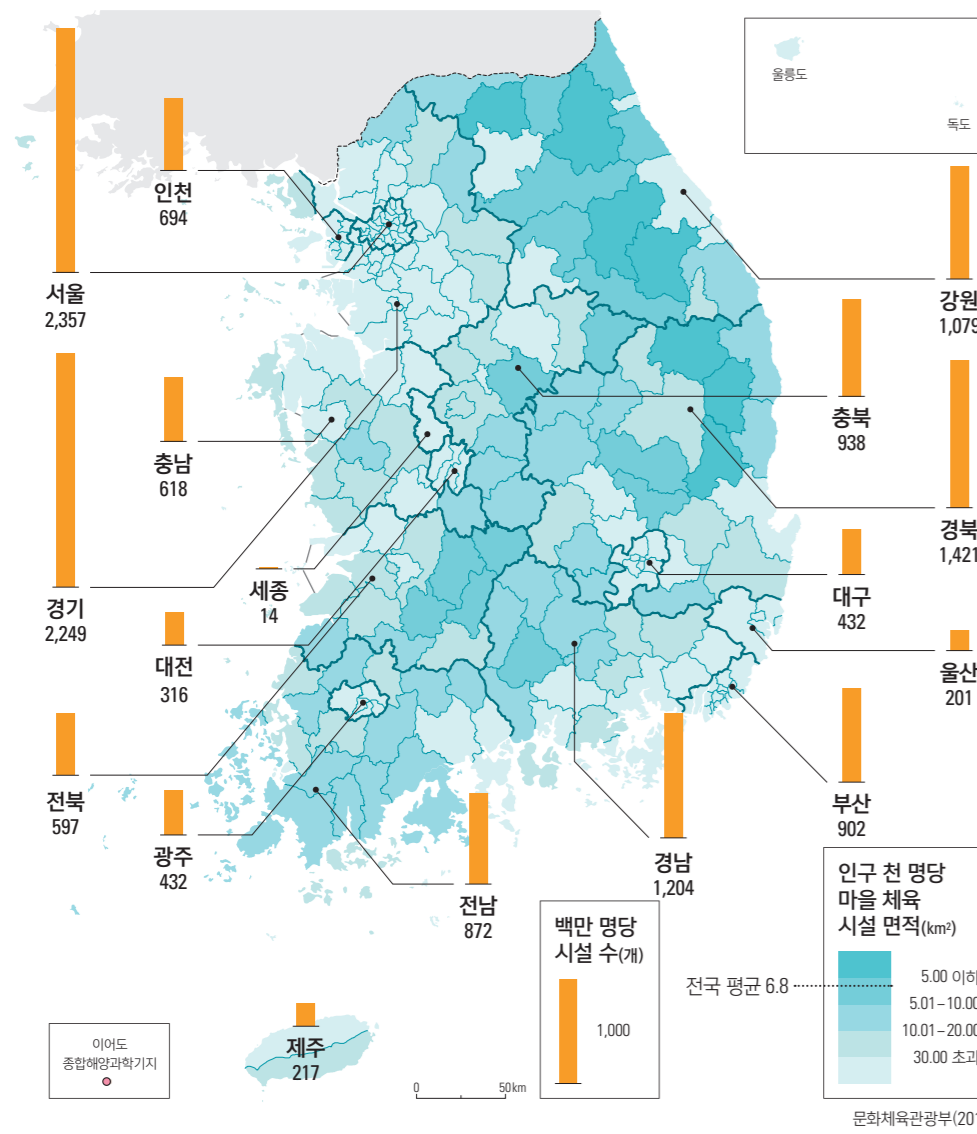
한국인이 즐겨 하는 생활 체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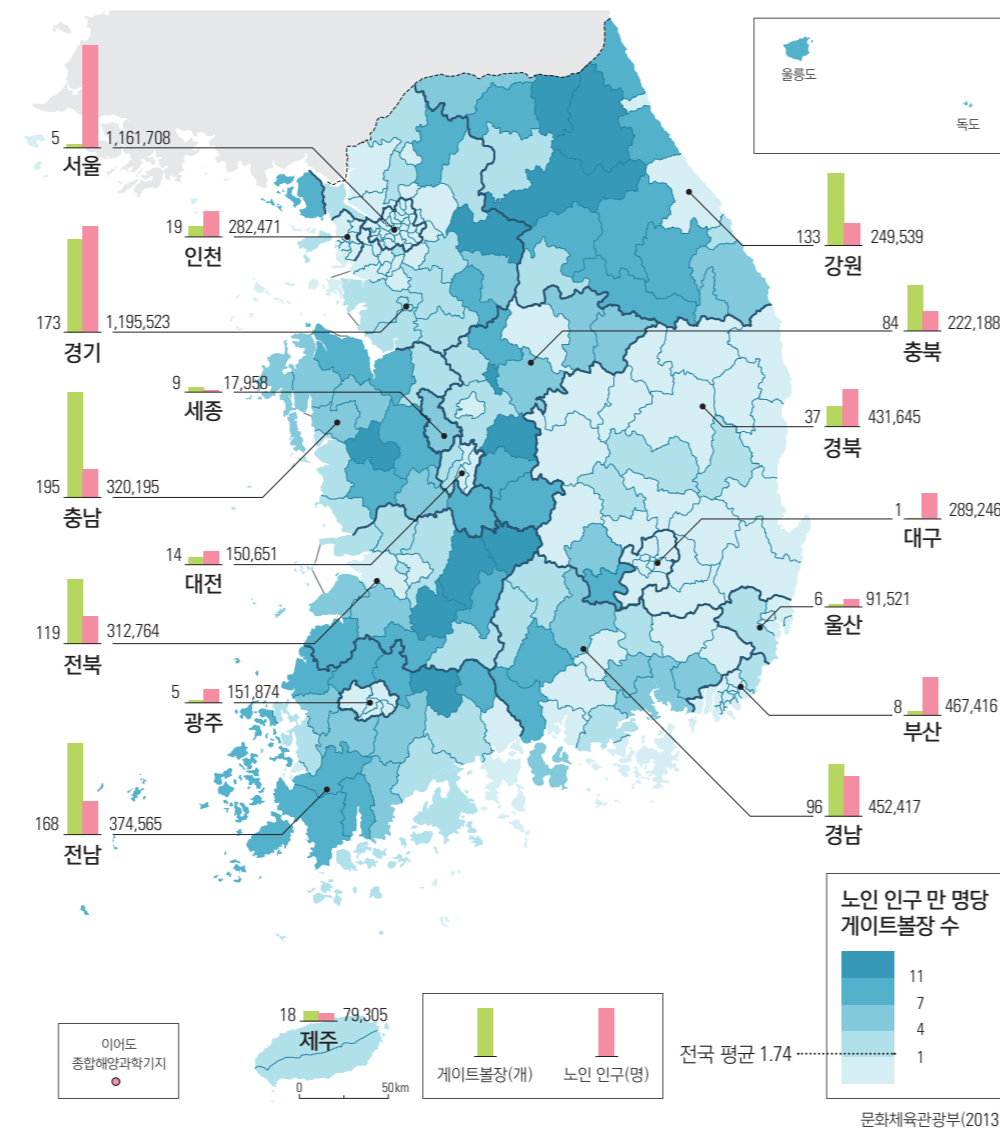
생활 체육 참여

| 구분 | 성별 | 연령별 | 전체 | 응답자 수(명) | 참여(%) | 참여하지 않음(%) |
|-----|--------|-----|----|----------|-------|------------|
| 성별 | 남성 | | 전체 | 9,000 | 48.9 | 51.1 |
| | 여성 | | | | | |
| 연령별 | 10대 | | | 1,305 | 41.2 | 58.8 |
| | 20대 | | | 1,316 | 43.0 | 57.0 |
| | 30대 | | | 1,614 | 45.0 | 55.0 |
| | 40대 | | | 1,730 | 56.3 | 43.7 |
| | 50대 | | | 1,468 | 57.8 | 42.2 |
| | 60대 | | | 823 | 21.4 | 48.6 |
| | 70대 이상 | | | 744 | 43.8 | 56.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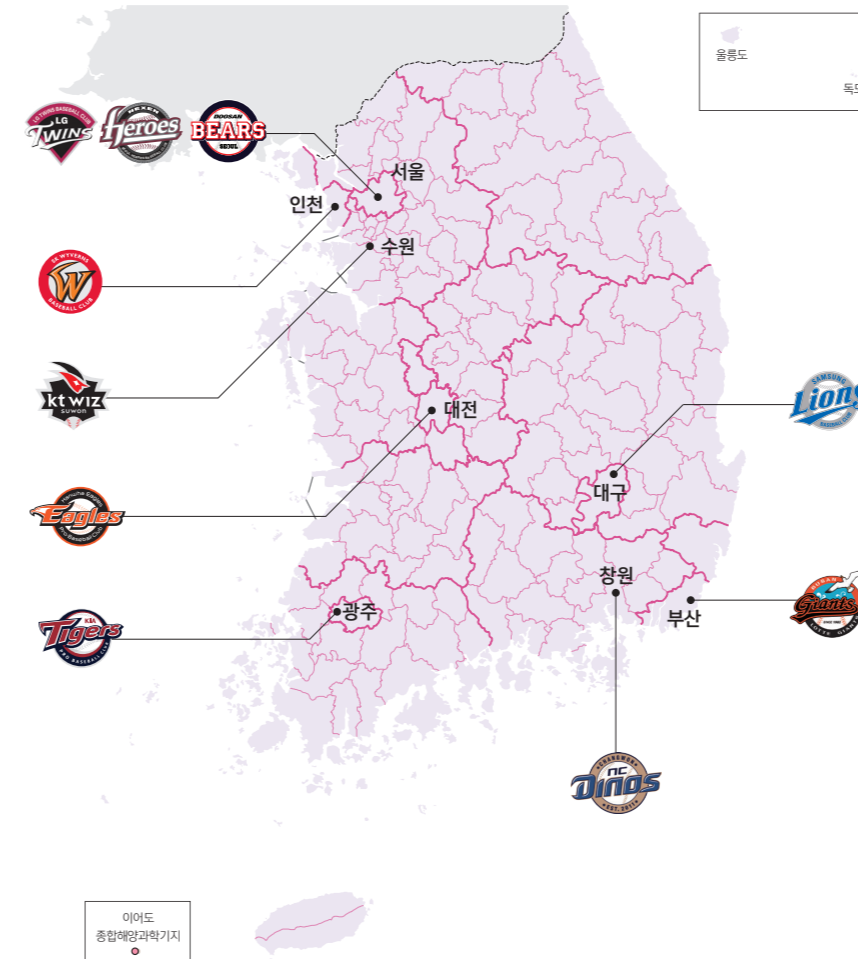
마을 체육 시설(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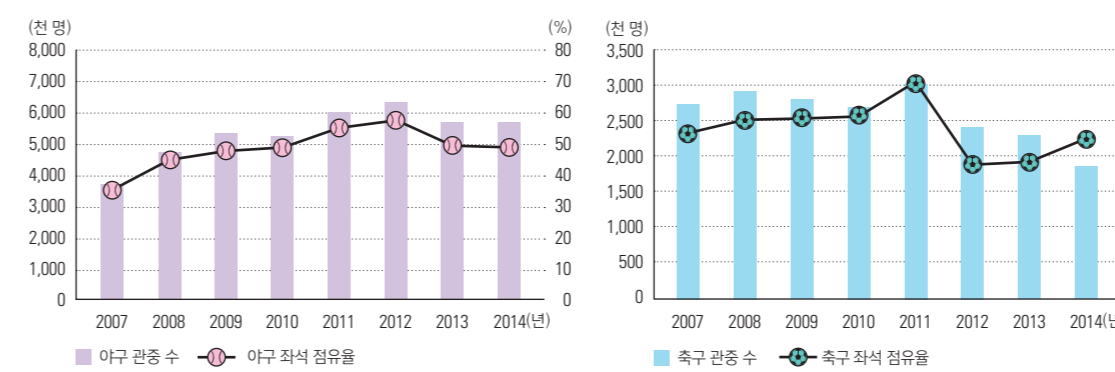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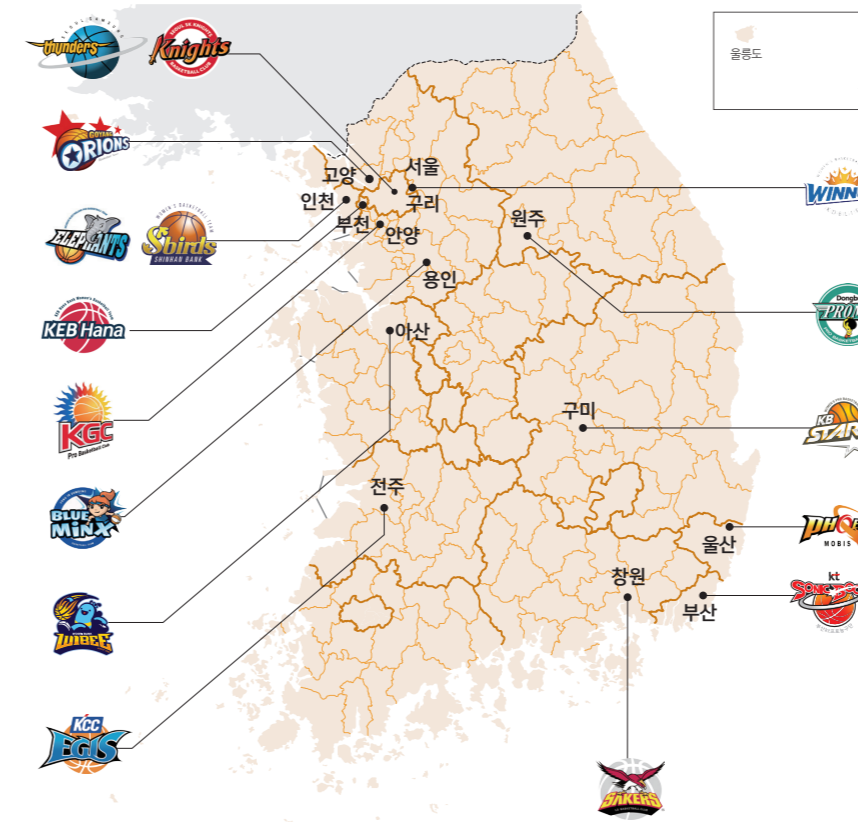
노년 인구를 위한 체육 시설: 게이트볼장(2013년)



프로 스포츠(2016년) 프로 야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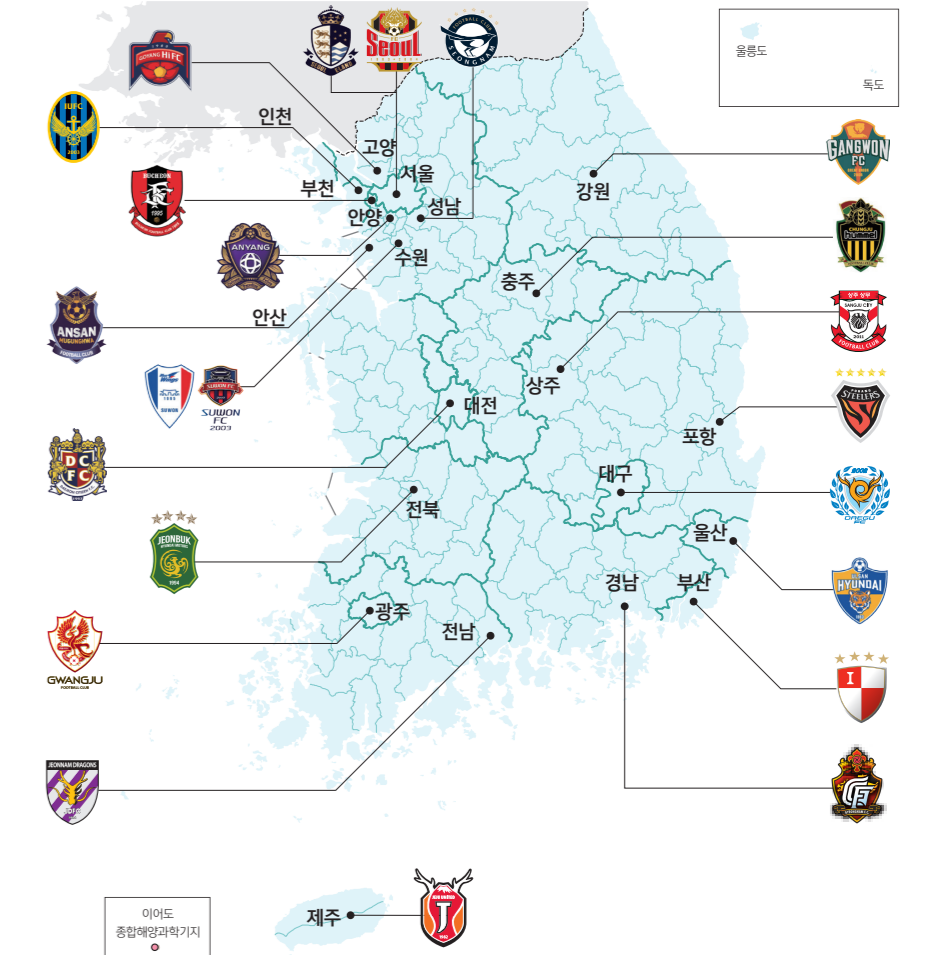
프로 농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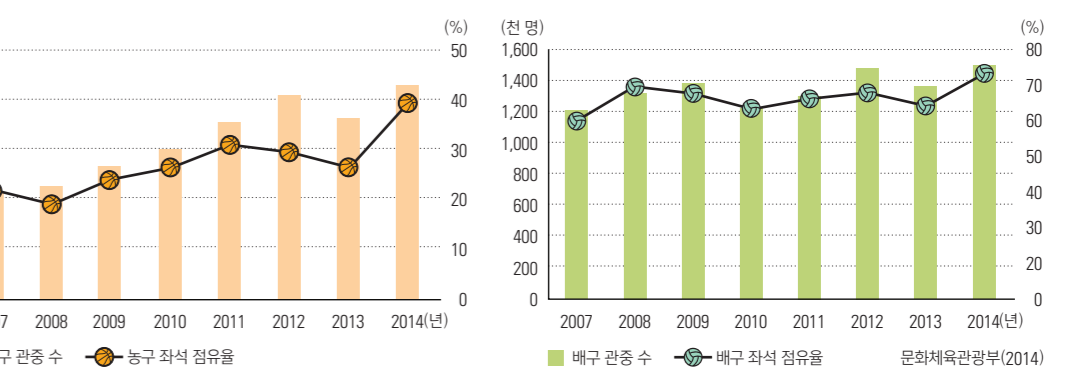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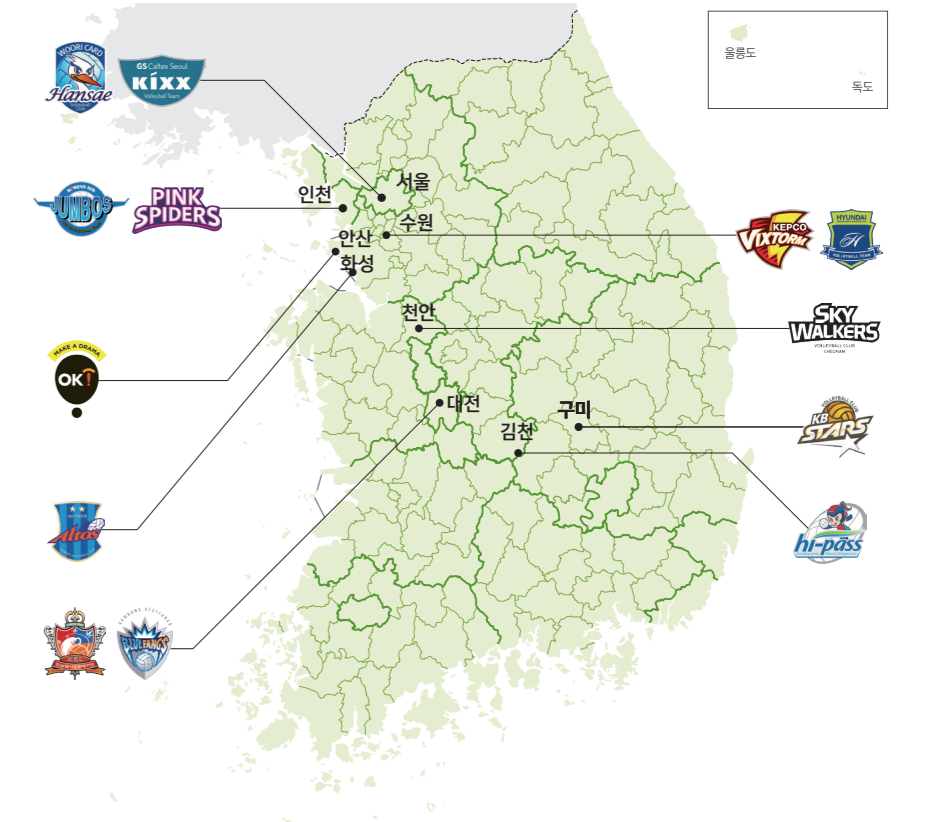
1982년 프로 야구가 출범한 이래 축구, 농구, 배구 등의 프로 스포츠가 연이어 출범하였고, 프로 스포츠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국민 여가 생활의 일부로 자리잡았다. 프로 스포츠는 여가 생활의 일부로 자리잡으며, 스포츠 산업의 기반이 되기도 하지만 지역

연구를 통해 애항심과 지역 정체성의 형성에도 깊은 연관이 있다. 특히 프로 야구는 매년 수백만 명의 관중이 찾는 대표적인 프로 스포츠로서 팀별 순위와 유명한 선수들과 관련된 내용은 언론에 비중 있게 다뤄지며, 일상생활의 대화에 빈번하게 등장

프로 축구



프로 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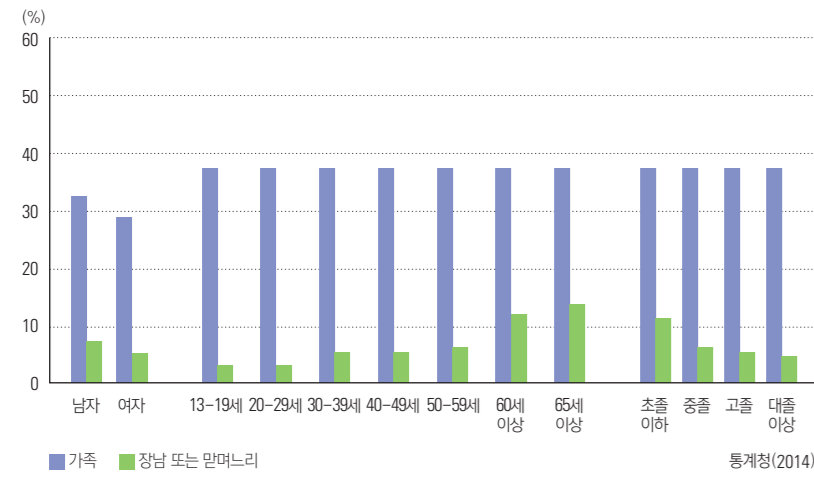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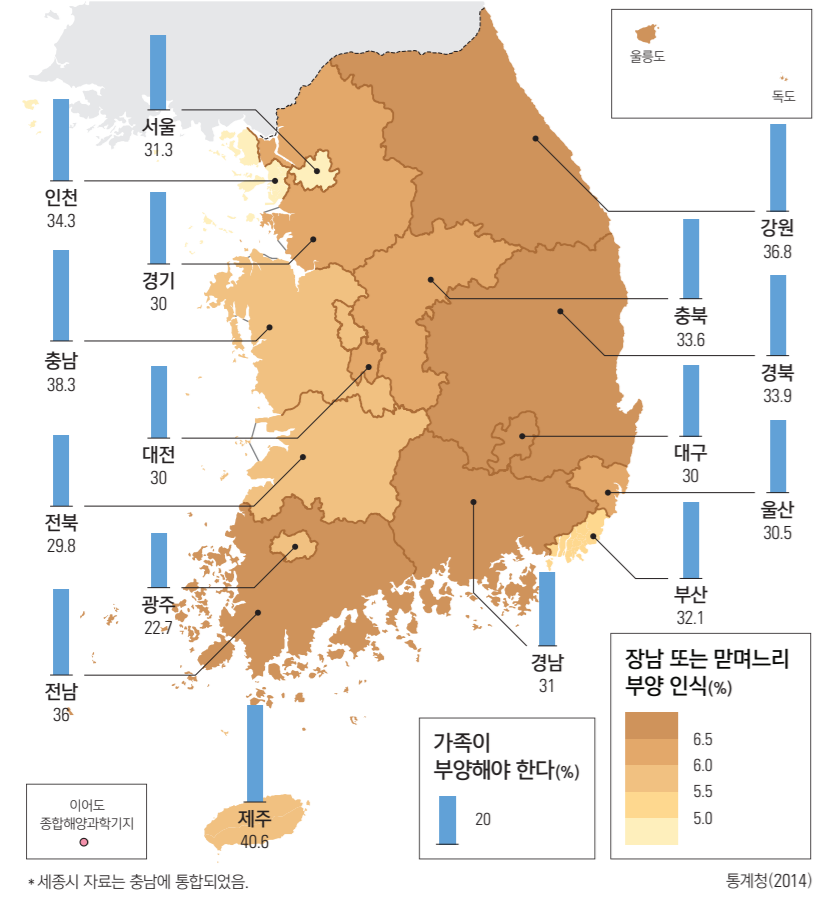


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축구, 농구, 배구 등의 프로 스포츠 구단을 응원하는 동호회 활동 등도 단순한 경기 관람을 넘어 스포츠 참여의 새로운 문화적 현상으로 변하고 있다. 많은 프로 스포츠 팀이 대도시를 연고로 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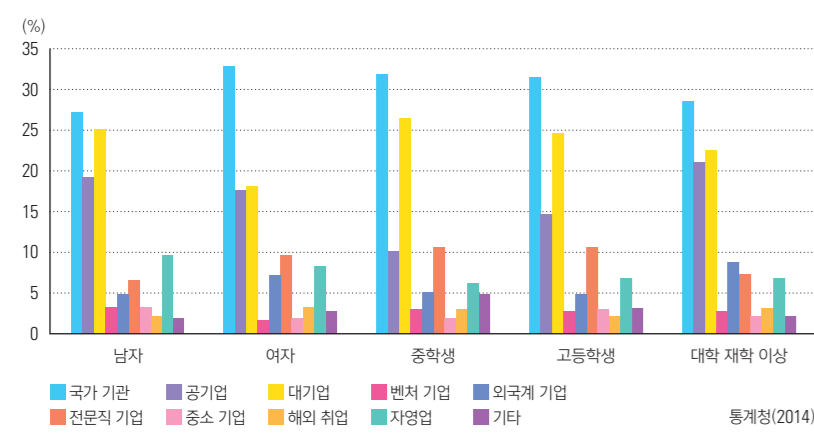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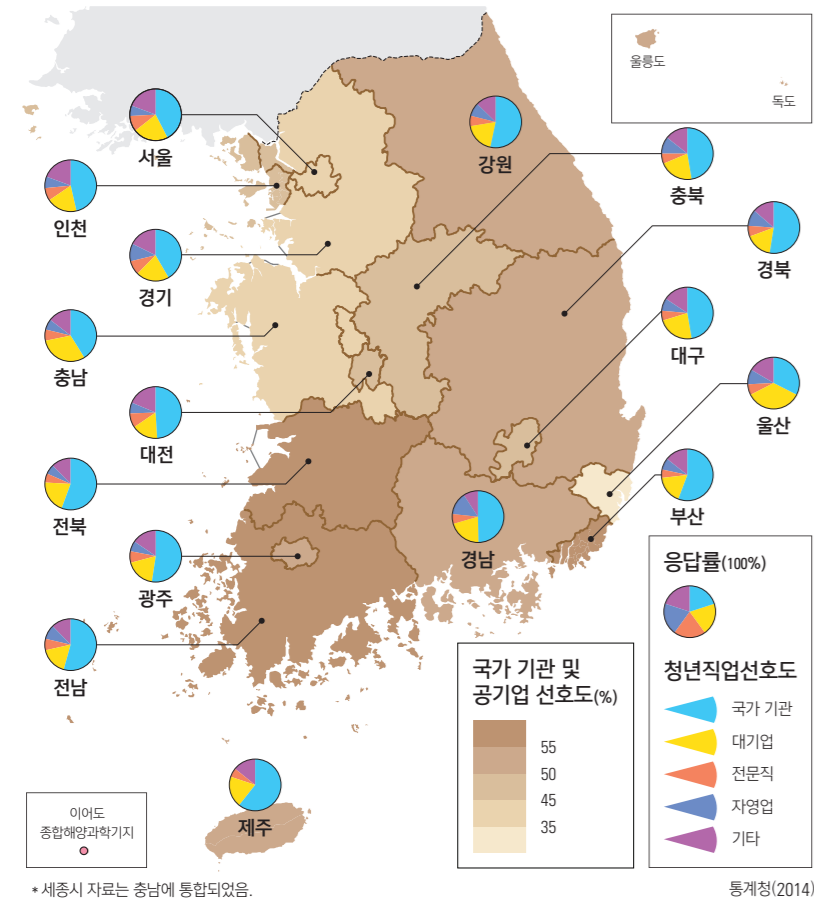
받고 있으며, 프로 스포츠팀 운영 기업들은 자사를 홍보하고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 중심의 프로 구단에서 시민의 참여와 지원으로 유지되는 다양한 시민 구단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최근의 특징이다.

사회적 관계와 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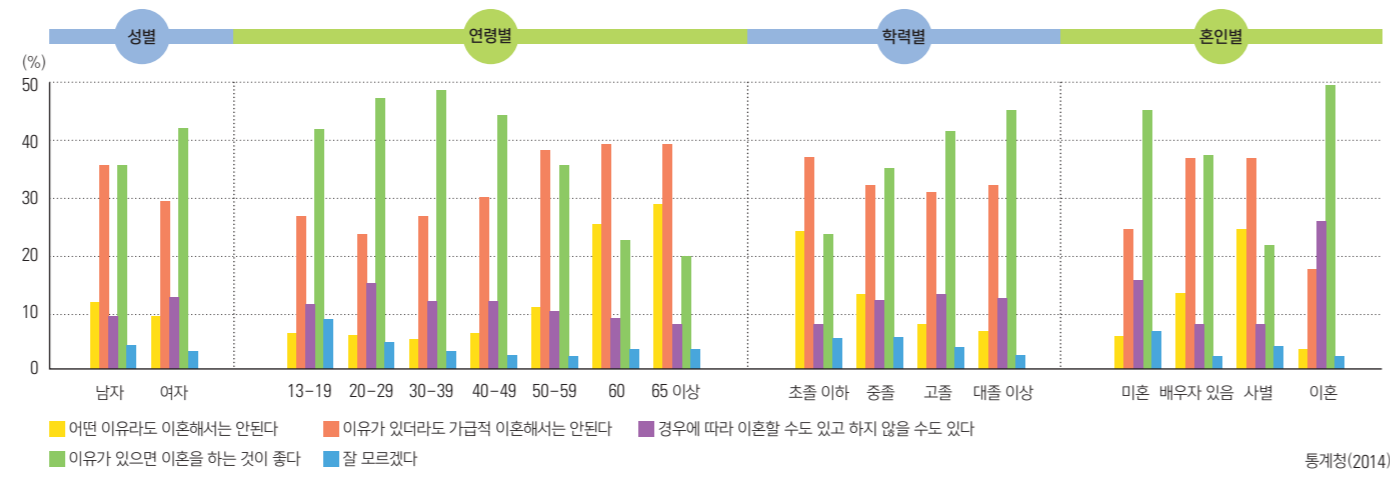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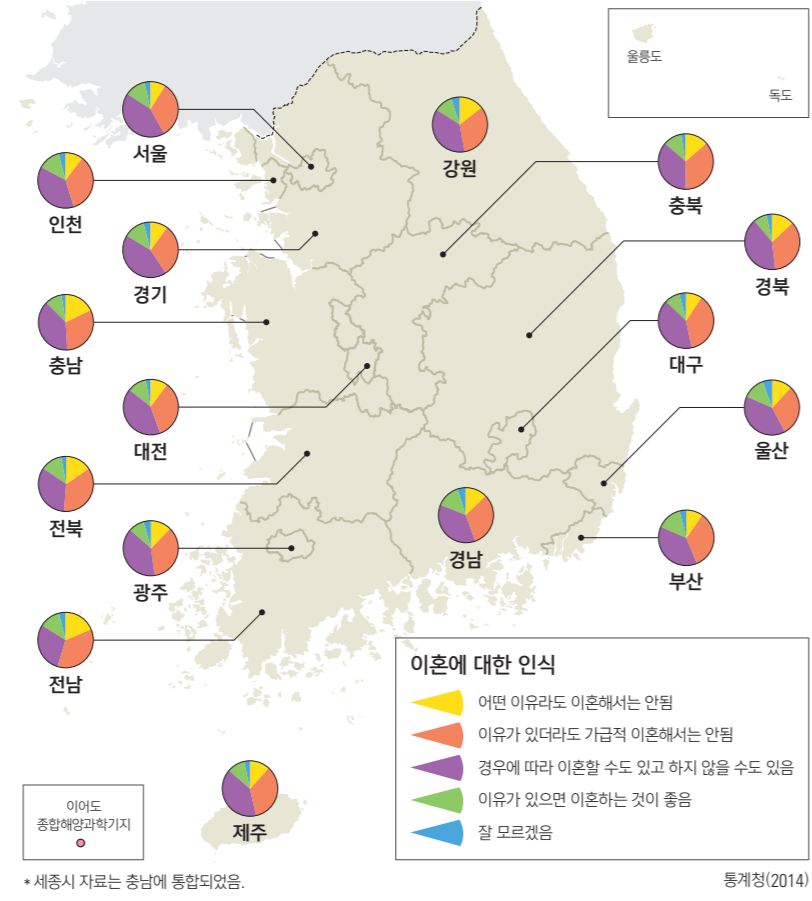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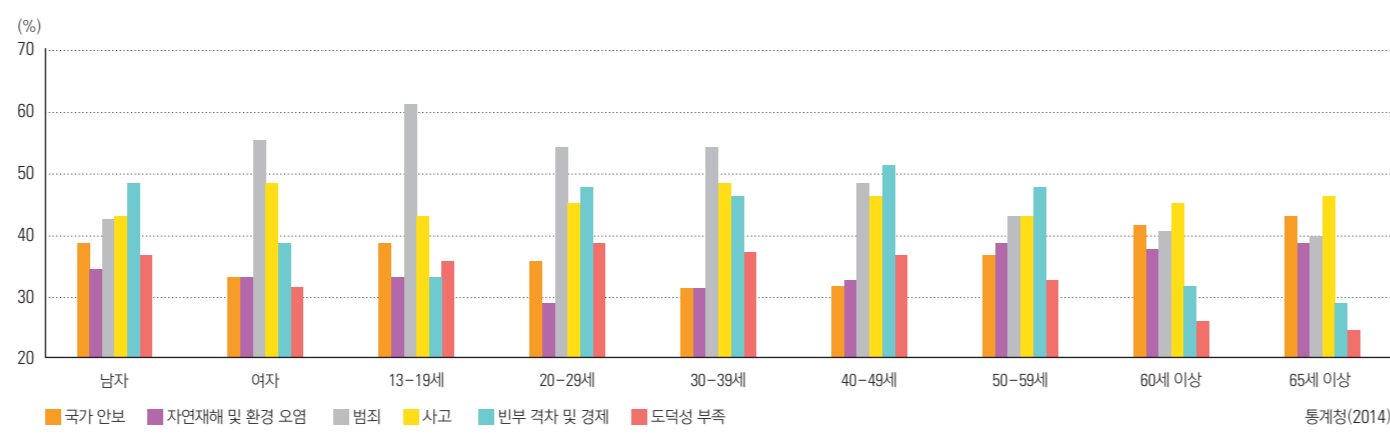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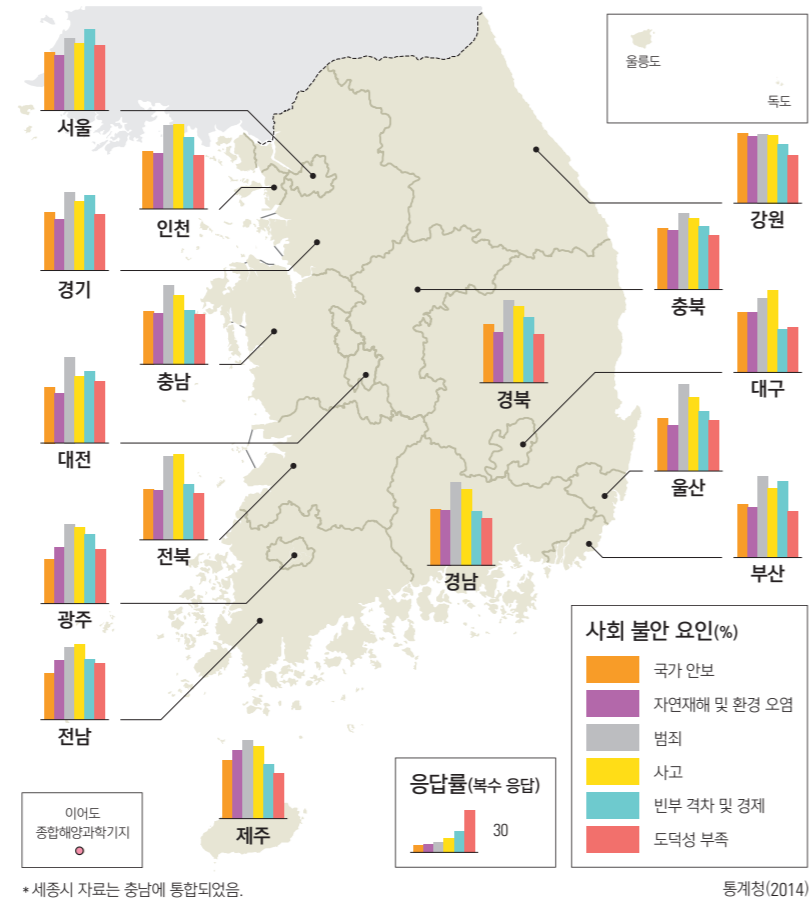
청년 직업 선호도(2014년)



이혼에 대한 인식(2014년)



사회 불안 요인(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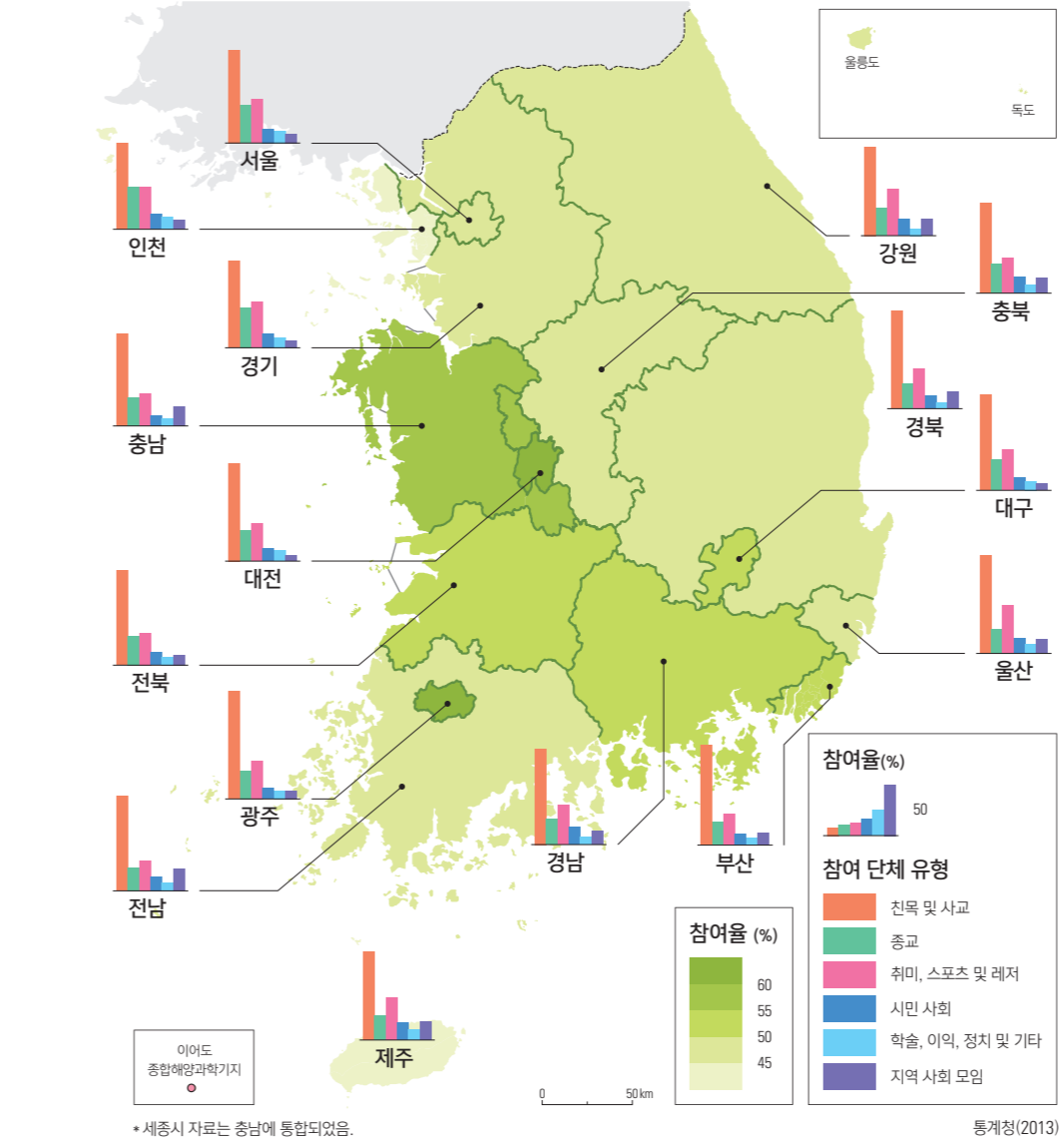
한국 사회는 급속한 변화를 겪어왔으며, 이러한 변화가 사람들의 사회적 인식과 행동에 반영되고 있다. 몇 가지 설문 조사를 통해 한국인의 사회 의식 단면과 변화를 엿볼 수 있다. 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역시 빠르게 변화되어 왔는데, 과거 전통적인 효 사상에 기반한 장자 혹은 자녀 부양 중심의 문화에서 최근에는 노후의 삶을 자녀에게 위탁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부모 부양의 책임이 많은 30 - 40대에서 부모 부양이 가족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30%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모 부양에 대한 시각은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도 크데, 이는 도시와 농촌의 세대별 인구 구성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이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유교적 인식 역시 변하고 있다. 젊은 세대일수록 이유가 있다면 이혼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높다. 또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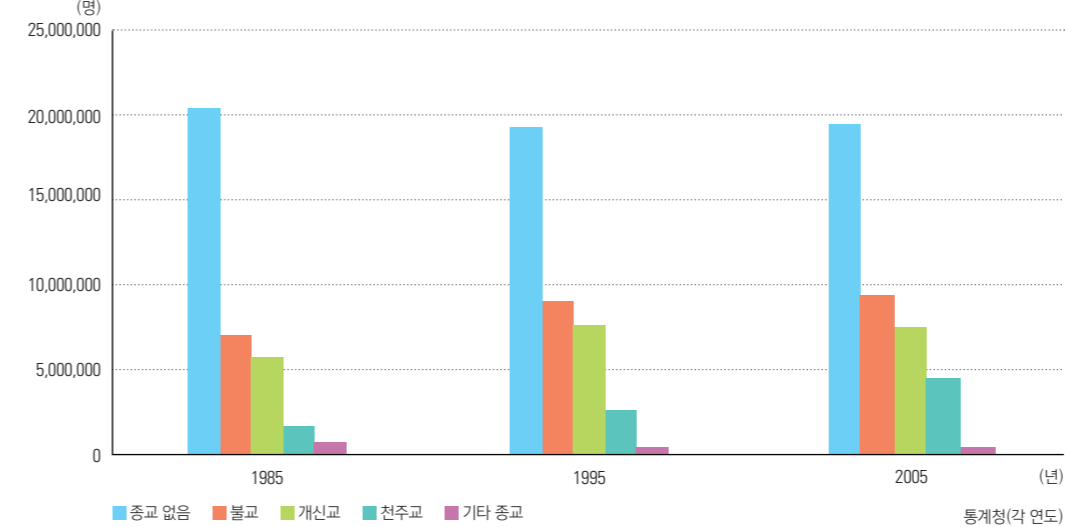
한국 사회의 불안 요인에 대한 설문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젊은 세대일수록 범죄와 경제적인 요인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반면에 노년층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함께 국가 안보, 자연재해 등이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직업 선호에 있어서도 과거 급속한 경제 성장 속에서 각광받던 대기업에 대한 선호가 줄어들고 대다수의 청년 및 청소년층은 국가 기관이나 공기업 취업 등의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국가 기관이나 공기업 등의 직장을 더욱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기관과 공공 기관의 취업 선호가 50%를 상회하는 현실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함을 드러내는 현상 중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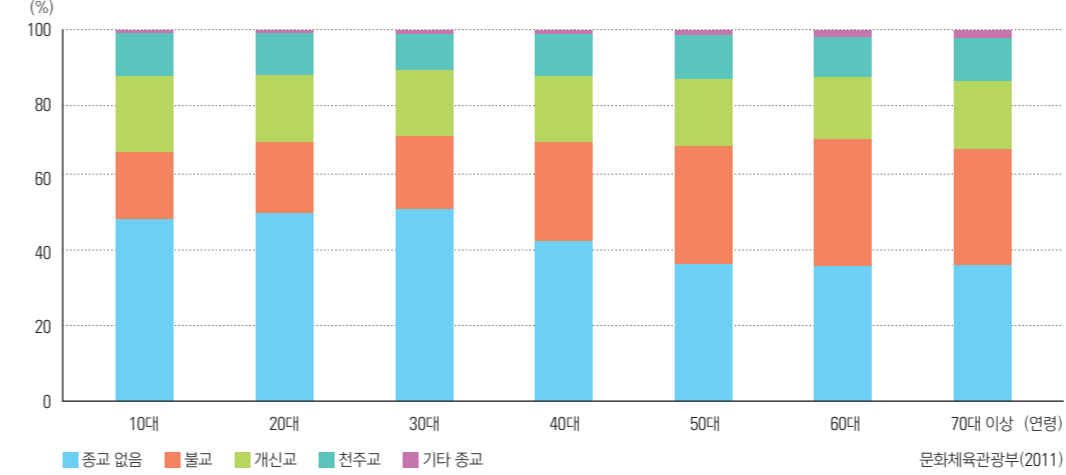
사회 단체 참여(2013년)



종교별 인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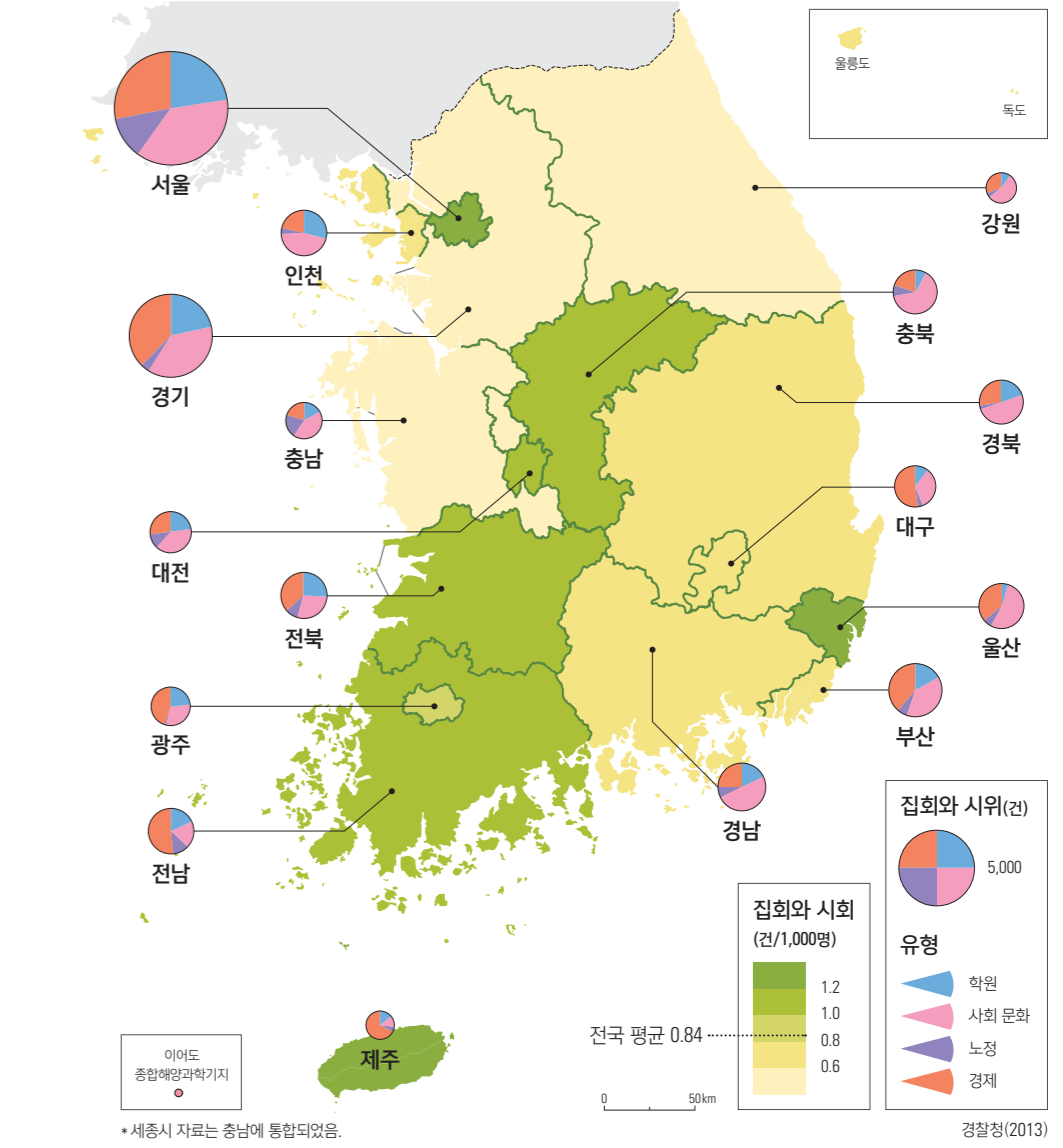
연령별 종교(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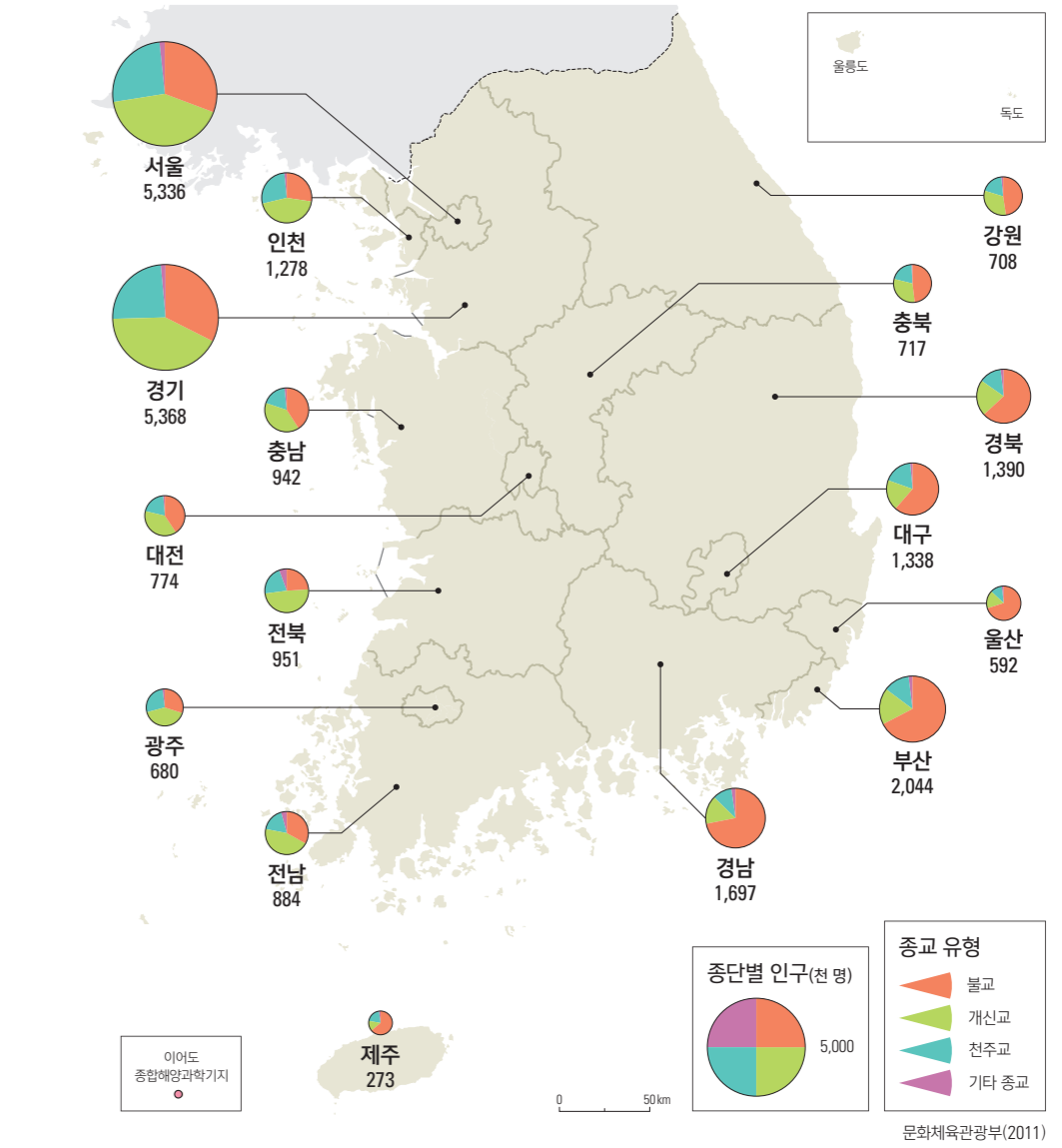
한국인의 사회적 생활은 과거 가족과 마을 위주 공동체에서 도시적 생활 양식으로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과거의 사회 관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사회 참여가 등장하고 있다. 친목 및 사교 단체와 함께 종교 및 취미 기반 활동 등이 늘어나고 있으며, 시민 사회 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정당 및 이익 단체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아졌으며, 지역 사회 활동도 많아지고 있다.

또한 시민의 권리와 주장을 표현하기 위해 투표나 정당 참여 등의 제도화된 정치 활동 이외에도 직접 목소리를 내거나 집회에 참여하는 활동도 지속되고 있다. 과거 민주주의의 쟁취와 노동권 보장을 위주로 했던 집회나 시위의 내용이 환경, 여성 인권, 지역 개발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집회의 형태도 시위나 행진과 함께 문화제 등의 다양한 형태로 변하고 있다. 집회나 시위는 주로 정부나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아 서울에 집중하는 형태를 보인다.

집회와 시위(2013년)



지역별 종교 현황



한국의 종교는 근대화 과정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다. 전통 시대에는 유교와 불교가 삶의 가치와 태도에 큰 영향을 미쳤고, 민간 신앙 역시 민초들의 삶을 위로하며 일상생활 속에 널리 퍼져있었다. 조선 시대 후기 선교사를 통해 유입된 기독교는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급격하게 교세를 확장했으며, 개신교와 천주교는 불교와 함께 많은 신도 수를 보유한 종교가 되었다. 종교별 인구는 연령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노년층은 불교 인구의 비중이 높고, 젊은 세대일수록 무교와 기독교의 비중이 높다. 기독교의 경우 개신교의 급속한 교세 확장은 1995년까지 지속되었으나 이후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천주교 인구가 타 종교에 비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종교별 인구의 구성은 지역적으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과 서남권은 개신교와 천주교의 비중이 높은 반면 동남권은 불교 인구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다.